

# 목사도 이따금 정치를 말한다

2002~2020

정용섭

미국/ 노무현 당선/ 북핵/ 노무현 대통령 취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보고/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정치란 무엇인가/ 진보 지식인과 운동가들에게/ 우리 농업의 문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소비를 강요하는 세상/ 대통령 탄핵 사태 독법/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 법이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과 안식일/ 기도회 남발/ 교회의 직장 폐쇄/ 지울스님 사태 앞에서!/ 북핵 이야기/ 대통령 발목 잡는 사람들/ 강정구 교수 문제/ 유시민 소란/ “환장하겠네”/ 노 정권의 무능과 교만?/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단상/ 이명박 정권과 한국교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에 부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노무현(1)~(4)/ 천안함에 대한 공금증(1), (2)/ 노무현 전(前) 대통령 2주기/반값 등록금과 최저임금/ 18대 대선/ 노무현과 엔엘엘/ 대선 일주년/ 문창극과 박근혜/ 세월호 참사 100일/ 헌법재판소/ 노무현 6주기/광복 70, 분단 70/ 재벌 삼성 이야기/ 국민의당/ 19대 대선 - 필요악, 대통령제, 김어준과 김용옥, 황지우와 안도현, 조중동, 주적 논쟁,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북한 문제, 동성애 문제, 대선 결과 예측 53%, 노동절, 사드 대란, TK, 대선과 일상, 노무현 묘역, 북한 포비아, 민주개혁 세력/ 노무현 8주기/ 한명숙/ 적폐/ 북핵 문제(1)~(5)/ 문재인과 김정은/ 남북 3차 정상회담-평양/ 조국 이야기/ 김진홍 목사/ 21대 총선/

# 미국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도 많이 듣고 생각한 질문이라서 진저리가 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미국이 우리의 운명에 깊숙이 개입해있기 때문에 또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1년 9월11일,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 이후로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던 나라와 그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의 신경증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또한 그 대상이 북한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의 축" 운운한 걸 생각하면 그들의 의도가 어떤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책이라는 게 늘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서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미국과 얼마든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토대가 부실했기 때문에 특하면 미국으로 달려가 눈도장을 찍고 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관계나마 다행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왕들에게 경고하기를 이런 제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바로 그 나라의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 회복하는 게 그 어떤 외교보다 큰 힘이라는 말이겠지요.

미국을 향한 성춘향식의 일편단심은 이런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남한교회도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신학교의 지부를 세워서 손쉽게 공부하고 학위를 주는 일이라든지, 미국 현지의

이름난 교회를 순방하는 일에 그 많은 헌금을 아끼지 않는다든지, 미국 설교학 교수들의 몇몇 방법론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든지, 심지어는 설교를 했다 하면 늘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예화를 자랑스럽게 갖다 붙인다든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미국의 가벼운 실용주의적 목회관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70년 초,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스타일의 목회와 설교가 한국교회와 그 강단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면 빌리 그래함과 로버트 솔러 같은 목사들의 개인주의적인, 탈역사적인, 자본주의적인 신앙과 그런 목회관이 밀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가령 “불가능은 없다”라든가, 교회는 “거룩한 기업”이라든가, “드라이브 인 처치” 같은 이념과 낱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그때 신학교를 다닌 분들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또는 백여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기독교의 힘을 자랑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더군요.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에 기독교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로 인해서 수많은 반독재 지성인과 민족주의자들과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구속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심하면 사형에 처하던 시기에 교회는 떼거리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초고속 성장을 하고, 한국 경제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인문학자의 표현대로 ‘돌진근대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 시기에 교회는 그런 시대정신과 교묘히 결합해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자신의 힘을 키웠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의 힘이 세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의 논리가, 즉 패권적 팽창주의가 여전히 오늘의 교회를 지배한다는 게 비극일 뿐입니다. 비록 미국의 근본주의적이고 탈역사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복음 전파의 열정을 배웠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청교도적 정신까지 배워야 했

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흡사 우리의 자본주의가 미국으로부터 자본  
이 갖는 힘의 논리만 배웠지, 그 합리주의적 정신을 배우지 못한 것  
과 같습니다. (2002.9.30.)

# 노무현 당선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로 몇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군요. 내가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는 장충체육관에 모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유신헌법에 따라서 박정희 씨를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요. 오랫동안 선거 없이 지내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에 의한 직접선거에서는 양 김의 분열로 인해서 노태우 씨가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92년과 97년에는 차악을 잣대로 삼았습니다. 2002년 12월19일, 생전 처음으로 최선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녁 6시 티브이에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에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옆에서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있던 두 딸이 평소 같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월드컵 때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웬 일이세요?” 그날 나는 작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당선자 확정 발표가 날 때까지 아내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설렘으로 티브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200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6월에는 월드컵 4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나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었으니, 우리에게 참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재를 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앞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어떨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 본다면 안하무인,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아침에 빵으로 식사를 하면서 두 딸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애들아,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자. 그중에 둘째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거나 때로는 외박하는 때도 있단다. 이 문제

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니? 정신 차리게 한다고 대문을 걸어두거나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방법이 있고, 또는 형제들이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방법이 있단다. 북한도 이와 비슷한 거야. 그런데 미국은 몽둥이를 들고 겁을 주고 있는 거지.” 다행히 노무현 당선자는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돌팔매질이 연못의 개구리에게는 생존문제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2002.12.31.)

# 북핵(北核)

핵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창 북한과 미국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으며, 남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격랑에 휩쓸려 있는 상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알력도 풀기 어려운데, 아물며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얹히고설킨 북핵 문제의 진행 과정을 예단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가능한 대로 바른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아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거졌던 많은 사안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양측의 근본 주장이 갈등을 겪게 된 이유와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지난 94년에 맺었던 제네바 협의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지난 연말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파기되었다. 그 파기의 단초는 일단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미국 측의 고위 당국자는 핵폭탄보다 더한 무기도 가질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빌미로 삼아서 제네바 협정에 의한 북한 중유 공급을 중단한 일이 이런 갈등의 시작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할 말은 많다. 북한이 먼저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으며, 핵무기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북한이 미국의 주장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며, 어떤 면에서 제네바 합의를 부분적으로 위반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최근의 사건 진행을 이렇게 나가도록 촉발한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정부 측 인사들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이미 있다거나 몇 달 내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압력을 계속 가했다. 그 와중에 북한은 시나브로 NPT를 탈퇴했으며,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



다. 결국, 국제질서의 헤게모니를 쥔 미국은 이 북핵 문제가 유엔의 안보리에서 다루어지도록 했으며, 앞으로 이런 틀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힘겨루기 차원에 머문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군사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이다. 북한은 이미 자국을 위협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으며,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배제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북한도 불량 국가이고 미국도 위험 국가이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다. 1, 2차 세계대전도 어떤 명백한 명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또는 아주 소수의 극단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현재 북한의 김정일과 미국의 부시, 이 두 사람은 몹시 위험스러운 인물들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신 있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 여론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여론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은 크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이런 사태를 좀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초순에 인수위 미국 특사로 간 분 중에서 한 분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관점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의 젊은이 중에는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핵 보유가 낫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나로서는 이 발언이 노무현 당선자의 의중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 발언을 두고 미국 쪽에서는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고, 국내에서도 역시 안보 불감증에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라거나, 외교력의 한계니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발언은 아주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한다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우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며, 50년 이상의 분단체제는 정서나 문화에서 너무나 깊은 골을 파놓았기에 갑작스러운 통일은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더구나

북한의 붕괴는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요새화된 그들의 병커와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일어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사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핵발전소가 파괴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반시설은 50년 뒤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복구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가 아닌가는 별로 핵심 사안이 아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미사일 한 방으로 핵무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따라서 답은 분명하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핵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굳이 서로가 치명적으로 망가지는 길을 가기보다는 비록 심정적으로 불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전쟁불가 정책이 과연 김정일을 평화 공존의 질서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당근 정책은 오히려 김정일로 하여금 역사의 흐름을 오판하게 만들므로써 한반도 정세를 더욱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김정일의 마음 속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미래 내다보고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다. 최악의 상태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고, 또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김정일 스스로 폐쇄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국제 사회에 나오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는 상황이니깐 그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줄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예뻐서가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로 하여금 배수진을 치게 만드는 정책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말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한과 북한의 미래를 보면 현재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이 북한을 방문한 미국 특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미국이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폭로했을까? 특히 아시안 게임 이후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말이다. 이런 국제정치의 음모와 권모술수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일단 최근에 미국 측이 보이는 태도 한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겠다. 북미 관계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또한 이라크 전쟁이 전세계적으로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이 그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일반도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혈맹이라면, 더구나 기독교 정신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 공격으로 남한과 일본은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물론 전략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쉽사리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에서 반대하는 이라크 전쟁을 유엔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라도 수행해나가겠다는 부시 정권의 호전성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을 향한 군사작전이 없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군사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별로 큰 피해를 입지 않겠지만, 오히려 군수산업체는 호경기를 맞겠지만, 한반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다. 이렇게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너무나 쉽게 군사적 방식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교만하고 독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정치적 발언이었겠지, 하고 선의로 받아주는 게 낫겠다.

동구 공산국가의 해체 이후로 거의 유일한 초강력 국가로 자리매김 된 미국의 이런 독불장군식의 행태를 우리가 뜯어말린다고 해

결될 일도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 서서 김정일을 압박하는 방식과 중간의 입장에 서서 양측 간의 틈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있다. 현재 부시의 정책은 힘으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서 두 손 들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인가? 두 가지 모두 아니다. 아마 북한 김정일 집단은 궁지에 몰리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비록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김정일 집단을 밀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붕괴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아니다. 소위 연착륙이 필요하다. 서서히 이질성을 줄여나가고, 경제 차이를 해소해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의 영화에 나오는 <람보> 처럼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2003년 2월15일)

## 노무현 대통령 취임

오늘 노무현 씨가 우리 나라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작년 12월19일 대통령 선거 발표가 있던 날 저녁에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티브이 앞에 앉아있었지만, 오늘은 느긋한 마음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잔치 분위기는 많이 축소된 취임식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단상에는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파월 미국무장관, 고이즈미 일본 총리 등을 비롯하여 여러 내외빈 인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앉아 계셨습니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그 이전의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제씨였습니다.

최규하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살해당할 때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직을 인수받은 분이십니다. 그 분이 소위 <서울의 봄>으로 일컬어지던 1980년에 좀더 소신 있게 국무를 수행하셨더라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훨씬 빨리 군사독재로부터 문민시대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매우 무능력한 대통령에 불과했던 그분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 질곡의 시간으로 빠져든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다시 회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도 흰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오셨더군요. 12.12와 5.18 사건으로 구속당하기 직전 연희동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할 때도 흰 목도리였습니다. 하극상의 본보기였던 12.12, 민주사회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에게 군인을 투입해 잔인하게 학살한 5.18은 전두환 씨가 계속 짊어져야 할 부끄러운 멍에일 것입니다.

노태우 씨는 멀리서 잡은 렌즈 그림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를 물태우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전두환 씨의 지명을 받아 온 좋게 대통령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대신 돈을 많이 챙겼습니다. 앞

에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모두 법원에서 수 백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감추어놓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정치 후배들에게 모두 풀어먹였는지 모르겠지만 배짱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보고 있던 아내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 양반은 감옥살이했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벌금을 물지 않고도 저렇게 앞에 나서는 걸 보면 참으로 염치도 없네.”

김영삼 씨의 눈초리는 여전히 날카롭(차갑)습니다. 무슨 야망이 남았는지 어떤 원한이 사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씨 부부와 의 인사는 너무나 냉랭합니다. 김영삼 씨는 대통령 초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거의 90% 이상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국민적 호응을 알만합니다. 실명제 실시, 군대 내의 하나회 숙청, 고급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등등, 굴직굴직한 개혁조치였습니다. 그가 자초한 잘못은 아들 관리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없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들로 인해서 그의 통치력은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에게는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권 5년간 얼마나 많은 대형사고가 터졌는지 “우째 이런 일이!”라는 유행어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급기야 IMF가 터짐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실 아이엠에프는 김영삼 씨 자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토대가 너무나 허약체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으로 있든지 터지고 말 일이 터진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고향 거제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김대중 씨는 너무 늙으셨습니다. 불편한 다리야 큰 문제가 아니지만, 표정에 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벗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내아들은 출옥했지만 여전히 둘째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자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테지요. 김영삼 씨와 더불어

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김대중 씨가 대통령직을 지냈다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것은 수사적 의미라면 모를까,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권교체에는 김종필 씨와의 야합이라는 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가장 큰 의미는 그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동서 지역 갈등의 한 축인 전라도 사람들의 정치적 한이 풀렸으며, 아울러 결과적으로 그들이 김대중 씨에게 갖고 있던 환상의 껍질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김대중 씨는 김영삼 씨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놓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힘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말한 대로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아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표적인 민주투사였던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마저도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비극입니다. 만약 이 두 분이 박수를 받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훨씬 반듯하게 진보했겠지요. 본인들이야 이런저런 할 말이 없지 않겠지만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일단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취한 업적에 도취해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들들 문제가 그렇게 불거질 때까지도 새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감각을 가진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발전의 당연한 귀결이며 우리 민족의 행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두 대통령이 가졌던, 그래서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씨는 앞의 대통령들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인물입니다. 생긴 모습부터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더군요. 물론 외모가 평범하다고 해서 권위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골 농부 같은 외모이지만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겨울공화

국>의 주인이었던 박정희 씨를 오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의 방증인지, 또는 실제로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이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리성 사고를 갖고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노무현이라는 잣대와 비합리적이며 비민주적이지만 경제 발전을 이룬 박정희라는 또 하나의 전혀 이질적인 잣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현재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그 이전 대통령의 취임사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니다. 자신의 삶이 포함되지 않은, 또는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취임사는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놓아도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 구사는 앞의 대통령들,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이들과 그 틀이 전혀 달랐습니니다. 조금 유심히 살펴해보신 분들은 이런 차이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언어의 존재론적 힘이 담겨 있는 연설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단지 그럴듯하게 꾸며서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강의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감동적으로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실질이 담겨 있지 않아서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알고 하는 말과 모르고 하는 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철학이 충분할 정도로 녹아있기 때문에 큰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즉 삶과 삶이 살아 있는 언어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는 노무현을 너무 치켜세운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사모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 한계를 못 보거나 외면할 만큼 순진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사정이 오늘보다 훨씬 나빠지거나 남북관계도 악화하고, 그가 그렇게 강조하는 동북아 중심 시



대가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의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성심성의를 다해 어떤 세계를 향한 꿈으로 자기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우리의 지도자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뉘달할 것입니다. 어떤 세력은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약간의 약점이 발견되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걸려들 수 있는 딜레마이며 올무입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욕과 지금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로 부흥시키겠다는 요구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둘 다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면 가야겠지만, 인간사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민은 잘 사는 것을 바라니까 지도자로서 표면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취하면 결국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는 간혹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약간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 사회구조를 먼저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과 경제 발전,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원칙적인 말은 할 필요도 없겠지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 보좌관이나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면면을 보면 높은 이상과 확실한 현실 감각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연히 감정적인 편견에 치우쳐 그분이 올라가 있는 나무를 흔들지 말고, 우리의 젊은 대통령 노무현 씨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마음껏 펼침

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그야말로 정정당당한 사회가 다가올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제야 명실상부하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 역사적 순간(Epoche)이 우리에게 도래했으니까 말입니다. (2003년 2월25일)

##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보고

나는 어제 오후 2시부터 티브이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를 반쯤은 티브이로 보았고, 반쯤은 라디오로 들었다. 오후 4시에 모 교회의 청년회 헌신예배 설교 때문에 2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아주 열심히 보고 들었다. 재미도 좋았다.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에서 어떤 보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검찰의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신과 출세보다는 여전히 검찰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검찰 전체의 생각보다 훨씬 개혁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이들의 주장에서 그들에 대해 가졌던 나의 생각과 반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받았던 심리적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자괴감이라고 할런지, 아니면 열등감이라고 할런지, 어쨌든지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사권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그들의 정신적 피해의식이 숨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발언한 대부분의 검사들의 주장은 정치권 때문에 자기들의 처지가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하소연으로 모아졌다. 노무현 당신도 그런 것 같으니 차제에 검찰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위해서 인사권을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을까?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들이 검찰을 자기 하인 다루듯이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라 일컬어지는 대통령들에게서도 이런 흔적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치권의 외압에 대해서 검찰들이 얼마나 저항했는가 하는 점이다. 어제도 어느 검사가 토로한 것처럼 고위층 인사의 전화 한 통화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검사들이면서 정치권 외압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

지 않는 이야기다. 노 대통령의 지적에도 있었듯이 어두운 시절에 언론인들은 해직 당하고 투옥 당하면서도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역사가 있었지만, 검사들 중에는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다. 간혹 심 아무개 검사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자신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떨어졌을 때나 반발하는 것이지 정의로운 검찰상을 위해서 투쟁한 것은 아니다. 이 사회 집단 중에서 검찰만큼 자기들의 조직과 일신상의 안위에 안주하고 있던 집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생, 노동자, 성직자, 심지어는 교수들까지 해직과 투옥,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던 시기에도 검찰은 꿀먹은 벼어리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양심수나 정치범들을 기소하는 실무를 맡았다. 이런 마당에 이번 노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나서서 집단적인 항의 표시를 했다는 사실은 평상심에서 나온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신경증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들이 보이는 철학(논리성)의 빈곤이다. 우리의 법체계에서 기소권은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경찰도 기소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측의 결사적인 반대와 이런 저런 이유로 유보되어 있다.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검찰을 어떻게 견제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과도기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들이 수사권과 인사권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정당한 법철학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이기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의 그런 주장이 무조건 불순하다는 것은 아니다. 철학의 빈곤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집단적 이기심에 흘러든 게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의 도구처럼 이용당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충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간과

법과 정치, 정의와 평화, 제도와 의식 같은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면 이렇듯 몰염치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제의 대화에서 몇몇 검사들은 대통령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다. 그 자리는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엉망으로 망가진 검찰의 바른 자리를 찾아보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법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검사들의 감정적 대응을 설득시켜보자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청탁건 같은 아주 지엽적인 사안들을 흡사 죄인 취조하듯이 쏟아낸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철학의 빈곤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어제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옷오비 등을 비롯하여 그간에 보였던 검찰의 어두운 면을 꺼집어 냈다면 아마 말싸움으로 전개되었을지 모른다. 다행히 대통령은 적당한 선에서 검사들의 말을 정리하고 대화의 흐름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멸사봉공 한 자신들을 대통령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생들이 총장에게 학생회 운영을 위해서 자치권을 보장해달라는 수준의 건의사항에 불과했다.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해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허물어 버릴 정도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인간과 삶 전체에 대한 이해가 미숙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인지, 자숙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건의해 나가야 할 문제인지 구분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말이다. (2003년 3월10일)

##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오늘(3월10일) 아침 인터넷으로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았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 건을 어떤 논조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으며, 나 자신도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굳이 <안티 조선> 운동 같은 게 오늘의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역시 변함없다. 어떤 언론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안티를 한다고 해서 그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진리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사설을 읽으면서, 이걸 아는데 하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문에서 이런 사설밖에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검사 對話', 이 方式으로 안된다>는 제목의 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검찰 인사파동의 돌파구를 평검사들과의 직접토론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시도된 '대통령과 전국검사들과의 대화'는 한 마디로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현장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느낌이다. 우선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젊은 검사들에게 설득시키지도 못했고, 검사들은 검찰의 인사권을 왜 법무장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관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지도 못했다.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한 마디로 매도하고

마는 것일까?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젊은 검사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이 논설위원의 주장은 어떤 사실에 토대하고 있다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대화의 자리에서 당장 젊은 검사들이 "예,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설득이 되었다고 여기는 걸까? 그 자리는 서로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밝히고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것이었지, 어떤 심포지움이나 정당 끼리의 토론장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어느 쪽에 설득력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검사들이 당장에 자신들의 소견이 짧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도 대통령의 솔직하고 합리적인 설명에 상당히 공감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주장도 나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미 설문조사에서 나와 있듯이 (조선일보 자체의 설문에도 그렇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런 대화의 자리가 바람직했으며, 또한 대통령의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받아들였다는 데에서도 <이 방식으로 안 된다>는 사설자의 주장은 일종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과 검사들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마주앉은 상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화는 시종 국민을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이번 대화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지 조선일보 스스로 잘 알고 있을텐데도 국민을 "위태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의 사설자는 조마조마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재미 만끽이었다.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했다는 말이다. 정치는 국민에게 건강한 재미를 주는 게 아닐까? 뭐가 그렇게 조마조마한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사설자는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 상을 그리면서 저러다가 검사들 크게 다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것일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참여정치의 리더십은 그것대로 평가할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검사들과 나눈 대화의 형식과 내용은 ‘노무현 정치’의 상표인 직접민주주의가 내포한 함정과 위험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 점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갈등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 때 짊어져야 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과 국정운영의 부작용을 내다보는 사려(思慮)가 모자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식의 직접민주주의가 내포한 함정과 위험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얼까? 이 사설자의 논지는 정곡을 찌르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적 표현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정치적 부담과 국정운영의 부작용"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물론 사설이라는 좁은 지면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는 구체성을 적시할 수 있어야만 했는데, 그게 없다. 나는 어제의 대화를 보면서 부담과 부작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저렇게 해서 서로의 다른 입장들이 그 차이를 조금씩이나마 좁혀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사설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처럼 미리 예단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들이 데모를 하면 그곳으로 득달같이 달려가고, 약사들이 데모하면 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할 것처럼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대통령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청와대와 내각 인사 후에 처음으로 단행하는, 어떤 면에서 국가의 가장 핵심 권력기관에 속한 인사문제였기 때문에, 또한 법을 먹고 사는 검찰들의 불법적 집단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현장에 나섰을 뿐이다. 노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다섯 번쯤 현장에 나



가서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문제만 불거지고 말았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자가 염려할만 하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처음부터 판지를 거는 이유는 감정이 앞섰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의 토론은 대통령 지위가 갖는 품위와 권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왜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쌍방의 이해가 거의 내비쳐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 토론의 기본틀조차 엿보기 힘들었다.

종국에는 대통령의 입에서 ‘모욕감을 느낀다’거나 ‘여러분 말씀에 비아냥이 들어있다’는 등의 직설적인 언사가 튀어나오고 ‘대통령 당선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왜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이 나오는 데 이르러서는, 국민들은 토론내용을 쫓기보다는 이미 옆질러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먼저 걱정해야만 했다.

사설자는 대통령 품위와 권위 운운하고 있다. 조선은 그동안 앞서의 대통령들을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 허심탄회하게 일선 검사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품위와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 대화 자체를 냉소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검사들이 대통령의 약점을 지적할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며, 대통령으로서도 모욕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양념과 같은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침소봉대해서 우리의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기억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깔아뭉개는 저의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토론내용을 쫓기보다는 이미 옆질러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먼저 걱정해야만 했다."고 하는데, 이 사설자 말고 누가 걱정을 그렇게 했을까? 약간 앞서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걱정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 대화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을 거치면서 결국은 모양 좋게 정리되었다. 아마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

들에게는 이게 무척이나 걱정스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유의 틀을 가진 대개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즐거운 게임처럼 보였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 무기로 자신하고 활용해 왔던 ‘노무현 표(標)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돌아볼 때가 되었다.

조선의 사설자는 아무런 사실적인 바탕도 없는 주장으로 글을 끝내고 있다. 무게가 실리지 않은 글의 본보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왔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몇 번이나 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할 때 연설하던 것을 보고 말하나? 모든 후보자도 그렇게 했는데 말이다. 장관 할 때 현장에 나선 것을 보고 말하나? 그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처음 시도된 것을 두고 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설자의 고의성이 엿보인다.

사람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으므로 보수적인 조선일보사의 논설위원들이 진보적인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조선일보가 보여준 그간의 행태라고 한다면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갔어야 한다. 설사 그럴 생각이 없다면 사실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당하게 평가해야만 한다. 검찰 인사권을 법무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건 어처구니없게도 대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것은 흡사 어제 검사들이 대통령의 형에 대한 비아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을 쓸 수밖에 없는 신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라는 사실은 도대체 무언가?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런 구조를 재생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식 수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2003년 3월10일)

## 정치란 무엇인가?

지금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병을 원하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병과 의무병을 파병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제기되다가 이제 정식으로 국회의결 단계에 이르러서 거의 국론분열 상태에 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중요 사안이 이전처럼 대통령과 소수의 정책 결정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이 성장한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파병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파병이 곧 국가 이익에 직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문제가 고도의 국가 전략이라고 했으며, 들기기로는 김수환 추기경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엔 파병을 통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돈독히 다지게 되면 결국 북핵 문제에서도 발언권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 쪽에서는 파병은 세계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도 별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의 국가 전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우선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우리의 군대를 파병한다는 것에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파병 반대 측이야 이 명분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찬성 측도 주로 국가 이익을 강조하는 걸 보면 명분에서는 일단 밀리는 셈입니다. 찬성 측은 국제 질

서가 명분보다는 냉정한 국가 이익의 메카니즘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을 가장 핵심적인 자기 논리로 삼고 있습니다. 티브이 대담에 나온 어떤 패널은 6.25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었으니까, 또는 미군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회 안정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파병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진한 분들이십니다. 어쨌든지 저도 미국의 이번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11 테러 이후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반테러주의가 이렇듯 또 하나의 테러리즘의 형태로 현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 독립 국가를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아, 또한 테러를 지원했을 것 같다는 심증에 의해서만, 그것도 유엔의 결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 사찰을 좀더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한 채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범죄 행위입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자국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에만 군사적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군사적인 침략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이라크가 세계 테러의 배후라는 증거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은 유엔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테러 행위는 그 내면에 상당히 복잡한 국제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전쟁이지만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손해가 되는가라는 점에서 서로의 의견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저도 확실하게 언급하기 힘듭니다.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미국을 이번에 눈 딱 감고 손을 들어주면 나중에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을 게 아닌가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역시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복핵 문제에서 역시 자기들 뜻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거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는 이번 전쟁에 파병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세계로부터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국익에 맞는 정답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운명도 그렇지만 국가의 운명도 역시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국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미국이 9.11 사건 이후로 때려부순 아프카니스탄이나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라크를 미국 스스로 국익원리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 불뚝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익을 우선한다는 그 국익우선주의가 근본적으로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익주의는 국제 질서에서 냉엄한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어떤 전제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나라에 손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국가 이익만 챙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파괴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속성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주변 식민지의 평화를 깬 로마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 경험을 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느 나라 사람보다 훨씬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이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만 늘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에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면 비록 파병을 통해서 얻어지는 국익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파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잃으면서까지 국익을 좇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힘이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구차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대국과 의견을 달리 하는 게 떳떳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또한 그런 나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이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세계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국제 질서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찾는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안이한 발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유대 왕들을 향해서 국제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외줄타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바벨론과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런 언급은 유대 왕들이 이집트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보려는, 그러다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 쟁길 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왕이 생각하는 국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익이라할 정의와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국익 운운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길이길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 아닐까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정치철학이 원칙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정치가였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별로 확실하지도 않은 국익 운운 한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미국에 예측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어쩌면 내심으로는 파병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듯 특수한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처럼 대통령과 시민단체 및 파병 반대 의원들이 이 뜨거운 감자같은 파병 문제를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해서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파병을 하지 않게 되거나 의료단만 지원하는 정

도로 매듭지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원안대로 파병하게 되고, 더욱이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월남전 때처럼 전투병까지 파병하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정책적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요! (2003년 3월29일)



## 진보 지식인과 운동가들에게

어제(6월12일) 나는 손석희 아나운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100분 토론>을 시청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서 두 사람이 출연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과 외대 이장희 교수가 출연했다. 결론적으로 김근태 의원과 이장희 교수의 논리는 상당히 감정적이거나 자기 합리화에 기울어져 있어서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김근태 의원이나 이장희 교수 모두 자신의 삶을 던져 이 시대의 왜곡된 현실을 잡아보려고 애를 쓴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의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노무현 정권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비틀어져 있는 것 같아서, 혹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념적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들은 줄곧 노 정권의 외교가 굴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보려고 했다. 한미동맹보다는 민족 자주가 우선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주장을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소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외교는 그런 원칙을 곧이 곧대로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북한의 외줄타기 외교라든가, 9.11 테러 이후 부시 정권이 보여주는 선악이원론적 정책 사이에서 우리 남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더구나 남한 안에서도 훨씬 막강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수 우익 집단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김근태 의원은 김구 선생을 거론하면서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어제의 토론을 마감했다. 이장희 교수는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 6.15 남북정상 회담의 의미를 다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끝말을 맺었다. 특검의 진행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민족사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득이 많은 데도 불

구하고 이장희 교수는 이 문제를 매우 격한 어조로 비판만 했다. 이에 반해 정부 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이름이 기억나지 않음) 일단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아주 명쾌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을 갖지 않겠다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좌우간 이런 논란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할 핵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 형세를 조율해나가는 것이지 좌충우돌 하고 있는 부시 앞에 가서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교조와 교총과 교육부, 학부모회 등등, 많은 교육단체와 기관들에 의해서 NEIS 문제가 거의 사회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비화되었다. 윤 장관의 쫓대 없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공연히 부풀어진 느낌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시끄러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숙한가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사회 문제에 적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도 나이스(네이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는 잘 모른다.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것을 보면, 아마 학생들의 신상이 손쉽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공청회를 열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모아가면 된다. 이 모든 게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최소한의 생각이 통하기만 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너무나 손쉽게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포기한다거나 시위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다. 정말 사생결단으로 뛰어들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문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관철시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새만금 문제는 나로서도 언급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일단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일 텐데, 전북 도민

이 저렇게 아우성 치듯 매달리고 있으니 정부 쪽에서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지난 번 두 성직자의 "삼보일배" 이후에 반짝하더니 이제는 소수만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흡사 대구 사람들이 무슨무슨 국가 공단 지정을 위해서 지역감정을 이용하면서까지 매달리듯이 전북도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전북 도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만약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부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시킬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호남 소외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마당에 방조제 공사를 중지시키라고 노 정권을 밀어붙인다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 말고도 노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니까 접어두로 하고, 이들 진보적 지식인이나 사회운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겠다. 거의 가능성이 없었던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지형의 변화를 예고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허탈감 때문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비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믿고, 기대했으면 최소한 2,3년은, 아니면 1년만이라도 기다려보아야 한다. 물론 그 중간이라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투쟁해야 하겠지만 전술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을 비판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도 찝고 싶은 사람은, 공연히 보기만 해도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천으로 깔려 있다. 그중에는 원래 보수 반동(反動)이던 사람도 있고, 같은 길을 가다가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늘 비판을 위한 비판에 젖어 있는 사이비 지식인들도 많다. 이런 와중에 건강한 지식인 운동가들마저 열매를 빨리 얻고 싶은 다급한 심

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비치면 일하는 사람은 피곤하다. 전교조 선생님들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지금 문제는 네이스를 끌어내리는가 아닌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비교육적 현실에 있다. 고등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매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네이스 문제로 노 정권의 힘을 약화시켜 버리면 이 사회에 내면화된 구조적인 문제는 손을 댈 수도 없다. 자칭 진보적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시시콜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방문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느니, 일본방문이 굴욕적이었다느니, 또는 특검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과의 버거운 싸움을 전개해야 할 노 정권의 힘을 소진시켜 버릴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책 브레인들이 정책적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주마가편이라고, 노무현 정권을 위해서 진정한 충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의 행태는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나친 선명경쟁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정적으로 투쟁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선택한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잘 달리도록.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내도록. 동지들이여! (2003.6.12.)

## 우리의 농업 문제

지금 내 책상 위에는 9월25일자 <한겨레 21> 32,33쪽이 펼쳐져 있다. 이슈추적이라는 꼭지로 편집된 이 글은 “그래도 농민은 살아야 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세 장의 사진이 올라있다. 32쪽 하단의 사진은 9월14일 멕시코 칸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각국의 비정부기구 회원의 환호하는 큼직한 모습이고, 33쪽 중간에 실린 두 장의 사진은 이와 다른 처참한 모습이다. 하나는 9월10일 한국 농민운동가 이경해씨가 세계화에 반대해 할복한 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시위자들과 경찰들과의 사납게 싸우는 모습이다.

먼저 합의 도출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적으로 모든 무역 거래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무역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제조직이다. 이런 자유무역 체제를 가리켜서 세계화라고 부른다. 유럽연합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서 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화가 가능한지가 일단 의문스럽다. 이런 기구는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쟁을 자유체제에 놓음으로써 선진국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공산품보다는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의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내리거나 없애도록 요구해왔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공산품 생산도 뛰어나고 농산물 생산도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고 싶겠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물의 경쟁력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입장이 아주 난처하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예컨대 쌀은 아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태이다.

우리 협상단의 전략은 당연히 공산품과 농산물을 구분하는 데 있다. 공산품의 관세는 낮추고, 농산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관세 원칙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WTO 체제하에 남아있을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에게만 유리한 쪽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환호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WTO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유 무역 체제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같은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일본의 입장과 칠레나 브라질의 입장은 상반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된다면 칠레나 브라질 농민들은 수입이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농민운동가 이경해씨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 말할 입장이 못된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수렁을 건너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입을 다무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다. 다만 숨을 거두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온하게 보이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아직 이 WTO의 정체가 물신(物神)의 보편화인지, 아니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요악인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항거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감을 잡을 수 없다. 다만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 생명력을 손상하지 않는 그런 체제와 제도와 운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만 있을 뿐이다.

고 이경해 씨가 평생을 몸바친 한국 농업의 상황은 앞으로 틀림없이 산 넘어 산에 처해질 것이다. 현재 쌀값에 비해 3분의 1이나 4분의 1 가격에 호주, 미국, 중국 쌀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는 날에는 그 결과가 참으로 끔찍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무한정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와 티브이, 반도체를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WTO 체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처음 우루과이라운드가 발동하기 시작한 10년 전부터라도 우리의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나 부신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에만

충실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묘안은 없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10년 전인 1993년 12월에 나는 현풍제일교회 소식지 <비슬칼럼>란에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해 두 편의 글을 실었다. 그중에서 12월 5일자로 실린 “쌀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기에 다시 옮겨보겠다.

요사이 쌀 개방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야단이다. 냉해와 추곡가 실랑이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 쓰라린 농부들이 때아닌,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쌀개방 때문에 벼단을 불사르기도 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면서 개방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농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농수산위원회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저잣거리의 싸움질처럼 난장판이 펼쳐졌다.

농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국제 경제질서에 대해서 거의 까막눈이라 할 목사가 쌀개방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선불리 뇌까린다는 것이 무모한, 그리고 무례한 소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말해야 하지 않느냐는 책임감(?) 때문에 짧은 소견일지라도 용기를 갖고 언급해 보고자 한다.

쌀은 우리 배달의 거래가 조상 대대로 주식으로 삼아온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쌀개방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우선 정서상의 문제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가정제품이나 자동차, 대리석 같은 건축자재, 의류, 심지어 쇠고기나 담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쌀 수입이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 내지 분노는 다른 어떤 논리적 답변으로도 상쇄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쌀개방은 우리의 정서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면에서도 다른 품목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경쟁력이란 기본적으로 그 품목의 성능과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쌀은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와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품목이다. 그렇다고 쌀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애국심 운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벤츠 승용차는 수입이 되더라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것과 경쟁할 수 있다. 쇠고기의 수입도 처음에 예민한 문제였지만, 우선 한우가 수입고기보다 훨씬 좋은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한우 농가에서 더 좋은 육질을 개발하도록 자극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쇠고기 수입은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담배 수입은 어떨까? 양담배가 국산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다. 값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그럴듯한 외국 모델의 선전공세 때문에 청소년층과 외국 선호적인 사람들이 즐겨 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쌀은 우선 값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아는 바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비가 우리에게 비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미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듯이 수입쌀이 경기도 여주, 이천의 '아끼바리' 만큼이야 할 수 없겠지만, 그 질의 차이가 값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선 기술로 그 나라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쌀을 대량 생산한다면 우리와 같이 주로 소농이나 중농으로 이루어진 영세한 농업구조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결국 쌀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 천년 동안 지어오던 벼농사를 때려치우고 호주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입된 값싼 쌀을 사먹고 살게 될 것이다.

쌀개방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전체 인류가 앞으로 가족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묘사히 흔히 회자되는 '글로벌 스피릿'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지역이나 민족을 뛰어넘어 지구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삶의 자세이다. 그렇게 될 때 지



역별로, 혹은 국가별로 생산성 높은 업종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정의롭게 분배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결국 값싸게 먹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금년 안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근본 취지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비옥한 땅이 많은 나라에서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산업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을 주로 생산하게 되면 서로가 유익하다는 말이다. 한 나라가 모든 인간의 필요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원리에 속한다. 만약 이렇게 상부상조의 국제질서가 잘 진행될 수만 있다면 우루과이라운드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어디까지나 민족 이기주의로 흘러갈 위험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농사를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전자제품 단일 품목으로 세계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먼 후일 언젠가 국가간의 신뢰가 상실되고 질서가 허물어졌을 때 농산물을 우리에게 수출해야 할 나라들이 그것을 무기화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컴퓨터나 비디오가 없이는 살아도 쌀이 없는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절대로 쌀개방을 거부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것이 바로 공산품 수출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정부의 딜레마이다. 자동차와 텔레비전 수출은 기를 쓰고 하면서 그 나라의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부도덕한 일이다. 이미 쌀 개방을 결사 반대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명분이 충분하지 못한 결사불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의 생존권을 확보하면서 세계적인 대세에 발을 만들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작 문제는 쌀개방을 수용하는가, 않는가가 아니라 그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해 온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농업정책의 졸속에 있다. 수출산업만을 육성했지 농수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이 없었다. 수십 년 간 방관하다가 갑자기 농산물 개방이라는 파고를 만나 허둥대는 모습이다. 경쟁력은 하루 이틀에 제고되지 않는다. 이미 낮은 감도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쌀 농사를 생산성에 상관없이 장기적인 정책 안에서 살려나가야 한다.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살'이라고 발음한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야말로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인 살肉)이다. (2003.9.20.)

##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아이엠에프 이후로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수입 감소, 실업을 상승,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등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현대 국가치고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고, 비교적 안정적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 독일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차이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예컨대 실업률이 10% 이상이 되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에 5%만 되어도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요동치는 국민들이 있다. 인도 사람들은 실업률이 2.30% 이상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불안하지 않다.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우리처럼 1.2%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신을 놓치는 게 옳고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인도 사람들처럼 그런 것에 대해 둔감한 채 어떤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옳은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자기의 인생을 어떤 숙명적인 힘에 무조건 맡겨버리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경제,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의 태도로는 아무리 바람직한 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이런 바람직한 사회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지, 과연 그런 사회가 인간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말이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똑같이 감기에 걸렸지만 갑이라는 사람은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큰일이 난 것처럼 법석을 떤다.

요즘 모두들 실업문제,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이다. 실제로 그렇게 위급한 건지 아니면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상을 부풀린 것인지 나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한 정보이긴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전문가들과 그것에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현상 앞에 놓여진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바로 나의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이해타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투쟁해야 할 핵심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른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나는 청년의 실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청년 실업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들의 문제에 속한다. 그들에게 정말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 요즘 또 한 차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외국인 노동자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 기업체는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절대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할 뿐이다. 대기업의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한 단계 낮추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더 낮추면 된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일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깨끗한 사무실에 앉아서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청년들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

물론 내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순박한 말만 지껄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그럴듯한 일자리

를 찾았는데 자기만 현장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놀고 먹으면 놀고 먹었지 먼지 뒤집어쓰고 연봉도 시원치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내 딸들이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 가능한대도 그럴듯한 직장을 구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그렇지만 경쟁 체제에서 모든 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경쟁 체제에서 살아간다면 자기가 최선으로 자기 길을 뚫을 것이며, 만약 경쟁에서 떨어졌으면 낮은 단계의 일거리를 찾으며 된다. 자기가 원하는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나 노동현장은 노동함으로써 나름대로 인간적인 삶을 펼쳐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부적합하지는 않다. 크고 작은 지엽적인 문제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시나브로 고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건강한 사람이 육체 노동이라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갈 길은 있다는 말이다. 극단적으로,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노동력이 끊겨버린 시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 된다.

요즘에는 목사의 실업률도 대단하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교라는 미명 아래 목사를 대량으로 배출한 욕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나는 목사들이 반드시 목사의 일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가능한대로 자기가 전공한 부분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 때문에 교회 조직 안에서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성직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되든지, 아파트 경비원이 되든지, 공장 노동자가 되는 것도 좋다. 신학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교회에 빌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가 목사의 일자리를 늘려 가

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괜찮은 일이지는 하다. 신학연구소나 목회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복지 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일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목사 스스로 최선의 기회가 없으면 차원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반드시 교회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늘 실업 문제가 이렇게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노동에 대한 인식의 왜곡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노동이 갖고 있는 원래의 창조적 성격이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노동이 존재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창조적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제적 대가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창조적 기쁨을 경험하면서도 경제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이 양자가 고유하게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왜곡이다. 전적으로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노동을 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가치관에 빠져 있는 한 젊은이의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이 시대에 말이다. 너무나 원칙적인 주장인지 모르지만 연봉의 차이를 현격하게 줄여나가는 길밖에 없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나 주물공장에 취업하는 젊은이나 비슷한 시간을 일하면서 비슷한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젊은이들의 실업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노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계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인가, 정의롭지 못하지만 풍요로운 사회인가. (2003년 11월)

## 소비를 강요하는 세상

정부 경제 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지난 수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몇 년 전 아이엠에프를 당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빌려온 단기 펀드의 이자를 갚을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달러를 많이 남겼다는 것은 어쨌든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경제 상황이 지난 아이엠에프 때보다 훨씬 나쁘다는 말들이 많다. 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있다는 게 핵심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우리의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과 매스컴의 보도가 옳은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현상을 부풀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이를 위한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결혼 한번 하는데 수 천만원씩 들이고 있다.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투기가 극성을 부렸고, 지금도 여전히 해외 골프 여행을 나서는 이들이 장사진을 친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지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경제 침체는 거짓말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카드회사의 부도 위험성과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 등을 보면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결국 문제는 부의 절대적 부족이기보다는 그것의 소통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돈의 흐름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훨씬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재테크의 기회로 삼게 된다. 아이엠에프 때 고금리가 실시되자 용자를 받았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깡통이 되고 여유자금이 많던 일부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은 현상과 비슷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무역수지는 괜찮았지만 내수가 침체되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늘 절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강박관념처럼 지니고 있던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60년대에 별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일단 먹거리조차 부족한 시절이었다. 아버지의 일거리가 별로 없었던 겨울철 점심은 대개 찬밥 한 그릇에 충분한 물을 넣고 끓여 여러 식구들이 훌훌 들이키듯 먹었다. 겨우 두 세끼니 만 먹을 수 있는 봉지쌀 심부름을 자주 다녔다. 그때의 겨울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다. 방안에 있는 걸레가 얼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배고프고 추울 때의 고독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안다. 공책이나 연필도 많지 않아서 얼마나 아껴가며 학교를 다녔는지 모른다. 손에 질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진 몽당연필을 붓 뚜껑 같은 것을 끼어서 사용했다. 성한 양말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은 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전기료를 아끼느라 낮은 축수의 백열등을 켜 방안은 침침했지만, 그래도 그 밑에서 매일 저녁 어머니와 나는 양말을 꿰매곤 했다. 작은 구멍이야 몇 바늘만 돌리면 되지만 약간 넓게 뚫린 구멍은 좀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다. 끊어진 백열등을 양말 안쪽으로 밀어넣어 양말의 뚫어진 부분을 드러나게 한 다음, 한 올 한 올 짜깁기하듯 꿰매야 한다. 그런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양말은 달아 없어진 부분에 다른 천을 바쳐놓고 빙 둘러가며 꿰매야 한다. 옷도 역시 거의 걸레처럼 못쓰게 될 때까지 입고 다녔다. 이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집사람에게 핀잔을 듣기도 한다. 이런 마당에 소비가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첩경인 것처럼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충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물론 그들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만큼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심정적으로만 시비를 걸지 논리적으로는 할말이 별로 없다. 승용차나 티브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자동차나 티브이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외식산업도 불경기를 맞게 되고, 극장가의 손님도 줄고, 과일도 적게 팔린다. 결국 이런 불경기가 나라 전체에 파급됨으로써 소위 경제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제 공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일정한 정도의 소비가 유지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의 경제 구조는 군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병원의 응급실처럼 응급 처치에 젖어왔다. 지난 시절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고, 최근에는 카드 남발로 내수가 활성화되었다. 전체 나라 살림의 크기가 별 볼 일 때는 이런 응급 처리가 유효 적절하게 먹혔지만 이제 세계 경제권에서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커진 마당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건뎌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풀어가기에는 우리의 경제구조가 지나칠 정도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요소들과 맞물려 있다. 한쪽 길이 막히면 그 여파가 전체 도시에 파급되는 도시의 교통환경과 비슷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도 역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소비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어느 정도로 소비하고 사는 게 적절한 수준일까? 소비 문제가 말로 개인적인 주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양복 한 벌이면 충분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2,3년에 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외식을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두 세달에 한번의 외식으로 만족한다. 그렇다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책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길이 모색되지 않는 한 돈을 별로 쓰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그야말로 거품 경제 현상에 빠지게 된다. 예컨대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무이자 융자를 전액 제공한다고 하자. 아마 당장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차를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맞게 되고, 덩달아서 다른 산업도 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흡사 맹장 환자에게 진통제만 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빚게 된다. 얼마가지 않아 이 환자는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만다.

결국 오늘의 경제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소비가 얼어붙어도 문제이고 과소비도 역시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에다 무조건 맡길 수도 없고, 관치(官治)로도 완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에 젖어들어 끝없는 욕망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악순환의 길이 곧 소유지향적인 현대인의 삶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길이다. 물론 경제 선진국은 나름대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자신들의 것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이 세계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공동체(글로벌 커뮤니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기회를 잃기 전에 우리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는 소유의 부족에 있지 않고 지나친 경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소유와 경쟁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생명과 존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 전이를 가장 역동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은 우선 종교다. 특히 예수의 부활로 선취된 종말론적인 구원과 생명에서 자기를 해명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오늘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일 말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2003년 12월)



## 대통령 탄핵 사태 독법

오늘(3월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기서 나는 이 탄핵 소추안의 부당성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헌법 전문가도 아닌 내가 말해봤자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 단체와 대학의 공법학자들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마디 첨가한다면 임기가 겨우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4년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을, 그것도 국민의 60 %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까지 탄핵할 이유와 정당성을 나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소위 '차떼기'로 불법 대선자금을 챙기고, 온갖 불법 행위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말이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국민을 생각했다면 대통령의 실정을 총선 이슈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순리였다.

거대 야당은 결국 대통령을 일단 식물 인간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공은 아니었다. 오히려 역공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미 오늘 저녁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국민들이 오늘의 사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탄핵소추가 실제로 가결되기 전에는 60%였는데, 실제로 발생한 다음에는 10% 이상의 사람들이 야당의 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열린 우리당 지지도 역시 10% 이상 급상승해서 30%에 이른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14%, 민주당은 5%였다(KBS 라디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던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탄핵소추 가결 반대로 돌아섰다. 내일부터 광화문에서 반대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아마 총선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다음에 나는 이런 모든 정세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복안대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이 노 대통령에게는 '일석 삼조'의 기회가 될 것이며, 아마 본인 자신이 이를 내다보았을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었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결시켰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이 던진 미끼를 야당이 덥석 물은 모양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이 결국 최종 실효(實效)를 가지려면 헌법 재판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9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만 이 소추안이 실효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들이 국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민심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 전문가들 대부분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길어야 4,5개월 이후에 소추안이 폐기되면 노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태가 과연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당연히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일단 민심은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민심은 한 달 이후에 있게 된 총선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야당은 앞으로 노 대통령이 잘 한다거나 못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을 공격해봐야 자기들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기껏해야 30%, 어느 대는 2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그대로 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야당은 이를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또한 열린 우리당은 대통령의 30% 지지도라는 약점을 안고 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더구

나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사회혼란이 야기되더라도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조금 더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한다면 이렇다. 현재 우리의 정세는 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극한 대립 가운데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는 우리당에게 약간 쏠려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을 완전히 제압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노무현은 개혁 세력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을 개혁과 보수의 양자대결로 몰아간 것이다. 박빙의 승부처에서 10%로의 세력을 새롭게 얻어낼 수 있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하다. 혼미한 정세를 분명한 구도로 재편함으로써 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힘을 결집시키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질질 끌고 왔던 '재신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을 파기시킨다면 아무도 이 재신임 문제를 걸고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민주당의 행태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온 민주당은 이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전라도 사람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90% 이상 지지했다.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이들이 노무현을 포기할 까닭이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이루어진 이번 사태를 전라도 사람들은 도저히 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입지는 전라도에서 사라졌다. 민주당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왜 내다보지 못할까?

한나라당으로서는 크게 민질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른

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역시 마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무현 측의 불법자금이 이회창 측에 비해서 10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라는 점에서 분노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 소추안이 일정한 기능을 하기는 할 것 같다. 그러나 무조건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단결시켜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큰 착각이다. 말뚝만 박아놓아도 한나라 후보가 당선되는 대구, 경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전멸한다면 이제 한나라당은 자민련 꼴이 나고 말 것이다.

내가 이렇게 노무현의 입장만 두둔하고 야당은 비판만 하는 것 같지만 야당이 해도해도 너무 '못한다'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좀 거칠게 표현한 것뿐이다. 노 대통령의 실정을 잘 파고들어서 정책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무식(?)하게 힘으로 몰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침몰하는 거함 한나라당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있는, 지역감정에 기대고 있는 한 정당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미 20세기 안에 정리되었어야 할 권위주의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런 역사적 흐름을 담담히 받아들 수밖에.

그러면 노무현은 다 잘했는가? 그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비론이 우리에게 적당한 시야를 갖게 하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의 잘못과 한계는 그것대로 다루어야지 야당의 이런 폭거와 비교하면서 '대통령 너도 잘못했으니, 한발씩 물러나라' 하면 역사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 노무현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큰 줄기에서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은 매우 두시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명실



상부하계 개혁세력이, 비록 그들이 모든 점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대를 걸어봄직한 이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출선해서 일하겠는가 하는 점은 차후에 따져볼 일이고, 현재는 그들에게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게 급선무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흘러가는 역사를 지켜보자. (2004.3.12.)

## 민주 노동당의 국회 진출

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의원 2명, 비례의원 8명, 합계 10명의 의원을 탄생시킴으로써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확인해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이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맥이 끊어진 이후 40 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남한 사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태는 우리의 정서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부분도 작용했겠지만, 북한과의 분단상황이라는 부분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날 우리에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거의 마녀의 저주처럼 작용함으로써 진보정당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한치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의 동일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상처가 큰 전쟁을 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 일부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다. 특히 해방 이후 모든 사회 부분에서 안정된 체제를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헤쳐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만한 여력을 보일 수 없었다. 이는 흡사 가나안 정복운동에 나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원주민들을 말살하는 데 일말의 사정도 허락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하다. 남녀노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생존 투쟁에서는 윤리가 개입할 틈이 없다는 점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적자생존의 메커니즘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고, 단지 인류가 걸어온 길을, 아니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정치가들이 분단체제를 정치적으로 악

용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고착화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군사 독재자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민심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조짐을 보이면 없는 간첩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위기 의식을 심어주고, 그런 와중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이 그 단적이 예이다. 전두환 일당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항쟁을 간첩들의 사주를 받는 폭동으로 매도한 것도 역시 그렇다. 그 이외에도 자칭 보수 정치인이라는 정 아무개, 김 아무개 같은 의원이나, 월간조선 편집장 조 아무개 같은 사람들은 특하면 '색깔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일이 과거 군사독재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국가적 불행이다. 월간조선의 조 편집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현재에서 가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념에 기울어진 사람을 남한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대명천지의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

이념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지만 분단체제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직 공산주의 자체를 합법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거나 노동과 평등이라는 말만해도 색깔 공격을 가하는 행태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는 애국을 좀먹는 일이다. 우선 이런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싸늘이 한 대구 경북 사람들 중에는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도 빨간물이 상당히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은 북한과 미국을 같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열을 올린다.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정치인들과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유권자 사이에 한쪽에는 정치권력이라는 먹이로, 다른 한쪽에는 정신적 만족감이라는 먹이로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고한 틀로 자리를 잡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파생하는 훨씬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민족적인 차원에 있다. 1990년 어간에 현실 사회주의가 해체된 이후 등장하게 된 폐쇄적 민족주의가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아니지만 역사의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일단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런 민족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당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장 김정일 주석이 남한을 통째로 공산화할지도 모른다는 공연한, 또는 비장한 공포감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한 남한과 북한이 민족의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예컨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숙제는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전제되는 일이다. 노 대통령이 제시했듯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고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권의 핵심 국가로 자리 매김하려면 우리는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미 개성 공단에 입주할 남한 기업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런 경제 교류가 훨씬 왕성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쌀이나 비료를 보내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전기도 보내야 한다.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고, 핵 문제를 미국과 공조해서 지나치게 시비를 걸고, 더구나 그들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남북한은 적대감만 쌓일 뿐이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점진적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번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은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바꿔놓기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이제 더 이상 현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일이 무색해졌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보

수 정치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앞에 두고 색깔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보기에라도 노 대통령의 생각은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현실주의이며, 열린우리당은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개혁적일 뿐이다. 그나마 이런 분들은 이렇게 숨통이 막히는 우리 남한의 역사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을 해낼 것으로 보고 기대를 걸어들 만 한다.

오늘 이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그 정당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과의 협력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인해낼 만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라크 파병 문제만 하더라도 국가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차원에서 노 정권이 파병을 선택하는 국면에서 진보 정당인 민노당이 강하게 태클을 걸게 되면 노 정권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넓어진다. 노동문제도 역시 노동자를 정파적으로 지원하는 민노당의 입김은 곧 노 정권이 훨씬 유연하게 기업가를 상대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민노당이 자신의 정치 철학에 얼마나 투철하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무조건 원칙과 구호로도 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칙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까지 생각해야하는 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즉 '부유세'를 신설해서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민노당의 정책이 어떤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민노당의 국회진출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적 역량이 훨씬 넓어지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좌에서 중도를 거쳐 우까지, 여러 이념의 정당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대가 주어진 셈이다. 공연한 색깔논쟁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다. 모쪼록 민노당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우연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앞으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4년 4월17일)

법이란 무엇인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을 보며-

오늘(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해서 권한이 정지된 이후 63일 만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두 달 전의 노무현과 지금의 노무현 사이에 놓인 정치적 환경은 엄청나게 다르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 열린 우리당을 통해서 입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통령 선거 이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집단의 발목잡기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나라를 잘 끌여가는데 일만 남았다. 비록 이라크 파병, 국제적 경제 환경의 악화, 북핵, 계층의 위계감, 교육과 복지 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첩첩이 쌓여있지만 이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항심을 유지한 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 나라의 현대사에서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쨌든지 참으로 어수선했던 지난 일년 여의 시간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고 자위하면서, 이런 전진을 위한 최소한의 계기가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헌재가 내린 판결의 내용은 간단히 다음과 같다. 탄핵 소추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인 측근 비리 문제와 세 번째인 경제파탄 문제는 아예 탄핵 소추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반면에, 첫 번째인 선거법 문제는 위법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것이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답인 셈이다. 아홉 명의 위원 중에서 소수 의견을 개진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런 낙양스만 주는 것으로 판결을 끝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한 실정이다. 나는 이런 법리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생각이 없지만 이런 간단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만은 좀 지적해야겠다. 물론 역설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든 완전히 밀진 장사는 아니었다. 그 어떤 제도 개혁을 통해서든 쉽지 않았던 정치권의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기득권 층을 대변하느라 보수 일변도였던 한나라당까지도 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으며,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적 공부를 했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뻔히 아는 문제를 다시 복습한 것에 불과하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 지출을 한 셈이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상식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지난 두 달 동안 법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이다.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 측의 내노라하는 법전문가들과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아홉 명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근엄한 포즈를 취하며 씨름한 결과가 겨우 촌부들도 알고 있는 해결책이라는 말인가? 아, 법과 논리의 허무함이며! 소추 위원들이야 당사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법적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가운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송사와 평의를 이끌어가던 그 현재의 아홉 분들마저 법실증주의에 묶여서 너무나 멀고 먼 길을 돌아서 해답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경우와 비슷하다. 벌거벗은 사태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왜곡하거나 또는 자신의 전문적인 개념에 끌어들여 역지로 해석하려다가 언어의



유희에 빠지거나, 아니면 '벌거벗었네!'라는 어린아이의 직관적 대답으로 결국 다시 돌아오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일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나라의 최고 학식과 덕망을 지닌 현재 위원들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탄핵의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너무나 간단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사태를 정확하게 직관할 수 없게 만든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하나는 매우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현재는 소추위촉과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현재의 범주 안으로 끌어 들여야만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를 선두로, 직접 탄핵 소추안을 이끌어낸 19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만약 그런 좌고우면이 없었다면 그들의 고민을 이해할 길이 없다.

다른 하나는 순전히 법적인 문제로서, 즉 일종의 직업의식으로서 현재 재판관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 담론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모든 재판의 판결문이 그렇지만 이번 판결문도 역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이 전문적인 개념으로 해명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모든 전문가들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한계인데, 즉 자신들에게 각인된 어떤 사유의 틀이 사물과 사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게 함으로써 결국 공소성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다. 현재는 이번 사안이 옳은가 그른가의 차원, 즉 임금님이 벌거벗었는가 아닌가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공연한 법리 논쟁을 오랫동안 펼친 것이다. 물론 오늘의 법치국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과정을 보면서 현대사회가 일종의 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권도 늘 법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유신헌법도 역시 법이었고, 간첩혐의를 씌어 사형시키는 일도 역시 법이었다. 자식들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재벌들의 반사회적 행위도 역시 교묘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안식일)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율법에 생명을 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지되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무늬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비합리적, 반생명적, 반인간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한 가지 문제만 지적하려고 한다.

법은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바르게 해석되는 경우에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의 경우에 만약 헌재 위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단지 국회의 소추안 가결의 합법성 여부에만 한정시킨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선거법 위반만으로도 탄핵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결국 법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된다. 마음이 바른 사람, 생명의 심연을 들여다볼 줄 알고, 벌거벗은 임금을 직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법은 바르게 사용된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법은 칼이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이다. 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칼의 기능을 축소시켜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헌재의 행동이 법 자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법이 봉사해야 할 이 사회의 정의에 초점을 두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평생 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 즉 우리 모두가 두 달 전

에 이미 알고 있던 대답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웃어야 할지, 수고했다고 격려를 드려야할지 좀더 생각해봐야겠다. (2004.5.14.)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사회적 이슈로 잠시 부각되었다가, 지난 5월 21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두 사람에게 대해 재판부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깨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다시 논쟁의 불길이 지펴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문제에는 우리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약간 찝찝하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면 교회 밖으로부터 종교적 갈등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거꾸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면 교회 안에서 이단과 영합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남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주 간단히 종교의 자유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들 여호와의 증인을 비판하기도 하고, 국가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양심이 우선이라는 점을 내세워 옹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 종교, 또는 국가와 양심의 관계를 이렇게 규범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국가라는 체제도 결국 역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절대화할 수 없다. 거꾸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또한 종교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 진리로 작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모든 기존의 국가와 문화와 역사의 틀을 부정하고 훨씬 높은 영적 가치를 추구한다던 수많은 소종파가 실제로는 인간을 파괴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이런 이념들의 충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지, 일반적 잣대로 접근하면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

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상황은 분단체제이다.

해방 이후 거의 60년에 가까운 분단체제 안에서 살아온 덕분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군복무 문제가 거의 절대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공익 업무로 군복무를 대체해달라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상당 부분이 군대에서의 체험이라는, 약간 특이한 이런 현상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종교적 주장은 공감(共感)을 얻기보다는 공분(共憤)을 얻기에 안성맞춤이다. 물론 공론화의 계기로 들어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들이 사회 일각에서 있기는 하지만 대세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마 남북통일의 기운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하게 가시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감옥에 가는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만 할까?

한국 기독교는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일반적 논점이나 더 나아가 종파 이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진보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보수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입장이 다른데, 이번 문제에서만은 주로 한기총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한기총이 반대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적 안보불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병역기피 확산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보다는 병역거부를 명시화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이번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보이고 있는 병역거부 태도가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나왔다고보다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충실해야겠다는 신앙적 결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기총의 이런 비판은 일단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 자체가 이미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신학적 반성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 3

자인 우리로서 그게 양심이니, 교리이니 시비를 걸 일은 아니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보수적 입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로 집중된다. 하나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화함으로써 군사력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염려를 실제로 한다. 비록 일부분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과 동맹관계에 있는 남한의 군사력이 소수의 양심적 거부자들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손상을 입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이것을 기회로 도발할지 모른다는 염려는 쓸데없는 노파심에 불과하다. 국가의 군사력 문제는 내가 판단할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다만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 현상의 이유만은 몇 마디 지적해야겠다.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데에 힘을 쏟는다. 나는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김일성, 반김정일, 반공 등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대형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북한 정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월남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와 이들 목회자들 사이에 원초적 악연이 있다는 말이다. 좀더 신앙적인 이유를 든다면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의 무신론이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북한 집단을 향한 이들의 분노와 적개심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국가 안보를 약간이라고 해칠 지도 모를 개연성에 대해 전투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한기총의 반대 주장에 들어있는 훨씬 깊은 속내는 이번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선교적 이득이 돌아갈지 모른다는 염려일 것이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됨으로써 병역 거부가 합법화된다면 당연히 선교의 장이 넓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오늘

의 현실에서 보면 이 문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크게 키워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각설하고,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해서 대체 복무에 대해 기독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코멘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지해야 할 이유는 이미 사회 안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잘 알려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경구를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력과 억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한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토대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축자적 해석에 머물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지향성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지지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노코멘트'가 훨씬 기독교인답다. 비록 총과 칼이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큰 폭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작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군대에 간다. 흡사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롬 13장)이 무질서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신앙적 피해보다는 악한 질서라도 있는 게 낫다는 의미와 같다 하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비폭력이어야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반(反)폭력을 선택했다면 비폭력을 현실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는 게 바른 태도라고 본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아직도 궁극적인 것을 이 현실 세계 안에서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 우리가 앞장서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럴 때는 입 다무는 게 본전이다. (2004.6.30.).

## 국가보안법

지난 7월24일 밤 ‘국가 보안법’(이하 ‘보안법’)을 다루는 토론회가 KBS 제2 채널에서 방송되었다. 아마 며칠 전 송두율 교수가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했고 여당을 중심으로 보안법 철폐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룬 것 같다. 폐기하자는 쪽의 패널로는 열린우리당의 여성 국회의원과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과 변호사 한 분이, 그리고 폐기 반대쪽의 패널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재향군인회에서 나온 대표와 변호사 한 분이였다.

각각의 주장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뻔한 것들이였다. 특히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너무나 공색했다. 한나라당에서 나온 국회의원은 지난날 수구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만 무늬만 그렇지 실제로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보안법 폐기는 안 되지만 개정은 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보안법을 일단 폐기하고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두 가지 항목을 형법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한 마디로 ‘안 된다’였다. 나는 여기서 이념적인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지난날처럼 드러내놓고 반인권적 입장을 보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상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진보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없는, 몹시 어정쩡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논란을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만 짚는 게 좋은 듯 하다.

보안법 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분명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수 없다는 게 요점이었다. 여기서 나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에 관한 문제를 조목 별로 열거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들의 체



제가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존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게 될 국가 간 경쟁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 등등, 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집단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보안법 같은 비정상적인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자.

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실제로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들의 정권 유지에 있었다. 정권 반대가 곧 친북 행위로 처벌된 사례를 우리는 무수하게 경험했지만, 이런 불행은 군사 독재 시절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었다 치고 넘어가기로 하자. 그런데 그런 시절에 입법된 보안법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게 아니라면 우리의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에서 그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불안을 내가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를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분단체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질문해보자.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혼란을 야기할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대답의 연원을 찾아 올라가면 6.25 전쟁에 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모두 초토화한 경험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나 상호간의 간첩 활동으로 인해서 서로 적대감이 상승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36년 간이나 식민통치한 일본과도 오래 전에 국교 정상화한 마당에, 북한은 아직까지 수교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을 상종 못할 집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레드 콤플렉스'가 바로 그것이다. 수십 년 간 북한과 공산당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교육과 사회체제를 유지하다보니깐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지배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훼손시켰다는 말이다.

북한을 불량 국가로 생각하는 미국과 우리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우리가 통일을 이룸으로써 획득하게 될 그 미래의 희망에 비해 훨씬 미미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의 중요한 잣대이다. 내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할 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도 그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전쟁 수행 능력에서 볼 때 남한에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남한의 물적 토대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단시간에 전쟁을 끝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난 6.25 당시처럼 북한을 돕겠는가, 러시아가 그렇게 하겠는가? 현재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핵을 벼랑끝 전술로 삼아 생존을 담보해내려는 그 안간힘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않은가?

내가 보기에 생존에 급급한 북한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이유는 매우 불순하다. 미국의 군수업체가 자기네 대통령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듯이,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듯이 우리 안에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6.25 경험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지난 세대는 접어두고, 이런 저런 정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거기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말이다. 그런 분석이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시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문제가 우리에게 전혀 위협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요소는 북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을 직접 공격하게 되는 경우에 북한은

‘나 죽고 너 죽자’는 생각으로 남한 전역과 일본까지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는 날에는 남한과 일본의 핵발전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역시 독도 문제로 우리와 시비를 붙을 수 있고, 중국도 고구려 역사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슨 뜻이나 하면, 국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가능성에 불과한 북한과의 관계를 공연히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는 뜻이다.

비록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지금 당장 보안법을 폐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정하면서 북한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모색해나가자는 주장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역사를 기다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견인해나가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어떤 선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이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잡한 이념적 갈등은 지나치게 과격한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변화마저도 과격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의 과거 역사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남한을 병영(兵營)국가로 다루었던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이다.

비록 북한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통일 한국을 향해서 거침돌이 되었던 것들을 지워 제거하듯이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보안법이라면 아무 두려움 없이 폐기하자. 거의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던, 그리고 이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보안법을 그대로 부동켜안고 가려는 것은 강을 건넌 나그네가 배를 등에 지고 길을 가려는 모습과 비슷하다. (2004.8.8.)

## 국가보안법과 안식일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에 계시는 어른들이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고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칼집에 집어넣어 박물관으로 보낼 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후에 시민 단체, 학계, 정치, 혹은 종교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자기주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극한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수 단체에서 보이는 태도가 심상치 않다. 1500명(?)에 이르는 보수 원로들께서 국가보안법 철폐 절대반대 집회를 열었고, 한나라당은 당대표가 배수의 진을 치고 국보법을 수호하겠다는 비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보수적 종교 집단, 특히 기독교 계통의 보수(반동) 집단의 대대적인 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순진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괄호로 묶어 사용한 ‘반동’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야겠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낮추어 부르는 ‘빨갱이들’이 ‘반동분자’라는 말을 자주 썼기 때문에 ‘반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무언가 이념적 색깔이 묻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반동(反動)은 말 그대로 변화를 반대하는 태도를 뜻한다. 부의 양극화, 가난의 대물림, 또는 교회 성장지향주의 및 담임목사의 세습 같은 현상을 변혁하기보다는 그런 변혁을 반대하는 태도 말이다. 이는 곧 ‘현상유지’(status quo)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반동이 아니라 격동(激動)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프로테스탄트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 반동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태도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전통을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이 옳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과 변화와 격동은 인간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밀어내고 풍요롭게 살리는 힘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인간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수님 당시의 안식일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모든 갈등의 중심에 이 안식일 문제가 들어있었다.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들의 우두머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는 분명하게 범법자였다. 그들이 예수에게 제기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우리 모두 바라는 바다. 그러나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 참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치료해라. 그러면 당신의 치료 행위도 인정받고 안식일 법도 유지된다. 이들의 논리는 내가 볼 때도 정당했다. 겁 많고 현실 타협적인 나 같은 인간이라고 했다면 아마 그들의 요구를 못이기는 척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굳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환자의 병을 고쳤다. 예수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제삼자가 양측의 주장을 판단한다면 바리새인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주장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반면에 예수의 주장은 과격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렇듯 어떤 집단이나 어떤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생각은 물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뜻이지만, 밀고 나감으로써 결국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다.

예수는 왜 자기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일까? 바리새인들에게 설득당하는 게 기분 나빴기 때문도 아니고, 관용정신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정신 분석가는 예수의 무의식을 이러쿵저러쿵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예수가 오직 한 가지의 절대적인 세계에 철저히 의존해 있었다는 사실만이 거의 자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의 결단과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예수가 또 하나의 다른 기준을 강요하는 바리새인들과 적당하게 타협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는 생명의 절대성을 상대화하고 대신 안식일 법을 절대시하는 율법체제

를 예수는 근본적으로 혁파하셨다. 그 율법체계를 실제적인 삶에서 실현하던 바리새인들의 최고 법정이 곧 산헤드린이었다.

누가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체포당하신 예수는 그 당시 사법권을 행사하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장을 받기 전에 유대의 산헤드린 의원들에 의해서 먼저 재판을 받았다. 사형 판결의 권한이 없었던 이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 결국 십자가형의 선고를 얻어낸다. 유대의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대표 71명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유대의 최고의 종교 및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은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유대 하이라키의 정점에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형 선고에 개입하게 된 단초는 바로 안식일 논쟁에 있었다.

나는 여기서 안식일에 관련된 많은 성서적, 신학적 논의를 전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안식일을 놓고 율법 전문집단인 산헤드린과 예수 사이에 벌어진 논란의 핵심만 간략하게 다루겠다. 원래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안식일이라는 법, 또는 그런 제도는 명목상 하나님의 창조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기린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의 실질적 의미는 고강도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된 안식일 법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은 인간을 규제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버렸다. 이런 속성을 꿰뚫어보신 예수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병자를 치료하면 예수의 뜻도 관철되고 바리새인들의 체면도 살린다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배척하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래디칼리스트다.

오늘 국가보안법에 얽힌 형편은 예수 당시의 안식일 논쟁과 썩 빼 닮았다. 보수반동에 속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당하게 손질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약간 개혁적인 사람들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미진한 부분을 형사법에 보충하거나 대체법을 만들자고 하며,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른 조치 없이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노 대통령은 진보적인 색깔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가 단서 없이 철폐를 주장했다는 것은 좀 의외이다. 본인의 소신인지, 정략적인 것인지 나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지만 일단 바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국보법을 안식일 법에 대입시켜보면 이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답은 어렵지 않게 주어질 것이다. 안식일을 피해서 장애인을 고치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예수의 근본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굳인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을 치료했다는 사실에서 판단한다면 국보법을 적당하게 손질해서 쓰자는 일반 대중의 의견은 설 자리가 없다. 더구나 국보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촉발된 갈등을 건디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부추긴 산헤드린 법정외 태도와 똑같기 때문에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는 ‘시기’에 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인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는 마당에 국보법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폐기할 시기는 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는 지난 <말씀과 삶> 8월호에서 내 생각을 포괄적으로 전달했으니까 여기서는 줄이기로 하자. 다만 예수는 안식일 문제가 무의미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거나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두자.

어떤 사람은 국보법이 폐기되면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 것을 노파심이라고 한다. 안식일과 예루살렘 성전 및 제사를 모두 포기한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보법 없는 대한민국도 평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혼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국보법 수호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국가의 안보보다는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현재의 국보법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 내지는 죄책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또는 지난 50년 이상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세뇌된 민중들의 ‘레드 콤플렉스’의 발현일 수도 있다. 이런 갈등이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4.9.14)



## 기도회 남발

10월2일 케이비에스 티브방송국에서는 <선교 120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를 방영했다. 한기총에 속한 일부 교회와 신자들이 그에 앞서 며칠 동안 방송국 앞에서 데모를 했다. 데모인지, 기도회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방영을 앞두고 압력을 넣는 행위였다. 그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왜 그런 모임을 할까? 방송국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 중에서 부정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교회의 일방적인 반응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방송과 그에 대한 한기총의 반응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종교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지, 상당히 추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메스컴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대응해야지 무조건 기독교를 폄박한다는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기독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할 말 다 하면서 수난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케이비에스의 방송을 나도 직접 시청했는데, 피디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끌어갔다. 아무것도 아닌, 거의 심심풀이 땅콩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을 두고 신자들을 동원해서 방송 반대 기도회를 연 한기총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 하는 집단인가? 그들이 특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왜 이렇게 기도회를 남발하는가?

오늘(10월4일) 오후 4시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경찰 추산 10만명 이상이 모여서 또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고 한다. 한기총과 보수 시민단체가 모여서 반정부 시위와 같은 집회를 열었다. 보수시민단체의 공식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의 기도회가 오픈 행사처럼 열렸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등장하셨다고 하는데, 왜 기독

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걸까? 군사독재 시절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분들이, 아니 군사독재자들을 위해서 조찬기도회를 열던 분들이 이제는 왜 저렇게 말씀들이 많은 걸까?

오늘 나는 기분이 좀 우울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가까운 친구 목사가 인천지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에 송별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에 참가한 목사들이 한결같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비판 일색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위원은 노무현 정부에게 색깔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가관이다. 색깔은 무슨 색깔을 밝히는가? 김대중의 눈에는 모든 인간과 역사의 문제를 그렇게 색깔로만 재단하는가? 그는 노무현의 색깔을 모르겠다고 한다. 좌파라고 떳떳이 나서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좌파인가? 그는 경우에 따라서 우파이고 경우에 따라서 좌파이다. 아니 우파, 좌파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을 선택할 뿐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인 실용주의자이다. 대한민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되 가능하면 진보적으로 가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인사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왜 사람에게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가? 지금 이 세상에는 좌파 정부는 없다. 중국마저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좌파를 선택할 정부는 없다. 이제는 국가 이익에 최선을 다할 뿐 이데올로기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논설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색깔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오늘 한기총의 모임에서도 사립학교법 반대, 국보법 반대가 핵심 주제였다고 한다. 수도 이전 반대도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부시가 메시아다. 내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친인척들이 노무현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별때같이 달려들고 있다. 왜 그럴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상고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퍼스트레이디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탓인가?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는 걸까?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발언을 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꼬리를 잡는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에 있을까? 언어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이 말이 나온 현장을 놓치고 단지 그 말 자체만으로 신중하지 못하다느니, 대통령 체통이 서지 않는다고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아니면 경직되었다는 증거다.

내일 나는 기장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설교에 관한 특강을 두 편 해야한다. 오늘 공연히 흥분하다가 내일 특강 망치지 말아야겠다. 지난 주말에 며칠에 걸친 방송국 앞 기도회, 오늘 보수 단체와 연합해서 개최한 기도회 때문에 마음이 영 개운치 않다. 이런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신학>이다. 종교를 빙자한 정치행위이다. 국보법 반대를 주제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무엇가? 인권을 침해하는 국보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라면 그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안보를 명분으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만 하자. 여호와와의증인에 속한 사람들이 대체군복무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에 나서서 재를 뿌리는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역사와 존재의 신비는 사라지고 오직 도그마와 규범만 득세하고 있는 오늘의 이 기독교 현상 앞에서 나는 참으로 비통하다. 생명의 영인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반공을 기독교와 하나로 생각하는 그들과 내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나는 좌절한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자기의 길을 계속 간다면 멀지 않아 이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교회에 남아 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진리에 빛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리에 의해서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속도를 내가 답답해하고 있으며 그 은폐성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키리에 엘레이송! (2004.10.5.)

## 교회 직장 폐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워커힐이 있는 아차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천호동에 살았던 탓에 장로회신학대학교에 들어가려다가 출신 교회가 성결교회인 관계로 서울신학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아차산 밑에 한강이 흐르고 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광나루'입니다. 지금은 그 근처에 몇 개의 다리가 놓였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광나루 다리 하나였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그 광나루 다리에 얹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광나루 다리 서편으로 천호대교가 있는데, 이 천호대교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돌면 돌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당이 보입니다. 광성교회입니다. 아마 저의 오랜 기억이 맞는다면 어느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인데, 모교회보다 훨씬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뒤로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최근에 '직장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좀 우습지요. 교회가 직장 폐쇄를 하다니 말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수난받던 초대교회나, 혹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마호메트 군대에 의해서 침략당한 시대, 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볼셰비키 혁명으로 교회가 핍박당하던 러시아,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수난받던 시대, 기독교 신자가 급격히 줄어 교회당을 유지할 수 없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영국 같은 나라 이외에 기독교 역사에서 스스로 직장 폐쇄를 결정한 교회는 전무후무합니다.

말도 좀 사납습니다. 직장폐쇄! 그 전후 사정을 여기서 일일이 되풀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짧게 끊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로 목사라 담임 목사 사이에 무슨 일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원로 목사 편에 기울어 있던 부목사 10명이 기독교 목회자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자

신들에게 불이익이 떨어지자 그들은 교회당 앞마당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성을 막기 위해서 담임 목사 쪽이 직장 폐쇄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잘하고 못했는가에 관한 판단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할 말은 산처럼 많겠지요. 또는 양쪽 중에서 더 잘못된 쪽이 있을 수도 있고, 양쪽이 모두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감정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그런 정도로 악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쪽이 물러나서 다른 길을 택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늘 하듯이 교회를 분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분리가 능사는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만큼은 끝까지 투쟁해야 할 때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농성이나 직장 폐쇄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진리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판단을 글로 출판하고 강연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나름으로 자기 개혁의 길을 걸었고, 개신교회라는 독특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광성교회가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많은 문제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교회를 키워온 원로 목사의 열정이 지나쳤을 수도 있고, 원로 목사의 힘을 단숨에 제거하고 자기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담임 목사의 욕망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과 욕망이 증폭되어 이런 막장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성교회 신자들 자체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큰 교회라는 이름 밑에서 안주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광성교회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울타리

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현상 자체를 내가 탓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교회라는 그 소속감이 한국교회를 비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대개 교회에 열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목사들은 이렇게 ‘막나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농성, 직장 폐쇄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미 교회의 본질에 크게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이비 종파의 행태와 다를 게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교인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 모두를 척결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들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전히 힘겨루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광성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만약 이번 일도 광성교회 신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로 나간다면, 더 바람직한 것은 그 교인들이 작은 교회로 옮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손해될 것이 없는데, 그제야 이번 일을 일으킨 분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예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간혹 우리는 어느 교회 몇 대에 걸친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일이지는 합니다. 한 교회에 할머니, 어머니, 딸, 손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다닌다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자랑할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양극화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구’제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사는데도 서울에 있는 여의도순복음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주는 정신적 안정감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은 다른 것보다는 개교회주의가 느슨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기를 찾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폭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이익집단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데도 끔찍하지 않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번 광성교회와 같은 사태는 자주 반복될 것이며, 그 와중에, 좀 속되게 표현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순진한 신자들과 작은 교회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숨어서 일어납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숨은 기도와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2005.1.21.)

지을 스님 사태 앞에서!

### 지울의 문제제기

나이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체격도 별로이신 비구니께서 100일 이상 물과 소금으로만 견디셨다는 이 끔찍한 사태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사실 무슨 말이 가능하며, 필요하겠는가? 그냥 그런 일이 바로 내 눈 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지 그것에 대한 무슨 분석이나 격려나 분발을 촉구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아무리 말의 범주를 넘을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통해서 피안과 차안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들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궁색한 입장에서라도 무언가 말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 말의 유희가 아니라 말의 힘에 사로잡히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서 지울 스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을 결행한 저간의 형편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할 생각은 없다. 대충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이고, 어쨌면 그런 것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에 주파한다는 꿈의 고속철이 경남 어느 지역인가에 있는 천성산을 관통한다고 한다. 천성산 어느 비구니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울 스님은 현재 진행 중인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불거진 건 아니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고속철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대구에서 부산까지의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소위 도롱뇽 고발 사건'으로 불리는 재판도 열렸고,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 안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몇 번의 공사 중단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터널 공사가 재개되면서 지울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환경을 다칠 수밖에 없는 고속철에 대한 논의는 좀 복잡하다. 이미 기술 문명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은 끝없이 편리하고 풍요롭고 쾌적



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속철 도입을 막을 도리는 없다. 어쩌면 앞으로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북경과 모스크바, 더 나아가 베를린과 로마까지 이르는 대륙간 고속철의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해저 터널을 뚫는 날도 올 것이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속철을 통해서 서울과 부산의 물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지방과 서울의 공간적 거리가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면 이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고속철 시대가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전개된다는 보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막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존의 철로 외에 또 다른 철로를 놓기 위해서 훼손되어야 할 자연환경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해낼 수 없다. 더구나 고속철에서 나오는 훨씬 높은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야생동물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은 두말할 것 없이 심각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속철에 들어갈 비용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한다면 고속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끝이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수학적인 계산으로 답이 나올 대상이 아니다.

지울 스님과 환경단체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내심으로는 고속철 자체를 반대하겠지만 이런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은 환경영향 평가를 보다 신중하게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위가 보장되는 민관 합동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울 스님이 단식을 시작할 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안을 정부가 내놓았고 지울 스님 쪽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다. 다행인지 미봉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목숨을 건 이유

그런데 사실 ‘환경영향 평가’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신뢰할만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자연의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언어도단이다. 이걸 긍정적인 쪽이든지 부정적인 쪽이든지 우리의 예측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자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화호가 저렇게 썩어버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는가. 반면에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가 쓰레기 반입 중단 몇 년 후에 저렇게 생태적으로 복원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자연에까지 갈 것도 없이 인간이 설계하고 있는 ‘교통영향 평가’도 역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겠지만 모든 대형공사를 단지 학술적인 ‘환경영향 평가’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간 현학적이거나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환경과 생태 문제는 우리가 범주화하거나 도구화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저러나 지울 스님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에 생명을 거셨는가? 아타(我他)의 구별이 없는 유기론적 만유일체론에 의해서 세계와 생명을 바라보는 스님의 눈에, 그것도 생명을 직접 자기 몸에서 키우는 여성의 눈에 고속철로 인해서 벌어질 반생명적 현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가왔기 때문인가. 이런 본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다루는 관료들의 무신경이 한 비구니의 자학적인 투쟁을 불러온 것인가. 만약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받아들일 일이지 죽음일보 직전에 가서야 들어줄 건 무언가? 정부는 이번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셈이다.

다시 묻는다. 지울 스님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에 생명을 거셨는가? 나는 이렇게 질문만 할 뿐이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기껏해야 이런 정도 이상으로 더 나갈 수 없다. 지울 스님에게는 천성산과 자기가

일체라는 깨달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도 좀 부끄럽다. 생명을 건 한 인간의 투쟁을 이렇게 단순한 논리나 분석으로 사유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게 우습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만약 이번엔 민관 공동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사 불가로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공사 가능으로 나온다면 지울 스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까? 이번 사태는 내가 이런 데까지 꼬치꼬치 캐고 묻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서 대신 질문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공사 가능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울 스님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녀는 ‘신의 아그네스’처럼 평범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어떤 신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순종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소리만을 따랐다고나 해야 할는지. 더구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녀의 생명을 담보한 투쟁은 이익집단의 이전투구로 물든 이 시대에 종교인들의 투쟁 방식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할일을 다 한 것이다.

#### 지울 앞에 있는 기독교

기독교인들은 지울 사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학법 개정예에 반대하는 집회나 반북 친미 기도회에 앞장서고, 약간 격을 달리하지만 여전히 패권적 형태를 보여준 영락교회나 광성교회 문제나 노출시키고, 급기야 공영 티브이 방송국에서 한국교회의 부조리를 방영하는 상태에 까지 왔다. 강남 지역의 교회들이 이기적인 신앙 형태인 ‘특별새벽기도회’에 열중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과도한 교회당 건축에 사용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울 스님의 사태 앞에서 눈이라도 깜박하겠는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속으로는 불교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무의촌에 의료 선교도 가고, 고아원과 양로원도 자주 방문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행위들은 부

수적이고 비본질적이라는 점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인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한 아무리 남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설교자들은 위선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근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발언이다. 위선은 우리를 점점 자기만족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운동에 참여할만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차라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울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거야 사실 지울만이 아니라 불교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단지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달달 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몸, 자기 삶과 하나로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깨달음이 곧 큰 깨우침인 ‘돈오’이며,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메타노이아’, 즉 ‘회개’, 또는 ‘인카나치오’, 즉 ‘성육신’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런 깨우침과 메타노이아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찾았다는 점이다. 불교는 깊은 사유를 통해서 자기 내부에서 절대적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사건을 믿음으로써 절대적 세계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말이 약간 다른 데로 흘렀다. 지난날 매스컴에 비친 불교는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부활극에서나 볼 수 있던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은 반면에 기독교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자주 감옥에 드나드는 모습으로 비쳤다. 그런데 이제 양쪽의 그림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우리 기독교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불교는 폭력적인 현대의 문명에 작은 몸을 던져 맞서 싸운 지울을 통해서 평화 지향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종교로 각인되고 있다. 이렇게 뒤바뀐 운명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2005.2.4.)

## 북한 핵 이야기

국내외 정치 이야기는 한편으로 재미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 모르기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어젯밤 시사 토론방송을 잠시 시청하면서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틈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발견하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이렇게 북한 핵 주제를 앞에 걸었다.

어제 나온 패널 중에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는 분들은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김문수 의원과 몇십년 전인가 7.4남북 평화공동 선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김동복(?) 선생, 그리고 연세대학교(?) 아무개 교수였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북한은 불량국가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닌다. 이제 당근보다는 채찍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남북 핵문제는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미동맹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국가 이기주의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이유로 남북 공조보다는 한미동맹을 상위의 가치로 여기는 걸까? 북한은 잘났든, 못났든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할 민족이고, 미국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와 적대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모르는지, 전략적으로 모르는 체하는지 잘 모르겠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을 외면한다는 건 그들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인식의 오류인 것 같다.

물론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세습, 반인권과 독재로 악명이 높다. 그것만이 아니라 마약 수출국이며, 간혹 대량무기 수출국으로

의심받기도 한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과장되었을 것이다.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바람직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통치체제나 그들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제삼자가 평가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비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불량 국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쪽방의 삶이 어떤지, 비정규직의 삶이 어떤지, 양심수와 장기수의 실상이 어떤지 따지고 든다면 불량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불량국가인가? 그들은 국제적으로 불량한 나라가 아닐까? 다른 것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수백 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좀 가소로운 일이 아닐까? 물론 이미 인류의 역사에 벌어진 핵 상황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끌여가기 위해서 소위 ‘핵확산 금지조약’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핵보유국들이 우선 가시적인 핵무기 폐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차례로 50년 후까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핵 미보유국들에게 금지조약을 강요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말이 좀 옆으로 나갔는데, 한국의 우익 집단들은 무슨 근거로 한미동맹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걸까? 그들 중에서는 명분보다는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 잘 보여야만 우리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현실론에 근거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전형적인 사대주의이다. 한민족의 동북아와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의 국제 정세 속에서 바른길을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서 최선이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내가 언급할 게 아니니까 이만 접자. 그러나 우익 집단들의 논리 중에서 모순되는 부분은 내 눈에도 들어오니까 한번 물어보아야겠다.

우리의 우익들이 원래의 우익에 충실하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남북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

이 결국 우리의 핵이 될 테니까 말이다. 일본과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전제한다면 핵무기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핵무기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왜 우리의 우익들은 북한의 핵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일까? 아마 여기에도 그들에게 어떤 평화주의보다는 북한을 향한 적개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을 악의 화신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북한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남북문제가 불량학생 길들이 수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남북문제는 우리 남쪽이 비굴하게 보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 채찍을 들었다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완전히 망하는 길밖에는 하나도 없다. 전쟁을 불사하고 북한을 타일러야 한다는 우익들의 주장은 철이 없어도 한참이 없다. 그들도 북한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말인데, 그런 북한에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에 핵폭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반도는 핵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 남한 곳곳에 설치된 핵발전소가 파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어 두어도 좋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접어들 생각이 없는 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북한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남한도 역시 그만한 보복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일본도 역시 비슷한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정권은 끝장나겠지만, 전쟁의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모두 떠안아야만 한다. 그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될 상황은 끔찍하기에 생각하기조차 싫다.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백년 이상

이 흘러도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북한 정권을 미워하겠는가?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결국 우리 남북의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만 한다. 북한 정권이 기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고, 나름으로 콤플렉스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달래는 방식으로, 한민족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나가야 한다. 우리의 우익은 우익의 철학도 없고, 단지 북한을 향한 적대감만 있을 뿐이다. (2005.5.21.)



## 줄기세포 시대 앞에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전 세계의 생물학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지성인들과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미래에 관해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끼친 것 같다. 기초학문의 황무지나 진배없는 한국에서 이런 개가를 올렸다는 건 황우석 박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벨상 수상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무한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도 있고, 이곳저곳에서 밀려드는 강연 초청으로 황 교수가 몸살이 날 정도라고 한다.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한 거의 일방적인 찬사 물결 중에서도 약간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대표적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내심으로 반대하지만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성명서를 내지 않은 선에서 매듭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외신이 들려온다. 가장 진보적인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가장 우익적인 부시가 결국 이번 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신기하게 보인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이 질병치료에서도 크게 갈린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며, 부시의 입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보수적 기독교 신앙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결과는 같게 나왔다.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화당의 일부 지지에 힘입어 배아복제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이 논란의 핵심인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루게릭 같은 난치병 치료에 가장 어려운 관문을 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한다. 내가 전문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난자와 결합해서 만든 배아를 14일 동안 배양하면 줄기세포가 조성된다고 한다. 그 배아는 무슨 장기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손상된 장기에 이식함으로써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면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윤리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아를 14일 동안 배양해서 만들어낸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아직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줄기세포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배아 상태에 돌입했다면 생명의 초입에 도달한 것인데, 그것을 소모품처럼 다루어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언급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으니 접어두기로 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문제만 짚도록 하자. 난치병 치료를 이렇게 생명윤리와 민감하게 연결된 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지혜로운지에 관한 질문이 그것이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는다고거나 인공 장기를 정밀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치료의 한 방법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외국에서 짐승의 배아복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사람의 배아복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이런 생명윤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런 연구에는 여성의 난자가 실험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있다. 실험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난자의 수요도 적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성의 난자가 실험용으로 소비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난치병 치료라는 인간애적 사명을 위해서 그런 비인간적인 상황을 일시적으로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연구가 계속 앞으로 나갈 경우에 인간 자체가 기계적인 대상으로 변질될 위험성은 좀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들이 미인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듯이 앞으로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더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경제적 능력이 그 인간의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줄기세포 은행 운운하는 걸 보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배아복제와 줄기세포를 통한 건강한 삶과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길이 인간의 미래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자리한 인간의 생명현상이 이런 줄기세포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천년 후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의 과학이 나름으로 예방조치를 하겠지만 인간 생명에는 그런 과학기술의 조치로 전혀 예방할 수 없는 힘들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이제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아직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 안에서 난치병을 치료해주는 귀여운 요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인류 전체를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을 괴물이 나올 것인지 확실한 게 우리에게 없다. 이런 연구 업적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하겠지만 인간과 세계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 업적에만 흥분하지 말고 훨씬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5.6.1.)

## 대통령 발목 잡는 사람들!

지난 6월말, 신학강연 건으로 서울에 갔다가 옛날 신학대학교 친구 몇을 만났다. 모두 서울과 인근에서 중대형 교회를 맡은 목사들이었다. 흥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과 만남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정치 부분에서는 서로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게 약간 씁쓸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을 한없이 추켜세웠다.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무얼 그리 잘못했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내 질문에 그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들을 했다. 행정수도, 한미동맹, 공공기관 이전, 실업자 문제, 경제문제, 사회갈등, 등등.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지난 8월15일, 남덕교회 청년회 수련회 특강 건으로 팔공산 자락에 있는 모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 장로 및 몇몇 사람들과 저녁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감이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대신 박근혜 대표의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발언했다. 그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그런 범주에 속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중에 대구의 아무개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장이라고 하는 아무개 장로의 발언이 압권이었다. 그는 탈북자 출신 교수가 장로회 모임에 와서 강연한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공개처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교의 학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름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데, 탈북자의 편향된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믿는다는 게 좀 우스웠다. 어떤 점에서 지식인이나 동네 미장원의 미용사나 자기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난 8월 중순 어느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소개한다. 청와대 및 여당 쪽 패널과 야당 쪽 패널 사이의 토론이었다. 야당 쪽 패널로 나온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아무개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국민들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 가야하는데, 노 대통령은 열 발자국 앞서 가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만 앞서 가도 괜찮을 텐데, 노 대통령은 이쪽으로 열 발자국 갔다가 거꾸로 열 발자국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낀다. 한미동맹 문제에서 노 대통령은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하더니, 정작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아니었으며 저는 포로수용소에 가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데서 국민들은 헛갈린다. 일본 문제에서도 처음에는 과거 문제를 잊자고 하더라도, 요즘엔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 마주 앉아 있던 조기숙 청와대 홍보 수석이 이렇게 맞받아쳤다. 국민들이 헛갈려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대학 교수가 그렇다는 건 이상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문제에서도 한 번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한국이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을 향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과거 문제를 잊고 앞으로 나가자고 발언한 것은 당연하지 않지 않느냐? 선의의 경쟁 대상인 일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일종의 외교적 전술, 전략이 아니냐? 그런데 그 후에 일본이 신사참배나, 역사왜곡 교과서, 독도 문제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따끔하게 질책한 것이다. 조 수석의 발언 사이에 끼어든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 문제는 그렇다치고, 미국의 관계는 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이렇게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서 미국 문제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만 말할 테니까 다른 건 똑같이 대입해서 학습하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구의 모 국립대학교 학장도 그렇고, 티브이 패널로 나온 연세대학교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역사를 동네 구멍가게 주인의 수준과 비슷하게 본다는 게 말이다. 그들

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으려는 데에 힘을 쓰다가 결국 자신의 학문적 통찰력을 송두리 채 상실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지식인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고, 이런 지식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해서 신문 논설위원들이 사설을 쓴다면, 그걸 읽는 국민들의 판단이 어찌하리라는 건 불문가지이다. 거기다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정치인들은 이런 정보를 침소봉대하고, 국민들은 또한 그런 정치인들의 논리에 부화뇌동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원성을 사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이 무엇일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하게 적시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대통령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니까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명실상부하게 탈권위주의 시대가 열린 게 아닐까? 정경유착, 정언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건 말해도 나는 대통령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의 대통령은 이제 결코 권위적인 체제로, 정경유착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 두자. 내가 지금 청와대 홍보를 맡은 사람도 아니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노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가 망가졌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만큼 큰 오해도 없다. 이미 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런 조짐들이 팽배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무분별하게 발행된 신용카드 문제, 주식시장의 침체, 복핵과 미국의 공화당 집권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환경이 열악했다.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도 아닌 내가 이런 말을 길게 하는 건 무의미할지 모르겠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자. 강남 집값의 폭등이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일까? 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이니까 물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한국 전체 사회의 구조적인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기발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모두가 자기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 부동산으

로 불로소득을 올려본 경험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의식 전환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실업자는 어느 사회나 있다. 통계 수치만 본다면 다른 OECD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실업 상황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처럼 80% 이상이 대학교를 나온 실정에 이에 준하는 일자리를 어느 수로 제공할 수 있단 말인가?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연수 명목으로 불러들여야 할 판인데,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 나라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문제가 노 대통령의 책임일까?

더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나름으로 잘살고 있다.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슈퍼마켓에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청소년들도 핸드폰과 엠피 쓰리를 갖고 다니며, 어린이들이 두 세군데 학원을 다닌다. 여기서 우리가 무얼 더 원하는가? 물론 노숙자도 있고, 극빈자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한 모든 나라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논리가 내게는 정당하게 들리지 않는다. 한 가정이 건강하려면 돈을 많이 벌고, 가능한 대로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국가 경제는 한 가정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늘어나서 모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국가 발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접어두자.

어떤 사람은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보기에 30% 지지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오늘 한국이라는 사회의 지형을 놓고 볼 때 말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구도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안정된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고 하더라도, 사실 정치에는 늘 양면성이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일편단심 한나라당과 박근혜에 쏠려 있는 경상도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택도 없다!” 여전히 김대중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쉽게 움직이는 전라도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하겠는가? 만약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우익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진보에 속한 사람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라크 파병은 진보의 지지를 잃는 것이며, 북한과의 민족 공조 정책은 보수의 지지를 잃는 것이다. 거의 보수적인 노선에 치우쳐 있는 기독교 인사들도 당연히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그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처럼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30% 지지면 괜찮은 점수가 아닐까?

당신은 ‘노빠’인가? 당신은 노 대통령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그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둘 뿐이지 그가 절대적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 큰 틀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비록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대통령에게서 성직자의 모습을 찾으려거나 교수의 모습, 또는 혁명가의 모습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어제(8월25일) 밤 KBS 티브이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10시-11시40분까지 방영되었다. 어제가 바로 5년 임기에서 딱 반으로 접어드는 때라고 한다. 원래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지만, 어제 노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의 모든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에게 “너무 순진한 것 같애.” 하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는 지우셔도 될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도 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 사심 없이 자기의 일을 성실



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의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며, 만약 그의 정책이 실패했다면 다음 대선 때 정권을 바꾸면 된다.

그래도 비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옳은 말이다. 언론도 비판해야 하고, 야당도 비판해야 하고, 시민단체도 비판해야 하고, 특히 종교인들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다만 그 비판이 실증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대통령 못해 먹겠어요.’ 같은 말은 놓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느니, 하고 신문이 대서특필한다거나, 설문 조사에서 경제 살리기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고 정치적인 발언만 하는가, 하고 야당이 국민을 선동하는 건 실증적인 비판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나? 중증이 들었던 환자가 그 위기를 넘겼으며, 이제 천천히 기초 체력을 확보하면 됐지, 당장 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뉘댈할 수 있나?

오늘, 내가 공연히 정치적인 문제로 흥분한 것 같다. 여전히 세상에 관한 관심이 쓸데없이 많은 것 같다. 어쨌든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을 때, 그가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언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보태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때가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할 순간은 아닐는지. 그런 게 싫다면 지금은 침묵하는 게 좋다. (2005.8.16.)

## 강정구 교수 문제

가능한 한 세상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구시렁거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 세상에 사는 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적으로 실행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런 현실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관해서 이야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나 또다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말을 걸게 되었다. 그 주제는 강정구 사건이다.

이걸 사건이라고 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 사회가 그걸 사건으로 만들고 있다.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냉전의식을 해체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은 것 같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반복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내가 잘 모른다. 대략으로 짚는다면, 육이오가 통일전쟁이었다는 주장,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 해방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주장, 육이오 때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4백만명의 살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나아가 통일이 (물론 북한의 적화통일)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 소련군은 해방군이었지만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주장, 등등, 대충 이런 것들이다.

이런 주장이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주로 조중동인데, 대서특필되고, 이에 자극받은 보수단체가 강정구 교수를 고발했고, 강 교수를 구속할 뜻을 비친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 앞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검찰 총장은 이 수사권을 받아들이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 진행 개요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경제단체의 실무 책임자는 강 교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취업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의 수사지휘권을 권한 남용이나 법 취지에 어긋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민주노동당에서는 불구속을 지지하고 있다.

강 교수를 구속하라는 사람들은 강 교수가 친북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내통했을 개연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만경대에 갔을 때 '위대한 수령 운운' 한 걸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현재의 모든 발표내용이 북한 정권과 일치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어제 케이비에스 시사토론회에 참석한 어떤 패널은 이런 일들이 바로 현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단한 상상력이며, 대단한 집념이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으려는 그 집요함이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강정구 교수 사건이 왜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지 아는 이해할 수 없다. 우선 그가 아무리 튀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국가라고 한다면 그걸 수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라고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사상, 종교,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고 보장되어 있다. 강 교수의 발언은 자유민주체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된다. 물론 그가 우리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부분 제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좀 웃기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강 교수의 발언 때문에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는가? 아무도 그런 말에 선동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숫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염려를 붙잡아 매도 좋다. 오히려 강 교수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 교수의 발언은 해보다는 득이 많다는 말이다. 이렇게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의 주장을 침소봉대한다는 건 이렇게 트집을 잡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는 방증인지

모르겠다.

좀더 까놓고 말해서, 강 교수의 발언 중에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겠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학계에서 검증받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학문에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으며, 학문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말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다. 맥아더의 잘못된 전략에 의해서, 그것은 곧 자기 명성을 위한 전략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흘리지 말아야 할 피까지 흘렸다면 그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처럼 미국이 반드시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비열할 때도 많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물론 잘한 일들까지 우리가 부정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따져보자는 말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아더는 육이오 전쟁 중에 낙마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가 전쟁을 과격하게 몰아간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미국의 학자들도 맥아더에 대한 여러 평가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맥아더 장군을 신줏단지 모시듯이 한다는 건 철저한 사대주의적 발상과 다른 게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 아닌가, 하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혈맹, 참 좋은 말이다. 미국에 고마움을 가져야 하겠지.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혈맹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벌써 55년이 지났다. 주권 국가에 다른 군대가 이렇게 오래도록 주둔하고 있는 나라와 그런 시대가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이런 문제를 자꾸 말하다면 결국 밀천이 딸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만 접자.

그렇지만 나는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라는 그들의 강경한 목소

리를 그냥 듣고 있기가 참으로 민망하다.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려니와 이번 사건이 파렴치하다거나 폭력적인 게 아니라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살벌한 외침이 더욱 민망하게 다가온다. 21세기에,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라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사태는 흡사 5백 년 전의 '마녀재판'을 다시 보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여성 중에서 산파 역할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던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그 당시 주류의 의사와 목사들이 마녀로 지목하고, 심지어는 화형에 처했다. 마녀들이 착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처리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식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동성애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단들과 죄인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심리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중화하면 집단적 히스테리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현상만 보면 이런 히스테리처럼 보인다.

왜 이걸 내가 히스테리라고 보는가? 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뭐 대단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었다. 야당과 신문에서 그걸 큰 문제로 걸고 넘어가기에 말이다. 혹시 강 교수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속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것에 불과했다. 너무 당연한 지침인 걸 놓고 무슨 큰 문제라고 경천동지나 될 문제처럼 부풀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건 완전히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법무장관이 구속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게 그럴 듯한 그림이 아닌가.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그림이다. 야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안을 놓고 구속하라고 주장하다니기가 막히는 세상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강 교수의 발언이 이렇게 사법적인 잣

대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학문적인 토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려는 지에 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나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본다.”라는 발언까지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북한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을 실상 보다 훨씬 부풀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나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쪽수(인구수)로나 그 어떤 점에서도 우리를 상대하기가 벅차다는 건 우리도 알고 북한도 알고 온 세계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북은 핵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멸의 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이라면 그들에게 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만으로 남한의 핵발전소를 치면 그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독일은 한창 냉전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70년대에도 이미 공산주의 주장을 합법화했다. 아니 사상, 표현의 자유가 이런 반공법보다 상위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독일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음).

내가 유학하고 있던 대학의 식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산당 선전전단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노 정권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것을 예측했을 텐데,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까? 이런 것은 고도의 정치 역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이런 대목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권국가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대단한 것처럼 부풀리는 사람들과 그런 집단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어쩔 수 없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꾸준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싸우면서 이 나라에 어떤 법이 아니라 자유가 명실상부하게 상위개념으로 자리하는 시대가 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2005.10.15.)

## 유시민 소란

이 나라 정치는 어떻게 된 게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까? 새해 벽두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해서 말들이 많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원래 야당에서 말들이 말은 법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여당에서 더 큰 소리를 낸다. 금년 한해도 국민들이 조용하게 지내기는 글렀나 보다. 이런 현상은 어떤 한 두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성과 연관된 건 아닐까 모르겠다. 늘 큰 소리내고, 주먹 휘두르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우리네 정서가 바로 이런 현상을 양산하는 건 아닐까.

여당의 젊은 의원들, 소위 “386”으로 불리는 그런 젊은 의원들이 유시민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얼까? 내가 뉴스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냥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다. “싸가지 없다.”라는 막말도 나오는 형편인 걸 보면 유시민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는 얼마나 감정적인지 알만하다.

나는 유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른다. 지난 총선 때 기독교 쪽에서 그를 비판했다는 말은 들었다. 유시민이 기독교를 나쁘게 말했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것이다. 좀 모양이 웃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일개 국회의원의 말꼬리를 잡아서 트집을 잡는가? 유시민이 기독교를 이유 없이 깎아내렸다면 그때 한번 충고하고 말 일이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끄집어낼 건 무어란 말인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나는 유시민의 종교도 모르고 학력도 모르고 무슨 책을 썼는지도 모른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다는 사실과 그동안 티브이 시사토론회에 패널로 나와서 주로 노무현

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어떤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장관 내정이 잘 된 것인지 아닌지도 말할 처지가 아니다.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일개 장관 임명을 두고 당이 쪼개질 것처럼 저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이다. 유시민이 장관으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실증은 없는 것 같다. 비록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오버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다.

노파심으로 다시 한번 더 말해야겠다. 나는 유시민과 그를 극한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사태에 놓인 어떤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중이다. 그 태도가 별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말이다. 사실 그들은 유시민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노무현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같다. 그들이 왜 분노하는가? 이해는 간다. 그들이 누군가? 진보의식이 투철한 삼팔육 아닌가? (이번 파문에 반드시 386만 개입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을 대표로 볼 수 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들도 순수한 386이 아니라 486도 있다.) 그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주역들이다. 그들은 노무현을 통해서 진보정치를 이뤄보려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들은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으며, 노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결사반대했다. 시간이 갈수록 노무현과 386의 관계는 싸늘해져 갔다. 밑바탕에 깔린 이런 분노가 유시민 사태로 폭발한 게 아닐까?

이들은 순수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다. 노무현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정치를 풀어 가는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할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카드 남발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기, 연이은 대선 실패에 의한 한나라당의 실망과 경성도 민심 등등, 지역 배경이 없는 대통령으로 그는 망망대해의 작은



배와 같았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시도한 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최선이었다. 집권 초기 한나라당에 의해 제시된 김대중 정권의 남북협에 대한 특검 수용도 최선이고, 대선자금 수사도 최선이고, 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최선이다. 진보 인사들에 의해서 비난받은 이라크 파병이 왜 최선인지 내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다. 내 주변에 그곳에 파병했다가 돌아온 부사관 한 분이 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국군의 인기가 짙었다고 한다. 아직 희생된 국군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주시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뽕 먹고 알 먹는’ 장사였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자.

한나라당과의 연정도 내가 보기에는 최선이다. 연정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전제한다. 그런 방식으로 경상도에서도 열린당 의원이 나오고 전라도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정 제안은 단지 정치역학의 차원만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철학의 소산이다. 한나라당도 역시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고, 그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의 인사는 어땠을까?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지만 크게 잘못된 건 없지 않을까? 강금실 장관 임명할 때 안팎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그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1위를 달린다.

당신 눈에는 왜 노무현의 잘못이 안 보이냐, 하고 따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 중에는 노무현이 집권하는 한 기독교가 수난받는다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내 말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만 보아야지 도덕군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철학자가 아니라 현실 정치인일 뿐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시민 문제를 한나라당이 들고 일어났다면 나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위 진보적이라고 자칭하는 열린당의 386이 생트집을 부리듯이 난리를 피운다는 건 우습게 보인다.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나는 진보이긴 하지만 진보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신뢰만 가는 건 아니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다. 아군과 적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구분한다. 사실 한 인간 안에 진보와 보수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노무현이 선명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발끈했으며, 그런 기분을 별로 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늘 싸워서 승부를 보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걸까? 진보는 순식간에 수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극과 극은 통하듯이 말이다. 오늘 기독교 인사 중에도 그런 이들이 어디 한 둘인가. 오늘 내 말이 급하게 가느라 두서가 없었다. 많은 부분에서 비약도 있었다.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읽어주었으면 ... (2006.1.9.)

환장하겠네!

지난 2월27일 서울에서 불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대구 기차역 앞에서 안심까지 택시를 탔다. 25분쯤 걸리는 거리다. 5분쯤 지났을까,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사투리는 살리지 못하고 그냥 내용만 전한다.)

기사: 날씨가 춥네요.

나: 그렇군요. 멋도 모르고 와이셔츠에 양복만 걸치고 서울 갔다가 추워서 고생 많이 했어요.

기사: 겨울에서 봄이 되는 이런 때가 옷 입기 가장 어려운 거 같습니다.

나: 정말 그렇습니다.

(3분 쯤 침묵이 흐르다가 기사가 다시 말을 잇는다.)

기사: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고 하네요. 환장하겠습시다.

나: 무슨 말씀인가요. 대통령 임기가 길다니요.

기사: 노무현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네요. 환장하겠어요.

나: 아, 5년 단임제가 길다는 뜻이군요. 아마 4년 중임제가 좋다는 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말했나요? 기사 선생님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는데요?

기사: 해석이고 말고, 미치겠어요.

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사: 대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여기는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지금 대구는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나: 아, 그렇군요. 먹구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심해졌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중앙

집권 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상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라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해도 거의 서울이 그렇지요.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만 잘하겠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구 5년 임기가 길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무슨 맥락에서 나왔나요? 그냥 느닷없이 던진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기사: 그렇지요. 속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지요.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하네요.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거 하고요. 미국과 뭐라나? 무슨 협상을 잘 끝내겠다고 하던데 ...

나: 예프티에이요?

기사: 그래요.

나: 관세 협상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국내와 국외 문제가 이리저리 얽혀 있으니깐요.

기사: 이제 농사도 끝장입니다. 나도 농촌에 들어가 농사짓고 싶어도 그걸로 먹구 살기 힘들잖아요? 농산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자동차와 티브이와 핸드폰을 칠레에 팔아먹으면서 그쪽의 포도를 수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가능한대로 우리의 농사를 살려야겠지만 수출을 기본으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런 세계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기사: 지금 미국이 밀가루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농산물을 국가경쟁의 무기로 삼게 되면 우리는 쫓박망하는 거죠.

나: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어쨌든지 농산물 수입을 막으라고 외치면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

나라 어떤 대안도 없는 비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자는 요구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막으라고 요구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기사: 사장님은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조심하는 것 같네요.

나: 그런가요? 저쪽 신호등 앞에 세우시면 됩니다.

기사: 예.

나: (8천300원 요금을 보고 만원을 내며) 천원만 돌려주세요.

기사: 아, 예, 감사합니다.

안심에서 하양까지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다. 앞서 택시 기사는 어떤 생각으로 초면인 손님을 보고 “환장하겠어요.”라고 했을까? 그 기사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았다. 말을 해도 경상도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근조근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다. 이 기사 아저씨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경상도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강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대체로 그런 것 같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노 대통령의 신뢰도가 20프로 대라고 한다. 조선일보의 어느 칼럼니스트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시끄럽더라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노무현의 말을 가당찮다고 비난했다. 지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하면서 정부 주체들이 많은 재산을 늘렸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챙기겠다는 말을 하는 건 헛소리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형 신문사 중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조선일보가 말꼬리 잡는 식으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동의하기는 힘들다. 그 칼럼에서 제기한 현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짚자. 시끄럽겠지만 양극화 해소에 치중하겠다는 말을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노무현은 분명히 알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

은 대통령 한 사람의 역량으로, 또는 몇 개 반짝이는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그게 해결될까? 그건 참으로 낭만적인 발상이다. 부유세를 집행하면 될까? 그게 당장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잘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그 어디에도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 예컨대 의식 있는 사람들도 삼성을 욕하면서도 자기 자식이 삼성에 입사하기를 바랄 것이다. 서울대 욕하면서도 그곳에 연줄을 대려고 노력한다. 노무현은 이 현실을 뚫어보고 비록 자신이 양극화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길이니가 가겠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뿐이다.

이 양극화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만 본다면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그나마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 최선일 것이다. 최선이긴 하지만 이건 미봉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더는 나아가지 못한다. 사회 시스템 전체가, 혹은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과 의식이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북유럽 같은 복지사회는 불가능하다. 대기업 사원과 하청기업 사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누가 줄일 수 있을까? 대학졸업생과 고등학교 졸업생과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 더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초일류 대기업에 의존적인 한국경제 구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사족으로, 대학교와 미자립 교회 문제를 누가 어떻게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최소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썩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대통령의 언어감각을 건강부회하는 언론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일이 많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크게 틀린 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기도 하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환장하겠다!’고 한탄하고 있으니,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는지, 정말 환장하겠군! 새로운 패러다임이 받아들

여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어떤 음모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지. 어쨌든지 대통령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게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남은 2년 동안 양극화 해소 문제에 치중하겠다는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다.  
(2006.3.1.)

## 노 정권의 무능과 오만?

5.31 지방선거가 끝났다.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더 정확하계는 모든 진보세력의 완패다. 아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국민중심당(?)도 패했으니까, 한나라당만의 승리라고 해야겠다. 한나라당이 일방독주로 지방선거가 끝났다는 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말들도 많다. 다른 말은 그냥 접어두고, 많은 사람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노 정권의 무능, 오만에 대한 책임추궁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언젠가 한 번 노 대통령에 관한 글을 썼지만, 한번이 아니라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 대통령이 그렇게 몰매를 맞을 만큼 잘못된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하자는 소리를 높였다. 이게 국민의 일반 정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무엇이 무능인지 나는 모르겠다. 경제가 파탄 난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탈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미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닌데, 뭐가 무능하다는 것일까?

FTA가 문제인지, 대추리 사건이 문제인지, 이라크 파병이 문제인지, 아니면 개성공단 추진이 문제인지, 강남 집값이 문제인지, 뭐가 그렇게 무능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힐 일인가? 그리고 노 대통령이 오만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 교만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데, 그가 몇 번이나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사학법이 문제였나? 새만금이 문제인가? 또는 핵폐기물 저장창고 용지 선정과정이 문제였나?

한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피리소리를 듣고 산속으로 끌려갔다는 동화처럼 지금 우리는 무언가의 소리에 마취된 것 같다. 그렇지 않



다면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소위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메이저 신문의 역할이 크다. 그 문제를 여기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민중은 경우에 따라서 ‘마녀사냥’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만은 한번 짚어야겠다.

내가 보기에 노 대통령을 해어나오지 못하게 만든 수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북분단 체제이다. 분단체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소위 레드콤플렉스는 여전히 대한민국 민중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력을 발휘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그래도 참아주었지만 노무현마저 북한과의 상생으로 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김용준 선생님마저 조선일보의 대담에 나오셔서 이런 문제를 짚은 걸 보면 남북분단 체제가 일종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김용준 선생님은 노 정권이 한미동맹을 허술하게 하고 민족 공조에 치우쳤다는 걸 비판하신 것 같다. 함석헌 선생님의 수제자 비슷한 김용준 선생님마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뉴라이트 계통과 한기총 계열의 기독교 지도자와 신자들의 생각이 어떨어지는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이것도 그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못 본 결과이다. 그 이유는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노 대통령을 해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수렁은 지역주의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인식으로 노 대통령을 원천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전라도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었더니 배신한 사람이 곧 노무현이라는 생각이 크다. 나는 경상도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치공학적, 사회심리학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이 없다. 다만 우리는 지금 지역감정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다는 사실만 지적할 뿐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마약중독에 걸렸다는 말이다. 두 가지의 마약이다. 레드콤플렉스와 지역감정.

아마 노무현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런 마약에 취한 민중이 만들어놓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칼 한 것은 웬만하면 이 수령을 피해갈 법도 한데 노무현은 거기에 자기 몸을 던졌다. 노 대통령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냐, 하고 묻지는 마시라. 왜 없겠나. 나는 다만 그의 중심을 평가할 뿐이다. 본인의 실수도 있고,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으며, 큰 사심 없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다.

나는 뉴라이트나 보수쪽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비걸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니까말이다. 나는 진보 쪽의 사람들, 진보 지식인들에게 실망이 크다. 실망이 크다고보다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지난 해방 이후 60년 동안 보수 일색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그 중심축을 가운데로 옮기면서, 다음에 좌쪽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노무현은 가운데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끌어내리면 이 나라는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노당이 별로 맥을 못 춘 이번 선거 결과가 이에 대한 증거이다. 모두가 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으니 지금 내 판단력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건지 ... (2006.6.7.)

##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단상

### 1)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얼마 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해서 국내외에서 온갖 주장들이 난무한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그런 일을 감행했는지 그 속사정을 누가 알라. 그것보다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그걸 나는 잘 모르겠다. 위험한 무기라서 문제인가? 그것보다 더 위험한 무기는 다른 나라에 더 많다. 그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오면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이 한민족은 그야말로 쌍대발이 되고 말 테니까 말이다.

북한에 이어 인도도 최근에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별말이 없다. 그만큼 북한이 국제적 신뢰를 잃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거꾸로 힘없는 놈은 늘 구박 덩어리가 된다는 말도 된다. 북한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들도 자구책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 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태를 불거지지 않게 하는 첩경이다. 다행히 이번 사건 앞에서도 남한 사람들이 사재기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가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의미이다.

### 2. 평택 대추리

수년 동안 계속해서 미군의 평택 이주 문제가 시끄럽다. 여기에 관련된 미묘한 전략적 문제는 내 관심이 아니다. 미군이 당장 철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반대로 끝내고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미군들을 그쪽에 모여 살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남의 군대가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것보다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는 게 모양도 좋지 않을까.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 비용부

담 문제 같은 건 말하지 말자. 일종의 뜨거운 감자인 미군 문제를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으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좋다는 말이다. 북한의 도발 역지력을 미군이 나름으로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주한 미군의 모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분단체제의 심리적 요인이 훨씬 크다. 6, 70년대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와 실제로 6.25를 체험한 세대가 여전히 한국의 주류로 자리하고 있는 한 미군 철수는 한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불안감은 단지 군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문제는 단지 군사적 상황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분단체제 극복과 직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분단체제의 극복을 최우선의 작업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과 문화 예술인들의 왕래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단체제의 심리적 문제와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만 하면 미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더는 미군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평택에서도 역시 보따리를 쌀 것이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 3. FTA(자유무역협정)

한 마디로 난리다. 그런 난리를 피워야 한미 협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FTA 반대도 정도껏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FTA의 속사정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에 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러나 기본은 뻔한 이야기 아닌가.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의 기업이 잘 되자는 것이다. 소위 '윈윈 전략'인 셈이다. 많은 사람은 그것이 초강대국을 상대로 했을 때 가능하겠냐 하는 염려를 한다. 그럴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아마 FTA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같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다른 나라가 하는 걸 보아가면서 천천히 해야 하는 게 옳은지,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가 미국 경제에 예측당하게 될는지, 나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완전히 전문가들의 몫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역사가 지나가야만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게 뒷날 좋은 선택이라는 게 증명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걸 누가 판단하겠는가? 특히 우리가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생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정부 불신 운동을 벌이면서까지 이 FTA를 반대해야겠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제 구조는 무역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 만약 미국과의 FTA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일대일의 관계에서는 조금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면 큰 틀에서 볼 때 이 협정은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지금 내가 완전히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구상 자체를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자존심도 지키고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일단 우리가 좀 못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는 미국에게 큰소리쳐도 되겠지만 현재 그게 맞는 말인가? 온 국민이 영어 열풍에 휩싸여 있으면서, 조금만 경제수지가 낮아져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이게 가당한 말인가? 모든 대학이 철학과를 폐과하고, 철학 과목을 교양 필수에서 선택으로 돌리고 있으면서 FTA 반대가 합리적인 주장인가?

#### 4.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박근혜 대표의 “대전은요?” 한 마디에 대전 시민들은 염홍철을 버리고 박근혜가 미는 사람을 시장으로 택했다. 열린당의 대표는 동정표를 구했으나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여당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동정표를 구했는지 좀 우스운 생각이 든다.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전달이 안 된 거면 최대한 알리면 그만 아닌가.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하다니 패배주의, 또는 기회주의의 표본이다. 서

울 시장 선거에서 열린당의 강금실 씨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씨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다. 개인적으로 강금실 씨의 당선을 바라고, 또한 믿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였다. 한나라당 대표선출에서 박근혜 씨가 미는 강재섭 씨가 당선되었다. 다섯 명의 최고위원이 거의 박근혜 씨와 영남 쪽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민주당이 석권했다. 열린당은 전북에서만 지지를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우리의 정치를 끌어가는 힘은 분단체제와 지역주의와 신자유주이다. 레드 콤플렉스, 연고주의, 돈이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이것 말고 관심을 보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걸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노무현은 그걸 끊어 보려고 발버둥 친 거의 유일한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민중은 그런 선택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그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5. 월드컵 축구

이탈리아 우승으로 끝났다. 그 시합에서 지단은 박치기로 퇴장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16강에는 아시아 대표가 하나도 끼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가나가 비유럽, 비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다. 8강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외에 모두 유럽팀들이다. 결국 4강은 모두 유럽팀이 올라갔다. 올라갈수록 게임 내용도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 월드컵 축구는 인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이 스포츠가 지구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당분간 화끈하게 노는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물적, 정신적, 시간적 소비가 너무 크다. 이라크 전쟁의 여파는 여전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군인들 포로 문제로 또 레바논(?)을 공격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에 바쁘고 테러리스트들은 또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면 살아야 하는가? (2006.7.15.)

## 이명박 정권과 한국교회

이 글을 쓰는 지금 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아마 태풍 ‘갈매기’의 효과인가 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한 실체(reality)로 존재하는 이 바람을 고대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영’(루아흐)으로 생각했다니, 그 통찰력이 예사롭지 않다. 그 영은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다. 오늘 오전에 샘터교회에서 드린 예배도 역시 이 영의 인도를 받은 영적 사건이다. 바람, 영, 하나님, 예배,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 생명의 깊이에서 서로 소통되는 어떤 것들이다. 이런 영적 경험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끌어간다. 이런 점에서 주일공동예배를 드린 주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며 자유이다. 특히 예배를 인도한다는 중압감에서 해방된 목사에게 주일 하오는 행복한 순간이다. 바람도 시원하니,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으리오.

이런 행복한 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청해서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오늘 샘터교회의 점심 식사 시간에 나눈 대화에서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 위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런 위기야 필자가 지난 수년간 설교비평 작업을 진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했기에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위기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소망교회 장로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장로였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그 강도가 전혀 달랐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기총과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오를 때가 많았다. 이를테

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발언이 그런 것들이다. 아마 대도시의 성시화 운동에 앞장서는 목사들의 처지에서 보면 이런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으로 비칠 것이다.

지금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판단할 처지가 아니다. 그가 설령 기독교를 이용했다고 해도 그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완전하게 순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기독교 정치인들도 그런 정치적 야망과 종교 사이에서 줄다리기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더 근본적으로는 필자가 알지 못하는 깊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앙적 순수성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닌가. 물론 필자가 서울을 하나님께, 또는 포항을 하나님께, 같은 신앙적 구호를 입에서 뱉어내는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지만, 그것도 접어두겠다. 그런 정치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교회의 운명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학자나 경제, 또는 사회학자가 아닌 목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평소 필자가 취하던 입장이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는 할 말이 없다. 나름의 정치적 판단으로 미국과 그런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목사가 뭐라 말할 수 있는가. 이는 곧 작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FTA 협상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라크 파병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찜찜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이다. 이것을 정신적 자세, 또는 마음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의 영성이다. 개인의 영성이 눈에 보이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 나름의 특성이 있다.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사



람의 향기라 할 수 있다. 여러 냄새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냄새가 난다.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과학적이다. 관상이 공연히 관상이겠는가. 오해는 마시라. 지금 필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외모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의 고유한 인격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나타난다. 세계관과 영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려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야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 마디로만 짚고 넘어가겠다. 세계관과 영성이 일치하는 점은 바로 생명이다. 사람은 각각 생명을 보고 경험하는 깊이가 다르다. 그것이 축적되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영성으로 나타난다.

지난 몇 달 동안 필자의 눈에 비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소상히 말하겠는가. 그럴 능력도 없으니, 그냥 눈에 들어오는 한계 안에서 두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쇠고기 국면에서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필자는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건 내 능력을 벗어나는 전문적인 과학과 국제정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뻔하게 드러난 문제까지 감추는 데만 급급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과 동맹강화를 위해서 이런 졸속 협상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 표현이야 다른 말로 바꿔도 되지만,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감추고, 처음부터 질 좋고 값싼 미국 쇠고기 운운했다. 코미디도 더 이상의 코미디가 없다. 어쩌면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지만 말이다. 그 뒤로 그가 촛불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쏟아낸 말은 아예 거론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필자의 눈에 꿈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비쳤다.

물론 다르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좌파(?)세력의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라고 말

이다. 이런 변명은 궁색하게 보일 뿐이다. 그의 국정 지지도가 20% 내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까지, 현재 정권에 직접 연루된 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의 상황은 좌우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에 연관된 문제이다.

둘째, 얼마 전부터 느닷없이 매스컴을 장식하기 시작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논란에서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라기보다는 권모술수에 능한 정략가처럼 보였다. 정치에 정략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비열하게 수행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당당하지 못함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오죽했으면,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조차 청와대를 질책했겠는가.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상처뿐인 승리'라는 말로 비판한 것 같다. 청와대는 계속 익명에 숨어 노 전 대통령을 파렴치한으로 비치게 하는 발언들을 계속 생산해왔다.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재위 시절에 기록한 정보를 열람할 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약간의 편법이라 할 사본의 방식으로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사본을 만든 행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게 하나이고, 이런 논쟁에서 국가기록원을 제쳐두고 청와대가 앞장서는 게 정당하냐, 하는 게 둘째이다. 첫째 문제는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사본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법제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데, 필자는 이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할 처지가 못 된다. 둘째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월권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노 전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기록물을 정한 법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고, 기록원은 전임 대통령에게 열람권을 확보해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지난 몇 달간 기록원과 봉하마을 측이, 그리고 청와대와 봉하마을 측이 협상을 계속해 온 것 같다. 국가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아직 미비한 관계로 인해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에게서 전임 대통령의 예우에 맞게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뒤로 묵묵부답에다가 봉하마

을 축을 비난하는 청와대 측근들의 발언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매스컴에 퍼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필자도 더 거론하지 않겠다.

필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가 벼운 글이나 써대는 서생(書生)인 주제에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업무를 시작한 지 채 5개월이 안 된 분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한다면 경솔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필자는 위에서 거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한다. 첫째, 그의 철학이나 세계관은 극단적인 통속주의이다. 영어 몰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운하 계획, 공교육의 황폐화 등등, 그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며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이지만, 그가 자기 생각을 실현하는 태도가 당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꼼수’라고 하는데, 바둑에서도 사용되는 이 꼼수는 밝은 수가 아니라 어둠의 수이다. 상대방이 속아야만 통하는 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정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세상을 오직 자신이 신봉하는 꼼수로만 읽고 그 방식으로만 살아간다.

지금 필자가 목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발언을 했을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쏟아냈지만, 이것은 이명박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비판이나 염려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를 향한 연민의 하소연이다. 그의 정치행위에 나타나는 극단적 통속주의와 꼼수주의가 바로 한국교회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염려가 그에게 표출된 것뿐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옳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날 한국의 대형교회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았으며, 이제는 이명박 지키기에 진력하고 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가려는지.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자칫 이명박 대통령

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가속할지 모르겠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  
히 여겨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송! (2008.7.20.)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에 부쳐

지금 2009년 4월30일 오전 11시이다. 세 시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 사저를 떠났다. 검찰의 소환에 따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이란단. 죄목이 ‘포괄적 뇌물죄’라고 한다.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무현에게 그런 죄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야 앞으로 공판 과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는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였다. 그 결과 박연차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구속되었고, 그때부터 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박연차의 기업을 세금 조사한 전 국세청장은 출국한 상태이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박연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포괄적 뇌물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조카와 아들, 그리고 부인에게 주었다고 한다. 조카와 아들에게는 기업 지금으로, 부인에게는 빚을 갚는 자금으로 주었다. 그 돈이 대략 1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박연차는 검찰에서 그 모든 걸 노무현을 보고 주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노무현이 돈을 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검찰이나 언론의 발표가 그럴 뿐이다. 또 다른 것은 1억짜리 외제 시계를 노무현 부부에게 두 개를 주었고, 청와대 비서관이 판공비를 빼돌려 12억원을 숨겼는데, 그것도 노무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박연차라는 인물이다. 그가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는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가 원하는 말을 사실보다 부풀려서 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상문 비서관이 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박연차에게 말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확인할 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어쨌든지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결국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고, 나로서는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점은 분명하다. 박연차와 노무현이 가깝게 지낸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박연차는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 씨와 가까웠다고 한다. 친구의 동생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박연차는 이런저런 일들로 노무현을 많이 도왔으며, 가족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뒤로도 그런 흥허물이 없는 사적인 관계는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의 실수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인물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것 말이다. 대표적인 토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박연차를 내치지 못한 것이다. 형 노건평 씨를 관리하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아들과 사위는 해외로 보냈지만 형과 형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손을 대지 못했다. 오해는 마시라. 사람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말로 검찰이 주장하는 노무현의 잘못이 가려진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이 늘 공과 사를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를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지만 별로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브리핑을 했다. 형사법에 피의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법을 다루는 검찰 스스로 그것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무현에게 불법이 발견되었으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은 정치인처럼 행동했다. 예컨대 아들이 받고 부인이 받았는데, 노무현이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발언도 나온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는 건 많다. 이런 식이라면 법망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 노무현이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전혀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국제청장을 출국하게 만들고 불려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

며,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천신일 씨 사건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이 사건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한국의 검찰은 정치하고 있다.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뇌물을 받은 거나 똑같다는 말이라면, 결국 이 현령비현령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식이라면 나에게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게 참으로 많다. 먼지떨이 식으로 접근하면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치계 인사들은 더 하다. 거의 일 년 내도록 노무현 주변 인사들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흠집이라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은 것도 또 있을지 모른다.

오늘 노무현은 소환되었다. 피의자 신분이란다. 검찰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수궁이 안 된다. 노무현은 고향 봉하에서 지난 일 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고향 살리기에 매진했다. 설령 그가 가까운 박연차에게 호의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불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농사를 지면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하다. 방문 조사도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국세정창이 박연차 기업을 세무 조사한 결과를 들고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한다. 그 뒤로 노무현 주변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이 사건에 정치보복이 개입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목사가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게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입을 무조건 다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주제넘게 몇 마디 했다.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대구 성서아카데미 회원들과 샘터교회 교우들의 이해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주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 글을 마쳐야겠다. 나는 노무현을 여전히 지지한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검찰이 말하는 내용이 앞으로 사실로 드러나서 그가 사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에 대한 나의 지지는 현재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국이라는 정치 지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야말로 풍운아 정치인이었다. 부디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고향 살리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전임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으시기를 ...  
(2009.4.30.)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새벽에 고향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예순셋의 젊은 전임 대통령이였다.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걸 다음 세대에 넘기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훌쩍 건너뛰고 말았다. 그 길 밖에는 전임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나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티브이 출구조사가 발표된 2002년 12월19일 저녁 아내와 함께 춤을 추듯 기뻐했다. 그 많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었으니 말이다. 그를 지지한 이유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시쳇말로 그는 ‘개념’ 있는 정치인이었으며, 그런 대통령 후보였다. 그 개념은 그의 대통령 통치철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남북 분단체제의 극복이었다. 그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본 미국의 부시 정권과 상대해야만 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의 대북한 압박 정책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수고,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좌파라고 몰아갔다.

물론 좌파 딱지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경제정책과 사학법과도 연관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가 크게 한몫했다. 일부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노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예언자적 외침이 아니라 증오심의 발로인 마녀사냥이었다. 노 대통령의 퇴임과 서거 이후에도 이런 경거망동은 그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 극복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거기에 거의 맹목적으로 매달린 정치인이었다. 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서의 국회의원 직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겠는가. 대통령직에 있으

면서도 그는 그렇게 바보짓을 했다.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했다.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서는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안주하거나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 뿐이다. 정치적 기득권만이 목표였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의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서조차 무시당했다. 그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바보 노무현이 바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무현을 원래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나는 별로 실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념 자체가 다르기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지지했다가 등을 돌린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처음에 지지했다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대하기 위한 반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심각하게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들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내심으로는 노무현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래는 그 당시 내 생각을 쓴 글 “진보적 지식인과 운동가들에게”의 마지막 대목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책 브레인들이 정책적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주마가편이라고, 노무현 정권을 위해서 진정어린 충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의 행태는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나친 선명 경쟁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정적으로 투쟁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선택한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잘 달리도록.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내도록. 동지들이여!”(2003.6.12)

노무현의 정책이 모두 좋았다는 말인가, 하고 묻지는 마시라. 나는 그를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최선이라고, 아니면 최소한 최선이 없는 차선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안만 놓고 본다면 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정제외,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분단 체제에서 반공 보수 우익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정책들은 교육지책 아니었는지.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토로한 노 대통령은 정말 힘들게 대통령직을 마쳤다. 지지도는 바닥이었다. 정권을 원하지 않는 당으로 넘겼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퇴임 후 그는 약속대로 고향 봉하로 내려왔다. 지난 일 년 동안 생태와 복지를 갖춘 고향 가꾸기에 매진했다. 고향에서 보인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여생을 보내기를 바랐고, 당연히 그럴 줄로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한국역사에 더 없는 공헌이라고 믿었다.

그가 갔다. 대한민국은 그를 끝까지 놓아두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 정치의 정상에 올라선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는 한국정치의 야만성을 몰랐다. 정치인이 된 것을 후회했다 하는데, 너무 늦었다. 바보 노무현이 그냥 바보 노무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바보 노무현은 윤뚝뚝이들이 감히 이를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전했다. 지금 대한민국 민중들이 보이는 뜨거운 추모 열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자신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5월27일)

## 노무현(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대도 알고 있을 거요. 작년 5월23일에 그는 고향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 몸을 던졌소.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예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소. 나도 지금까지 여러 국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함께 슬픔에 동참해서 눈물을 흘리기 까지 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소. 일 년 동안 흘릴 눈물을 한꺼번에 흘렸던 것 같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슬픔의 충격이 거의 가라앉았고, 그 상황을 담담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소.

그의 나이가 당시 예순 셋이었소. 젊은 나이요. 60대는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소. 육체적으로도 특별히 병약하지만 앓다면 젊은 시절에 비해 못할 게 없소. 정신적으로는 더 할 나위 없는 나이요. 그가 앞을 할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 재임 때보다 훨씬 많았소. 그 이유를 그대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민소. 그는 모든 에너지를 농촌 살리기에 던지기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소이다. 일 년여 퇴임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소탈한 방식으로 고향생활을 했소이다. 직접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는 등, 앞으로 농촌이 나가야 할 방향을 힘차게 찾아가고 있었소.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보였소. 매일 봉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았소. 그의 꿈이 못내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게 생각할수록 아깝소.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잃은 것이 너무 안타깝소. 거꾸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소.

노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할 일이 무진장하게 널려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검찰과 매스컴을 통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모욕을 받았

기 때문이요? 심한 모욕으로 죽음을 선택한 이들은 간혹 있소. 나는 노무현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과 자기 가정이 받아야 할 모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었소. 그가 모욕 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니 말이오. 그런 것으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그가 심리적으로 박약한 사람도 아니오. 그렇다면 그의 운명은 어디서 온 거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자신이 없소. 상식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하리다. 하나는 그의 영혼이 너무 순수했다는 것이오. 내란죄로 감옥을 산 전직 대통령도 땡땡거리고, 대기업 총수가 국민을 향해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촛불시위 때 크게 반성했다는 대통령이 2년 뒤에 국민을 향해 반성 운운하는 이 세상에서 견뎌내기에는 그의 영혼이 너무 투명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오. 다른 하나는 동지들에 대한 연대의식이오. 그에게 그런 유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았을 거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추구한 모든 정치적 가치들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였소. 이런 상황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 아니겠소. 이것도 결국은 그의 영혼의 순수성과 연관되는 것이구려. 그가 버텨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뻔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오. 그는 그렇게 갔소. 그리고 그를 마치 마녀처럼 증오했던 이들이나 그를 지지하던 나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남았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23일까지 몇 번에 걸쳐서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시오. 그대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소.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었으면 하오. 그대와 나는 대동소이(大同小異)의 관계 아니겠소. (2010년 5월20일, 목요일)

어제의 글에서 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털어놓았소. 오해는 마시오. 나는 소위 ‘노사모’에 가입할 정도로 열렬 지지자는 아니었소. 2002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대구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목사 모임인 ‘목협’이 노무현 후보를 초청한 일이 있었소. 나도 마땅히 참석해야 했지만 바빠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소. 그렇게 할 정도로 그에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यो. 그가 대통령 재임 중에 펼친 모든 정책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오. 이해는 하지만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아예 이해도 되지 않는 것도 있소.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전자고, 아파트 원가 공개 반대는 후자요. 전반적으로는 그의 정책을 지지했소.

정책 이야기는 그만 두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이 못 된다고. 나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됨(Sein)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당연히 좋다는 입장이라오. 인간은 위선을 행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오. 겉으로 나타는 행위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요.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정책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기 때문이라오. ‘옳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오. 내가 어떻게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오. 옳다기보다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게 좋겠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구려. 도교적인 그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내 세계관과 동일할 수는 없소.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소. 그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 방식으로 ‘개념’이 있는 유일한 유명 정치인이었소. 철학이 있다는 말ियो.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는 인문학적인 사람이었소.

이런 정치인이 되는 게 쉽지 않소. 정치인은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이득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오. 7, 80년대에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이들 중에서 적지 않는 사람이 보수 우익으로 돌아섰소. 생태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4대강 홍보 전도사가 되기도 하오. 정치적 입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정치인들이라오. 미안하오. 내가 지금 모든 정치인을 싸

잡아 비판하는 게 아니요.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중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철학적 사유 능력을 확보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요. 철학적이라고 해서 너무 고상하게 생각할 것 없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소. 책임 있는 말을 하요. 그의 말은 그래서 살아 있소.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대비되요. 이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요. 말을 수시로 바꾸요. 한국의 정치 지형은 여전히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소.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과 개념과 인문학적 식견은 책임기에서 나왔소.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소. 실제로 책을 끼고 살았던 것 같소. 요즘 서점가에는 노무현의 책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소. 그가 읽었던 책까지 많이 팔릴 정도요. 가방끈이 짧지만 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와 인간을 이해하고 있던 대통령을 이 사회는 원하지 않았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현실유지(status quo)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물은 눈엣가시였을 거요. 그는 이런 질서에서 견디지 못하고 ‘운명이다’ 하는 말을 남긴 채 우리보다 먼저 삶이라는 기차에서 뛰어내렸소. (2010년 5월21일, 금요일, 부처님 오신 날)

### 노무현(3)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 수사와 소환이었소.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일 년 전에 내가 쓴 글 (<http://dabia.net/x/current/243405>)로 대신하겠소. 검찰은 노무현을 포괄적 뇌물수수로 기소하기 위해서 소환했다고 하요. 노 대통령은 내심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법원에서 법리 논쟁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소이다. 실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내가 보기에는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요. 나중에 무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노무현의 부도덕성은 그대로 낙인찍히고 마요. 검찰이 목표로 하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소. 한명숙 전 총

리의 재판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소. 심하게 표현해도 이해해 주시구려. 지금의 검찰은 정권의 주구(走狗)요. 스폰서 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서도 검찰 총장이라는 분이 검찰보다 더 양심적인 데는 없다는, 정말 한가한 소리를 하는 실정ियो.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심심풀이 ‘껌’이었소. 대학교 선생들도 시간만 있으면 노 대통령을 씹었소.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닳을 할 정도였소. 심지어 내 가까운 어떤 친족의 한 사람은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가 무엇인지 내게 설명하라고 했으나 설명하지도 못한 채 그렇다고 주장하였소. 내 추측으로는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오. 지금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 때 ‘북한 퍼주기’라는 말을 해대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오.

이런 여론의 선봉에 조선일보가 자리하오. 5년 내도록 대통령을 개구리로 희화화하는 만평과 사설을 내보냈소. 트집 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소. 신문의 속성이 정권을 감시하는 것이니 그럴 만하다고 보아 넘길 수 없을 정도였소. 매사에 트집을 잡던 조선일보가 요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깃 소리 하지 않을 걸 보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소. 지금 천안함 사태로 나라 전체가 법석ियो. 만약 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물문가지요. 46명의 천하보다 귀한 젊은 군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연일 매도했을 거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옷을 벗기라고 떠들었을 거요. 조선일보는 지금 북한을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국방 경비 소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오. 생각해보시오.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보다 더한 무책임은 있을 수 없소. 이건 상식적인 말이 아니오? 한미군사 훈련 중에 아군 지역에서 적군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1천2백 톤급 초계함이 공격받아서 침몰했다니 말이오. 초계함은 원래 잠수함을 감시하는 배라 하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는 지휘관도 없고, 대통령도 책임을 묻지 않소.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입을 다물고 있소. 참으로 뻔뻔한 하



오. 정론직필이 아니라 곡학아세의 한 전형이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미 대통령 재임 중에 시작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소.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오. 여기에는 목사들도 해당되오. 노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공공연히 떠든 목사들도 있었소. 특 하면 좌파정권이라 했소. 이 시대는 노무현이라는 정치가를 받아들이기에 아직 미숙했던 거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미몽의 시대와 대결하다가 결국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인생이라는 항해를 마쳤소. 이 나라에 언제 미몽의 어둠이 걷히려는지.(2010년 5월22일, 토요일, 하루 종일 비)

#### 노무현(4)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 되는 날이오. 어제부터 지금까지 장마처럼 계속 비가 내리는구려. 그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소. 아주 복잡한 심사가 내 마음에 뒤섞여 있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가를 잃었다는 안타까움이 가장 크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암시하거나 방조한 어떤 이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소. 다음 정권이 지금 미국에 도피하고 있는 한상률 전 국제청장을 엄정하게 조사하면 전직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검은 손길이 밝혀질 것이라 보오.

노 전 대통령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결백하다는 말이나, 가족이 돈을 받은 건 분명하지 않느냐 하고 묻지는 마시오.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오. 그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소. 문제는 검찰의 먼지떨이 식 표적 수사요. 비굴하게 생존을 구걸하도록 몰고 갔소. 그때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꺼내기도 싫소.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핑계로 몸에 때가 있는지 확인할 테니 벌거벗으라고 요구한 것과 같소. 그것은 때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주려는 것이오.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정

도로 아주 비열한 짓이오.

그런데 말이오. 모든 진상이 나중에 밝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미 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오. 노 전 대통령도 유서에서 남 탓하지 말라고 말했소. 그래도 정의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요. 그렇기도 하오. 단죄가 필요할 때는 단죄를 해야 하오. 알곡과 쭉정이를 늘 함께 뒤섞어놓을 수는 없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정의의 심판이 있긴 있어야 하오. 그렇게 정의의 칼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겠소? 그러나 노무현의 뜻을 따른다면 원수 갚는 일은 부질없소. 분노의 불길은 태울 수 있으나 ‘사람 사는 세상’을 일으킬 수는 없소. 악은 우리가 무찌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오. 악은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소.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닐까 생각하오.

도대체 무얼 준비하라는 말인가,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드시오?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지우는 게 준비 아니냐, 하고 말이오.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오.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노무현 정신을 살리는 게 그를 추모하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거요. 그가 대통령 퇴임 후에 고향 봉하마을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보면 답이 나올 거요. 구체적으로 농촌 살리기를 해야 하오. 지금 웬만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소. 농촌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오. 사람 사는 세상은 농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오. 도지도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 하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요. 또 하나는 인문학 정신을 살리는 거요. 그가 책임기에 심취했다는 사실은 앞글에서 이미 지적했소. 그는 일찍이 인터넷 세상을 알고 있었소. 인터넷은 해방공간이오. 인터넷이 잘만 운용되면 인문학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소. 노무현 재단이 운용하는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소. 정치적인 색깔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이들의 광장처럼 운용되고 있소. 정기 후원자가 2만 6천여 명이나 된다 하오. 계속 늘고 있

소.

지금 봉하마을은 성지(聖地)가 되어가고 있소. 나는 아직 못 가 봤소. 마음을 굴뚝같았으나 천성이 게을러서 못 갔소. 금년에는 6월 중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 그대도 같이 갈 생각이 있소? 준비하고 있으시오. 나중에 연락을 주겠소. 비가 오는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오. 1주기라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다른 날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소. 이런 장소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소. 전라도에 한 곳, 경상도에 한 곳이오. 전라도 광주의 망월동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와 경상도 봉하마을의 노무현 묘소요. 두 곳 모두 상징성이 강하오. 민주와 죽음이 자리하오. 둘 다 억울한 죽음이오. 전자는 민중들의 죽음이라면 후자는 대통령의 죽음이오. 하기가 노 전 대통령도 민중을 자처했으니, 양쪽 모두 똑같은 죽음이라 할 수 있소.

노무현은 갔소. 그가 간 지 1년이 흘렀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는 정치를 넘어 신화가 되고 있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지만 막지 못할 거요. 그가 살아서 한 일보다 죽어서 한 일이 더 많을 거요. 다 그럴 만하오. 마지막 순간까지 온 몸을 던져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씨를 뿌렸소. 앞으로 그 씨가 열매를 거둘 것으로 믿소.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오. 각자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오. 분노와 슬픔을 거두고, 이제 힘을 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2010.5.23.)

## 천안함에 대한 궁금증(1)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20일에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고 한다. 사고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린 어뢰 추진체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추진체가 북한의 것이며, 또 천안함을 침몰시킨 바로 그 어뢰의 것이라고 했다. 청색 유성 매직펜으로 '1번'이라고 쓴 글씨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보인 것이다. 이 조사단에는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이 조사 결과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이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발표를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일까? 다른 건 접어두고 우선 내 상식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답이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는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연합 훈련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인근에 십여척의 군함이 집결해 있었다. 한미군사훈련의 목적은 당연히 북한 해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와중에 북한 잠수함이 잠수함을 감시하는 초계정인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아무도 모르게 모항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은 내 상식에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도가 아무도 모르게 청와대에 침입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는 말과 비슷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중에 당했다고 말했다. 아마 취침 시간이었다는 말이라. 대통령이 잔다고 해서 경비병들도 모두 자는 건 아닌 것처럼 천안함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니었다. 합조단은 잠수함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당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잠수함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남한 배가 처한 상태는 풍전등화나 마찬가지이다. 북한 잠수함 작전 능력이 세계 최고 군사력을 지닌 미 해군의 눈앞

에서 꺾판을 치고 귀신처럼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다는 사실은 내 상식과 충돌한다. 정황 논리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정황 논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뢰 추진체라는 실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추진체 문제는 내가 언급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이다. 합조단도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겠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실정이다. 다른 주장의 핵심은 합조단이 증거물로 내놓은 그 추진체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직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수년 전 황우석 박사가 세계 유수의 과학 잡지에 자신의 실험 결과를 게재해서 큰 이목을 끌었지만 그것이 가짜 논문이었다는 사실이 어느 젊은 과학자 동아리에 의해서 밝혀진 것처럼 말이다. 물증은 천안함 선체와 어뢰 추진체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 그것을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는 그만두겠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대목만 말하겠다. 정부는 왜 그리 조급한가? 사고 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배의 한 부분을 조사 발표 하루 전에 건져 올렸다.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 조사는 왜 그리 일방적인가? 합조단의 발표와 다른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북한은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살인강도가 검찰의 조사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그 주장을 거부했다. 거부하는 논리가 옳색하다. 이 문제는 서로 자존심을 다루는 차원이 아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민족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기분이 상하겠지만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억지를 쓸지 모른다는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의 억지는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입지만 줄여줄 뿐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을 북한 우호에서 중립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국가의 공식 조사단이 발표한 것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

제가 있으면 차츰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 왜 자꾸 트집을 잡느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합조단의 발표와 어긋나는 사실을 유연비어로 퍼뜨리는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말도 한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현 정권은 툭 하면 법을 들먹인다. 언론을 꼭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도가 성공하겠는가. 아무리 공식 기관이 발표한 것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와 다른 게 무엇인가. 국가 기관, 또는 정권의 조사 발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국내의 예다. 일명 금강산 댐 사건이다. 1986년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금강산에 건설하고 있는 댐이 남한 공격용이라고 하면서, 방류를 시작하면 서울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문가들을 동원한 과학적 조사 연구 결과를 곁들였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성금을 모아서 방어용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금강산 댐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를 응징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2003년 3월에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간단히 이라크를 제압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이 전쟁을 반대했다.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주축이 되어 전쟁을 일으켰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쳤으나 실제로는 제국의 욕망에 불과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일을 따지만 어디 한 둘이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 배는 제주도 해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을 향한 모든 구호물자 공급도 중단된다. 영유아용만 제외라고 한다. 국방부는 휴전선에서 대북 비난 방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어찌 나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흰하다. 대북방송 시설을 조준해서 사격하고, 응사가 오면 더 큰 화력으로 타격을 주겠다고 한다. 마치 권투선수들이 탐색전을 벌이는 것과 비슷하다. 만에 하나 확전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너무 끔찍한 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조중동 신문은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자고 외친다. 중앙일보 아무개 논객은 3일 만에 한미 군사 공격으로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남과 북의 전쟁을 상상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도 마치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6월2일 지방선거를 위한 것인가?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다.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진심에서 나온 조치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분이다. 그분이 장로니까 이런 문제를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탄 집단이니까 박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한 분이다. 그는 지금 우익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어 마녀를 잡듯이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은 정말 나쁜 집단이 아니냐, 그런데 왜 비호하느냐 하고 묻고 싶으신가? 북한 정권은 불량하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조폭 기질이 있다. 문제는 그들이 바로 우리 형제이고, 이웃이라는 사실이다. 내 동생이나 이웃이 조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동네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 일단 그를 붙잡아서 혼내줘야 하는가? 그게 평화의 길인가? 햇볕정책, 퍼주기 정책으로 북한이 망나니짓을 더 하는 거 아니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길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선택의 문제이다. 나는 전자를 택한다. 조폭 이웃과 동생을 도와주겠다. 그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빠서가 아니라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온건한 분 중에서도 햇볕정책에 동의하지만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만은 분명히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이다. 거기에는 일단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거기에 논란거리가 너무나 많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건이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것이 없었다. 뭔가에 쫓기듯이 발표했고, 이어서 연출하듯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전시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 모두 어떤 수렁으로 빠져저드는 듯한 느낌이다. 내 딸들에게 이런 미래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이라. 진실에 속한 사람은 어떤 논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둘째, 개성공단을 당장 철수하고, 자위권을 당장 선포하라. 천안함 공격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2010.5.25.)



## 천안함에 대한 궁금증(2)

나는 지난 5월25일에 ‘천안함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글을 올렸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라는 합조단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그 당시에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목이 있다. 합조단이 증거로 내놓은 어뢰 추진체에 적인 ‘1번’이라는 청색 글씨다. 나는 티브이 화면으로 그 글씨를 처음 보았을 때 추진체에 기계로 새겨진 글씨가 녹이 슬어 잘 보이지 않으니깐 그것을 확인해 주느라고 합조단이 직접 표시해 놓은 것으로 생각했다. 1천2백 톤급의 초계정을 한방에 반 토막을 낼 정도의 위력을 지닌 어뢰 추진체에 그토록 선명한 유성 매직 글씨가 남아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그 글씨가 바로 북한군의 것이라고 한다. 페인트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녹이 슬 정도의 상황에서 페인트보다 녹는 온도가 훨씬 낮은 유성 매직이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의가 제기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사 결과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 침몰 좌표도 엇갈리고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천안함 흡착물 분석 결과는 어뢰 폭발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고 1번 글씨와 외부부식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06174747&ion=0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06174747&ion=05)) 최근에는 당시 사고 지역에서 1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과 미국 해군이 대잠수함 연합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AP 통신에 의해서 발표되기도 했다. 그 상황에서 북한군 잠수함이 공해를 돌아 백령도 근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뢰를 쏘아 단 한방에 명중시키고 다시 공해로 돌아서 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된다. 북한 잠수함은 귀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향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물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책임자로 적시한 것이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당장 취할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된 것들이 별로 없다. 천만 다행이긴 한데, 뭔가 언짢은 기분이다. 심리전은 유보되었고, 한미 연합 훈련도 유보되었다. 안보리 제재 건도 별로 진도가 나지 않는다. 중국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러시아는 직접 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고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 못지않게 서슬 퍼렇던 미국도 한발 빼는 모양새다.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신들은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다가 한국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려면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합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단장을 비롯해서 일부는 알려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온 분들이 군수산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양심껏 조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사의 주체도 민간이 아니라 군이라고 한다. 모든 정보를 군에서 장악하고 있다. 군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모든 걸 충분하게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의 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서 침몰시켰다고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국방 장관을 비롯하여 군수뇌부도 그렇게 확신하는 것일까? 그들의 행동에는 그런 확신이 없어 보여서 하는 말이다. 위에서 짚었듯이 당장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보인 그 기세가 시간이 갈수록 숙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분출되고 있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못한다. 둘러막기 식의 이런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또는 6.2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들이밀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이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미제사

건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았다. 그래야만 적당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원칙적으로만 말하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나는 아직도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호전성이 다분하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 해군의 연합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화약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꼴이 아니겠는가. 천안함이 이명박 정권의 결정적인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0년 6월7일)

## -노무현 전(前) 대통령 2주기-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였소. 추도식이 거행되는 봉하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가 내렸소. 그분은 내가 제대로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로 중심으로 지지한 첫 대통령이 었소. 1973년에 선거할 나이가 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선거권을 휴지조각이 되게 했소.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아예 관심 밖이었소.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군사정권을 종식시키지 못한 책임이 너무 크오.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 나는 집사람과 환호성을 질렀소. 그의 대통령직 수행은 순탄치 못했소. 처음부터 그를 반대한 이들은 접어두고, 그를 지지했던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지지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서 모르겠으나, 끈질기게 비판했소. 노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비판한 거요. 그들은 좌우(左右)라는 이념보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놓친 거요.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소.

이미 역사는 흘러서 되돌릴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았소. 노 대통령이 고향 봉하 마을에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가정이오. 대통령직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간 그의 일성은 '기분 좋다!'였소. 대통령 시절보다 고향에서 농부로 지내는 시절이 그에게 정말 기분 좋은 시절이었을 거요. 그건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 거요. 퇴임한 대통령이 농부로 사는 모습은 그것 자체로 큰 메시지를 전하오. 매일 수백 수천 명이 봉하 마을을 찾았다 하오.

혹시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오.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건으로 시비가 붙더니 박연차 건으로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의 전형으로 몰아갔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소. 검찰이라는 권력이 어느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때 여실히 보았소. 그때 주구(走狗)라는 단어의 실체를 본 거요. 요즘 한명

속 전 총리를 향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을 거요. 당시에 벌어진 일이 언젠가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거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요. 그는 무슨 일이 있었어도 전임 대통령을 보호했어야만 했소. 비호하라는 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었어야 한다는 말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보호했어야만 한 거요. 누구의 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에게도 올무가 될지 모르는 일을 저질렀소. 누가 보더라도 더러운 잘못을 저질렀다면 전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요. 그게 아니었으니 하는 말이요. 노무현과 박연차는 호형호제 하는 관계로 젊었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다 하요. 아쉬울 때 돈을 얻어다 썼소. 권양숙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박연차에게 몇 번 도움을 받은 것 같소. 그게 꼬투리가 된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어찌되겠소? 그의 퇴임 후가 심히 걱정이 되요.

우리는 귀한 전임 대통령을 2년 전에 잃었소. 퇴임 후가 더 아름다웠던 대통령, 그래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큰 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 쓴 글을 링크로 걸어두겠소. 내 생각을 그대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오. 그 아래 기타는 다른 분들이 다비아에 올린 것들이요. (2011.5.23.)

## 반값 등록금과 최저임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요즘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설왕설래가 많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사실 이것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다. 편의점 알바들은 3천원도 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애초 5,410원을 요구하다가 5,320원으로 조정해서 요구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0원 오른 4,350원을 주장하고 있다. 0.7% 인상이다. 옆으로 나가는 말이지만 노동과 경제 전문가들이 끝자리를 왜 100원 단위가 아니라 10원 단위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10원짜리 동전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실정인데 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사이는 1천원 쯤 차이가 난다.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500원이 인상된다면 시간당 5천원이 조금 못된다. 계산하기 좋게 5천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해보자.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일당이 5만원이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하면 150만원의 월급을, 일주일에 이틀을 쉬면 11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한 가족이 살기는 힘들고, 혼자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다. 도시생활을 전제한 이야기다. 만약 시골에서 산다면 50만원만 있어도 부부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판사나 검찰의 고위직에 근무하다 변호사로 나선 이들은 한두 해 동안 법조계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믿기 힘든 말이지만 어떤 이는 일 년에 50억, 100억을 벌기도 한다. 기업 임원들도 연봉이 최소 몇 억에서 몇 십억에 이른다. 모두는 아니지만 의사들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아주 드물지만 목사들 중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긴 하다. 한국의 임금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뮬거리의 핵심이다.

다 아는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다. 학열에 불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학졸업자와 그렇지 못한 이의 임금 격차가 근본 이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임금 격차를 줄이지 않은 채 등록금만 반값으로 하는 건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한다. 특히 일종의 사기업처럼 운용되는 사학 중심의 대학 구조에서는 더 그렇다. 공립 대 사립의 비율도 대한민국이 최고라 한다. 자칫 대학이 물먹는 하마처럼 돈만 삼키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늘어지는 것 같으니, 그만 줄여야겠다.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이다. 임금격차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대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기초가 되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은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치열하게 자본주의의 체제에 길들여진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재계를 향해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충고하는 걸 보니,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긴 한다. 어쨌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데서만 존재 이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런 사회전반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일익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2011년 6월29일)

## 18대 대선

### (1)

앞으로 18대 대선 선거일이 8일 남았다. 목사가 세속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의 정체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단상 형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하려고 한다.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말고, 재미로 읽으시기를...

(존칭 생략) 어제 대선후보 2차 토론방송을 보았다. 다들 알겠지만 저런 공개된 토론은 보통 담력으로는 잘하기 힘들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다고 해도 현장의 상황을 적절하게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타고났거나 많은 훈련을 거친 사람이 아니면 대개는 그 현장에서 버벅거리기 일쑤다. 세 후보는 나름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진행 방식이 너무 단조로웠다. 네 번째 주제만 각각 3분씩, 양자 합쳐서 6분씩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주제를 그렇게 진행했어야만 한 게 아니었을지. 이런 자유토론으로 진행하면 말만 잘하거나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토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욕신각신하는 게 있어야 한다.

단 한 번의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것으로는 활발한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번 토론 형식은 전혀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하더라도 선거 캠프에서 준비해준 원고를 그냥 읽어도 될 정도다. 이번에도 가장 돋보이는 후보는 이정희였다. 그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후보를 주로 공격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다. 정희.



사회자는 그의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 품격 운운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듣는 처지에서 따라서 거칠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정희는 박근혜에게 30여 년 전에 전두환을 통해서 받은 6억 원과 모 건축회사로부터 받은 대저택(?)의 세금을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세금을 확실히 내야 하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통해서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박근혜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시에는 경향이 없어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처리하겠으며, (지난번 말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좋은 점수를(동정점수라 하더라도) 받았을지 모른다.

박근혜는 이정희를 향해서 후보 사퇴로(아직 사퇴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국고 보조금만 챙기는 먹튀 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담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해 있는 게 역력해 보였다. 웃는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나머지 두 분은 비교적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사실 그런 자리에 나가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나도 교계 모임에서 패널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내 기억에 죽을 쑜었다. 박근혜는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강력한 경선 후보였고, 지금도 스스로 말하듯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후보인데 왜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 내가 보기에 두 가지다.

1)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식견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컨대 그가 주장하는 “줄푸세” 경제노선이 경제민주화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2) 맞토론 문화에 낯선 것처럼 보였다.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서로 일대일 토론은 불편해한다

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토론을 지켜본 나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 다음에는 밝은 표정과 여유로움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문재인은 이정희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자의 멘트처럼) 품격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정책이 어떻게 박근혜와 다른지, 또 이정희와 다른지를 정확하게 짚었다. 재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박근혜는 재벌의 개량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정희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이고, 문재인은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마 지난 참여정부에서 얻은 국정 경험이 국가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토대가 된 게 아닐는지. 다음 3차에는 이정희가 빠지고, 박근혜와 문재인 둘이 맞토론으로 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 역할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다. 말만 앞서고 삶이 뒷받침이 못 되는 사람도 대통령감은 아니다. 다만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식견과 품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 (2)

(존칭 생략) 나는 유신시대에 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다.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유신헌법 아래서 그야말로 거울공화국 국민으로 살았다. 당시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뽑혔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의 지역 대표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모여서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표를 던져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연임제한 없이.

그 지역 대표자들은 물론 선거로 결정되지만 모두가 지역 토호들이었기에 박정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20대 초반 중반의 나는 왜 야당 경향의 사람들이 그 지역 대표로 나서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시 투표권을 얻은 나는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다. 투표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그렇게 चुके 보냈다.

박정희의 딸로서 당시 5년 동안 퍼스트 레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가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유력한 후보의 자리에 올라있다.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표지 인물로 박근혜를 실었다. 제목은 “스트롱맨의 딸”이다. 스트롱맨은 독재자라는 뜻이 강하다. 한국 신문이 권력자 등으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다음 인터넷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재자의 딸(dictator's daughter)로 표기했다고 한다. 물론 독재자의 딸을 독재자와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 또한 박근혜가 박정희의 독재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당시 20대 중 후반이었을 박근혜에게 많은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박근혜의 삶이 비운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대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흉탄으로 잃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역사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버지가 독재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버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 가족들이 풍비박산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천륜을 거스르라는 강요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그럴 수 없다. 박근혜가 육영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 물질, 인적 자원도 충분하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의 뜻을 좋게 보아줄 수는 없을까? 국가를 사랑하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까? 인정할 수 있다. 선의와 진정성은 바로 박근혜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독재자들도 모두 선의와 진정성이 있었다.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다. 북한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에는 배짱을 부릴만하다. 박정희의 딸이 막강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막강하다는 증거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콘크리트와 같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게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 거의 막장 수준인 이명박 정권보다는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퇴행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퇴행은 임상의 대상이다.

(3)

(존칭 생략) 이번 18대 대선 후보는 7명이다. 앞으로 사퇴할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대로다. 이 중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 5명의 지지는 합쳐봐야 2%나 될는지. 지나치게 편중되었다. 이게 민심이라면 민심이다. 일곱명 중에 세 사람이 소위 노동자를 대변하는 좌파 대표들이다.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가 그들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은 예비 후보로 뛰다가 등록 전에 문재인을 지지하고 사퇴했다. 진보 쪽에서 한 명만 나와도 힘이 벅찬 상황에서 세 명이 나왔으니 표가 모일 리가 없다. 이게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현주소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색깔을 너무 강하게 내세운다. 차이를 침소봉대의 방식으로 확대하다 보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분열을 반복한다. 대한민국 교회는 보수측이 잘 갈리는데 정치는 오히려 반대라는 게 재미있다. 민노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렸고, 다시 몇 세력이 합해서 이뤄진 진보 통합당이 지난 총선 경선 문제로 극한 내부투쟁을 거쳐서 진보정의당으로 갈렸다. 이런 상태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슷한 노선의 진보정당이 진보통합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으로 나뉜다. 아마 녹색당 비슷한 정당도 있을지 모른다.

지난 진보통합당 비례 대표 경선에 얽힌 문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진보당 체면을 완전히 구긴 사건이었다. 누가 옳고 그름은 둘째 치고 모두 망하게 한 사건이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미스테리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두자. 그 과정에서 이정희는 많은 걸 잃었다. 진보의 아이콘, 또는 여자 노무현이라고 일컬어

졌던 그가 완전히 종북좌파로 낙인찍혔다. 그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이미지까지 덮어썼다. 추후 검찰에 의해서 이정희로 대표되는 당권파보다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비당권파의 부정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얼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이정희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일종의 마녀사냥이 나 마찬가지로였다. 그 후유증이 앞으로 10년 이상 가지 않겠는가. 가 능하면 빨리 씻겨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로 자리잡을 날 이 올까?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분단 체제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친미적이라는 것도 이유가 된다. 외부적 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진보 쪽 인사들의 잘못도 크다. 당사자들 도 속으로 크게 반성했을 것이다. 아직 치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이정희는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완주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지 않아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퇴 시기는 3차 토론이 끝난 직후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의 사퇴로 인해서박근혜와 문재인이 대결에서 0.5% 차이로 문재인이 이겼으면 한다. 문재인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민통합의 시대가 전개된다면 그때 이정희의 활로도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겠는가. 그 활로라는 게 아주 유동적이지만 말이다.

#### (4)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박근혜와 문 재인의 지지율이 박빙, 혼전이라고 한다. 크게 보면 4%, 작게 보면 2%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한국일보만 제외하면 모두 박근혜의 우 세다. 여당 측은 굳히기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야당 측은 뒤집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누가 옳은지 아는 데는 5일이면 충분하다.

지지자들에 대한 분석이 재미있다. 지역적으로 박근혜는 영남과

강원, 제주, 인천, 경기이고, 문재인은 전라와 서울에서 높다. 충청은 난형난제다. 나이별로 보면 박근혜는 50대 이상에서, 문재인은 40대 이하에서 지지율이 높다. 여자는 박근혜 쪽으로, 남자는 문재인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특이한 현상은 직업별 지지율이다. 박근혜는 농어업, 블루칼라, 주부, 무직, 기타에서 높고 문재인은 화이트칼라, 학생에서 지지율이 높다.

영남과 전라의 지역적 차이는 어쩔 수 없다. 87년 체제 이후 3당 합당에 의한 고질병이다. 박정희를 비롯해서 이후 대통령은 거의 영남권 인사들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지금 박근혜와 문재인도 역시 영남권 인사다. 김영삼과 노무현 사이에 김대중만 전라도다.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경상도 사람들이 권력욕이 강한 건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남북통일이 이뤄지든지, 2017년 대선에서 영남과 전라 인사를 제외하든지.

지지자들의 분석에서 재미있는 것은 소득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높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그런 것 아니지만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 박근혜가 더 서민적이라는 뜻인가? 좀 우습지 않은가.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한국교회 현상과 비슷하다. 민중 성향의 교회에 실제로 민중들은 가지 않고, 소위 식자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간다. 여자들이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더 많이 지지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뜻밖이었다.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여자 목사를 선호하지 않는데, 정치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나이가 든 분들이 박근혜를 더 많이 지지한다는 것도 뜻밖이다. 그들은 가부장적인 분들이 아닌가. 이를 계기로 여성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느 누군가 한 말이 기억난다. 생리적으로 여성인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5)

대구와 경북 지역은 새누리당 박근혜 지지가 압도적이다. 내가

나가는 하양의 테니스 동호회를 보더라도 8대 2 정도로 박근혜가 우세하다. 일전에 테니스 동우회원들과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들의 논리는 박근혜가 대통령감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감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재인 비판은 소위 조중동 신문의 복사판이다. 문재인은 친노파이며, 북한에 퍼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결국 북 잠수함이 천안함을 공격 침몰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문재인은 빨갱이다. 그것은 어떤 논리 이전에 맹목적인 확신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보라고 내가 말하자 그들은 더 자세한 말을 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다. 그래서 내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북한 체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에 종북좌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독일에도 나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소수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불량한 북한을 어떻게 대하는 게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나가야 할지,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지, 아예 외면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질 좋은 노동력을 남한의 산업기술과 융합시키는 게 시급하다. 지금 이명박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가 꼬인 탓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이건 실리적으로도 큰 손해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로 그들을 설득시킨 것은 아니고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조금 누그러진 것뿐이다. 일전에 시사토론에서 새누리당 쪽 패널이 한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 정권이 내린 5.24 조치가 오히려 미흡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남북관계를 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남북관계는 지독한 냉전으로 흘렀다. 그 패널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모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의 참모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다.

대통령은 선장과 같다. 항해 중에 만나는 어려움은 결국 선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천안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는 이명박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의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당시 미국 국민이 부시를 선택했다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 (6)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국교회는 대체로 이명박을 지원했다. 그가 장로라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고, 당시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다.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8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교회와 기독교인은 구별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80%가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80%가 보수적이라는 말이다. 이는 곧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보수적이라는 말도 된다. 나머지 신자들은 거기에 묻혀서 간다.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그들은 교회를 대변하지 못한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다 보수적이라고 봐야 한다. 한기총에서 활동하는 목사들을 보면 그게 확연하다.

한국교회는 왜 한결같이 보수적인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사실 나도 보기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다. 기독교의 근본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예배도 전통적인 예전 형식을 취하며, 평신도 설교권에도 우호적이지 않다. 신앙의 근본에서는 보수적이지만 그것이 구현되어야 할 세계관에서는 진보적이다.



그걸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역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뜻이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분단체제와 그런 경험이다. 남북분단은 한민족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일종의 트라우마다. 해방 이후 북한에의 수많은 지주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로 땅을 강제로 빼앗기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대표적으로 영락교회(한경직 목사)가 크게 성장했다. 영락교회를 끌어가던 사람들 대다수가 월남인들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반공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에 덧붙여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또 하나의 큰 요인이다.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는 나쁘다는 생각이 지배했다. 한국교회의 이런 정체성이 바뀌기는 요원하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진보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사실 문재인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문재인을 좌파 운운한다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다. 박근혜는 어제 대선후보 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걸어 문재인을 공격했다고 한다. 종북 좌파적인 전교조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다. 전교조는 종북, 좌파도 아니고 진보라고 할 수도 없다. 거칠게 말해서 그들은 전반적으로 중도다. 비인간적인 교육 제도를 인간적인 체제로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좌파다, 우파다 할 것 없이 당연한 것 아닌가. 박근혜가 전교조와 문재인을 좌파로 매도한다는 것은 그가 지나칠 정도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사람의 시각은 그가 서 있는 데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들은 나를 자유주의 신학자, 심지어는 좌파 목사라고 한다. 그분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것은 그런 요소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서의 역사비평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자유주의로 보이는 것이다. 성 소수자와 페미니즘, 대체군 복무 등을 지지하는 내 입장이, 그리고 타종교에 대한 열린 입장이 그들의 눈에 좌파, 또는 자유주의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데에야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물론 그분들의 목회적 진정성은

훌륭하다. 그러나 신학의 토대가 편향되거나 부실하거나 왜곡되어서 세상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의 진정성은 높이 사야한다. 애국심, 자기절제능력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60살까지 미혼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직에 필요한 더 소중한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여준 씨가 찬조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는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기보다는 대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 김종인 씨와의 관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의 이런 성품 자체를 내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다만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나 하는 것이다. 윤여준 같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으로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7)

내일이 18대 대선 투표일이다. 날씨가 몹시 춥다고 한다. 이런 날씨에는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번에는 다를지 몰라도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누가 당선되든지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이 당장 바뀌는 건 없다. 여전히 교회를 돌보고, 글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원당이라는 촌으로 들어간다. 소위 귀촌이다. 원당으로 들어가면 테니스 운동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텐데, 지금부터 그게 좀 걱정이라면 걱정이 다.

내 두 딸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 그걸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도 가슴이 답답한 일이 많았으나 그냥 세끼 밥 먹고 잘 살았으니, 잘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젊은이들의 취업을 비롯한 인간다움 삶에 대해 진정성을 갖춘 대통령과 그것을 맡은 하지

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은 어떤 결정적인 사태 앞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 목사의 성경관, 세계관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달라지며, 거기에 따라서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달라진다. 신자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옳다거나 교회의 관행이니까 옳다고 따라갈 뿐이다. 성경 문자주의에 빠진 목사의 설교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따른다. 십일조를 절대적인 율법이나 기복의 수단으로 강요해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나름으로 교회가 재미있게 운영되니까, 그리고 목사의 목회적인 열정이 있으니 다 통용된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교회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훨씬 효율성이 높기도 하다. 또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은 고유한 방식으로 활동하시니까 각각 신자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다만 그런 방식의 신앙 패러다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적인 퇴행에 떨어진다는 건 분명하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슬로건을 자랑스러워하고, 성속이원론, 개교회 이기주의, 기복주의, 교회 분열과 싸움, 도덕주의, 친미사대주의, 사회적 마이너티를 향한 독선에 찌들려 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성경 문자주의에 빠진 목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이번 세 차례 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더 분명해졌다. 앞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등의 정상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벌여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안타깝지만 아쉬움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며,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쥐고 흔드는 한기총이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한계이며, 운명인 것과 같다.\

내일 우리 집은 두 딸을 포함해서 4명이 투표한다. 딸들이 다른 건 내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 문제에서만은 기특하게도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최선이 없는 경우에는 차선을 선

택하고, 최악과 차악이 있을 경우에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역사의 진보를 내다보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모두 투표하시라!

(8)

어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씨가 100만 표 차이로 문재인씨를 이겨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비율로 보면 51.6대 48.0으로 3.6% 차이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과 전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지역에서 박근혜씨가 이겼다. 이런 정도면 완승이다. 박빙이 될 거라는 내 생각이 틀렸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정치 평론가도 아닌 사람이 이에 대해서 뭘 말하겠는가.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나의 실존적 영성에 근거해서 한마디만 하자. 첫째, 모든 역사는 진보다. 겉으로는 유신시대로의 후퇴처럼 보이더라도 크게 보면 미래로의 진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빛난다. 유대인들은 광야 40년과 바벨론 포로 50년 동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한다. 우리에게 최선은 기다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의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 그분도 나름 최선을 노력할 것이다. 지금 정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더는 4대강 사업 같은 걸 반복하거나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경제 민주화를 입에 담았던 분이니 구조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한계도 알 터이므로 국민소통과 민주사회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대했던 분이 대선에 실패해서 실망스러우나 오늘도 저렇게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뭐가 아쉬우랴. 나의 일상에 더 충실해야겠다. 교회를 더 성실히 돌보고, 책읽기와 글쓰기와 강의를 잘하고,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더 배워야겠다. 그리고 투쟁할 일이 있

으면 투쟁하고 ...

대선 결과에 만족하는 분들이나 크게 낙심하는 분들이나 모두  
힘내시라. 그리고 잊지 마시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2012.12.20.)

## 노무현과 엔엘엘

지금(2013년 6월25일 오후)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 어제 국정원이 2007년 가을에 있었던 노무현과 김정일 양국 정상 대화록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국내 시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난 대선 전부터 이어온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나도 여기서 그걸 재론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것만 짚겠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수구적 논조의 매스컴은 노무현 전대통령이(이하 모든 이들의 존칭 생략) NLL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공 기록물이나,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이 편법으로 재정립한 대로 일반 기록물이나 하는 논란은 여기서 접어두자. 그 기록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100여 쪽에 이르는 원본이고, 다른 하나는 20여 쪽에 이르는 발췌본이다. 노무현을 마치 매국노처럼 여기는 이들이 본 것은 발췌본이다.

발췌본을 누가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쓰는 이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말이라는 것은 토씨 하나로 뜻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토씨만이 아니라 억양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문서는 허물없이 대화하는 녹음 녹취를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회담 당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 발췌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NLL은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이라는 뜻의 영자 ‘northern limit line’의 이니셜이다. 휴전선을 굿듯이 유엔과 북한이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유엔이 일방적으로 정한 서해 경계다. 그것도 국경선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남쪽 군함이 더 올라가지 않아야 할 한계선이다. 그것은 우리 해군을 보호하기 위한 선이었다. 그게 차츰 우리의 머릿속에 국경선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객관적 팩트다.

미국 정보국도 그렇게 인정한다. 엔엘엘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심정적으로 국경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엔엘엘로 인해서 서해에서 남북이 반복적으로 군사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좀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걸 감정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무개가 대한민국 국군이 피를 흘리며 지키려고 했던 엔엘엘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식이다.

엔엘엘이 국경선이라고 해도 좋다. 발췌본, 또는 원본 대화록에서 노무현은 엔엘엘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무력화시키지도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한 국정원 책임자들이나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그들도 노무현이 ‘포기’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대담이어서 굴욕감을 느꼈다는 주장도 허위라는 게 드러났다. 그 발언은 김정일이 중국에 다녀온 김계관으로 하여금 노무현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곳에서 브리핑한 것을 가리킨다. 내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와전된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노무현의 어투가 아주 직설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임기 초기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오래도록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뉘앙스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발언 몇 마디만 축자적으로 인용하면서 비판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

노무현은 외교를 장사로 여겼다. 장사는 이득을 남겨야만 한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래를 잘해야 한다. 거래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기분을 일단 맞춰줘야 한다.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중국에 가서는 주석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노무현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특히 단독 회담에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건 당연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가능한대로 진지하게 청취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노무현이 김정일의 말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고

요 … ” 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해서 그가 김정일의 생각을 무조건 따랐다고 말하면, 그는 거래가 이뤄져야 할 대화의 기본 기술도 기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다. 노무현은 그 정상 대화에서 분쟁이 잦았던 서해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토대를 놓고 싶어 했다.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듣기 좋은 말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정원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가리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는 표현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대통령 기록물을 20~30년 동안 비밀로 한다. 국정원은 그걸 일반 기록물로 어제 오전에 재편성하고, 오후에 공개했다. 군사작전과 다를 게 없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불행의 씨앗들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사건의 후유증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왜 죽은 노무현까지 끌어내서 마치 부관참시하듯 모욕을 주려는 것일까? 실제로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것일까?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 없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국회가 결의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원본을 공개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자해에 속하지만,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이 사태가 너무 위중하지 않은가. 이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현직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25일 오후)



## 대선 일주년

5년마다 12월1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작년에 우리는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듯이, 반장이 되었어도 학년이 달라지면 더는 반장이 아니듯이 대통령도 임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그걸 말한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 샘터교회 교우 한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다시 유신 시대로 회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나는 그래도 지난 정권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거라고, 여성이고 이미 오래전에 김정일과도 만났고 유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통합을 유난히 강조했으니, 그리고 젊었을 때 부모를 잃은 아픔이 있는 분이기엔 나름으로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났다. 얼마 전에 내가 그분에게 내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지난 일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 한복 잘 차려입고 나름으로 외교활동을 한 것이 기억난다. 북한과의 관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다. 이런 문제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국민통합이 완전히 거덜 났다는 데에 있다. 여권과 야권의 대립이야 늘 있었던 거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사실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 딱하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 선 적은 한 두 번 있는 듯하나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끝냈을 뿐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내 기억이 틀리면 지적을 바

란다.

이런 대통령을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직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는 자리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걸 못했다. 예컨대 통진당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지난 총선에서 일정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니 다음 총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법무부를 통해서 정당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감정적인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다.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실증적 단서들이 드러났다면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녹을 받고 움직이는 공권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기를 흔드는 행위이기에는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다. 자기로서는 정도를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법원의 판결이 나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참모들의 의견을 따른 건지 알 수 없지만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참 웅색한 태도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기독교계에서도 서로 배치된다. 한쪽은 비판적이고, 다른 한쪽은 방관 내지 옹호에 가깝다. 비판적인 기독교인들은 개혁적인 인사들이라면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인사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협의회(KNCC, 교협) 쪽은 비판적이고, 한기총 쪽은 우호적이다. 교협 인사들은 비교적 진보적이면서 신학적으로 개방적이며, 교회 민주화와 일치, 사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한기총 인사들은 교회 성장주의에 치우치며 성서에 대해서 문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동성애자나 군거부자들 같은 사회 소수자를 무시하고 배척한다.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한기총 쪽 인사들은 박 정권을 지지한다. 얼마 전에는 그들이 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일 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박 대통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게 어렵지 않다.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남북 정상 회담록을 공개한 국정원장의 사표를 받고,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서 국정을 의논하면 된다. 기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대선 일 주년인 오늘 마음이 착잡하다.  
(2013.12.19.)

## 문창극과 박근혜

어제(24일)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두 주 동안의 소용돌이 끝에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유 불문하고 자진 사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한마디 하고, 더는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문창극 씨는 민주주의 운운하며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국회가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법보다도 여론에 휘둘려서 결정하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요지였다.

그분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름으로 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치국가를 향한 열정,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이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찝찝했다. 물러가는 마당에 무슨 말이 저리 많을까, 끝까지 누굴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문제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문창극 씨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보도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시 한다. 사실 관계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에 재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해서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는데도 국회가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면 모를까, 재가하지도 않은 총리를 대상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연다는 말인지. 문제의 출발은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요청서에 재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밝혀진 건 없다. 그건 대통령의 전권에 속한다. 아무리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떠들고 야당이 법석을 쳐도 대통령은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고 재가할 수 있다. 재가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여론을 의식한 탓일 것이다. 야당은 원래 비판적이니 그렇다 하고, 여당의 일부도 문창극을 반대했다. 심지어 이번에 여당 대표로 출마한 의원들도 상당수가 드러내놓고 문창극의 사퇴를 주장했다.

다. 여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창극 씨가 청문회를 거친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여론이었다.

문창극 씨가 여론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하려면 국회나 기자들이 아니라 먼저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문창극 씨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온누리 교회 장로로서 조용하게 잘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 뒤에 결국 불명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 책임이 자신이 말한 대로 결국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닌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총리 인사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게 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청문회까지 가도록 청문 요청서를 재가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에게 따질만하다. 그런데 그는 ‘그분’이라고 칭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그게 잘 안 됐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는 말만 했다. 그에게 대통령은 기독교적인 믿음의 대상이다.

이번 문창극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교회의 실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내로라하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문창극 씨를 지지하는 발언과 성명서 발표 등을 했다. 그건 그들의 자유이니 내가 뭐라 할 건 없다. 이 자리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행한 간증 유의 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다. 이런 건 시시비비만 불거질 뿐이다. 내가 간단하게나마 코멘트 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왜곡된 세계관과 역사관을 호도하는 행태다.

일제 강점기 친일에 앞장 선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전투기와 전투함을 만들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설교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약간 씩 차이가 있다. 친일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일 수 있고, 일본의 잘못을 알지만 일단 생존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마 어쩔 수 없이 친일적인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한일합방의 최고 책임자인 이완용도 할 말은 많다. 당시 조선이 그대로 있으면 결국 미국, 러시아 등의 열강에게 먹힐 텐데, 그것보다는 일본과 합방하는 방식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이런 세계관, 이런 역사관으로 살았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며, 이런 일은 지금도 반복된다.

나는 문창극 씨가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연과 칼럼 곳곳에 한민족 비하로 비칠만한 내용이 언급되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당시 민중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다. 물론 예레미야는 당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꿰어보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허황한 낙관주의를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기 민족을 비하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지 문창극 씨가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을 방어한 행위에는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자신은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테니 말이다. 억울하다는 그의 심정이 이해된다.

문제는 그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퇴행적이어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데에 있다. 그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기도 하다. 민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난다. 모두 애국자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안목은 깜깜하다. 하나님의 뜻에 숨어서 악과의 싸움을 거부한다. 군사독재가 나서서 역사를 훼손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 빈익빈부익부, 경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도 기도만 할 줄 알지 그 역사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들은 결국 역사허무주의나 숙명주의에 빠진다. 한국의 주류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문창극 씨에 따르면 육이오 전쟁은 미군을 남한에 주둔하게 해서 게으른 한민족이 몽땅 공산화되는 걸 막아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그것은 민족상쟁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너무 오랫동안 가

로막은 악마의 음모다. 한일합방도 악마의 뜻이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현실 역사에서 악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죄를 거부하라는 성서기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문창극 씨는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와 매스컴과 여론에 묻지 말고 자기를 지명했으나 청문 요청서를 재가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물어야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연달아 잘못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든지 아니면 문창극 씨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했다. 좌고우면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남에게서 찾는 것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책임추궁 앞에서 이브에게 책임을 미룬 아담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인지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요즘 말로 유체이탈이다. 어쨌든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목사로서 걱정 반 체념 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를 숨겨 두셨으리라. (2014년 6월25일)

## 세월호 참사 100일

오늘(7월24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476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4월16일 오전에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해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74명이 구조되었다. 사망자와 실종자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다. 그들의 나이는 열일곱 살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 세상에는 천재지변도 많고 인사사고도 잦다. 비행기도 떨어지고, 배도 침몰하고, 큰 건물도 무너지고, 태풍이 몰아치고 화산도 폭발한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군대에 가서 죽는 청년들도 있고, 대학교 엠티에 갔다가 죽기도 한다. 불치병에 걸려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세월호 참사도 그런 것 중의 하나로 본다면 더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의 과적 문제, 해양 관제탑 직원들의 무책임한 근무태도, 선박 관계자들의 관료주의,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안전 불감증과 생명 경시 풍조를 반성하고 대책들을 강구하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고 당시 선실에 남아 있던 304명의 승객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그것도 망망대해에서 일어났거나 태풍으로 전혀 손을 쓸 수 없다거나 어뢰 공격으로 인해 배가 두 동강 난 상황도 아닌 데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 안에서 ‘그대로 있으라.’는 말만 듣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단원고 사망자 학생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기록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심지어 동영상도 나온다. 그걸 통해서 당시 상황과 학생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충분히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자신들보다 판단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곁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들이 ‘아, 살고 싶다.’는 문자를



남긴 순간은 이미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때였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막연하게나마 ‘설마 죽기야 하겠나.’ 하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뛰쳐나왔을 것이다. 나도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되고 있다는 사고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인명 피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구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끔찍했다. 4월16일에 벌어진 일이 나에게서는 여전히 불가사의다.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두 가지다. 하나는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배를 떠난 선장을 비롯한 선박 승무원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다. 배가 침몰의 위기에 이른 걸 알았다면 퇴선 안내를 즉시 내렸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고 이후 해양 경찰이 구조 활동을 왜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재난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자신들이 아니라 안정행정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이라고 말한다. 정부 편제만 놓고 볼 때는 그 말도 맞을 것이다. 맞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중대본의 잘못은 곧 대통령의 잘못이고, 그것은 곧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이다.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전례가 없이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은 문서와 전화로만 보고를 받았지 오랫동안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 긴박한 시간 첫 서면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대본에 들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했다. 중대본에 들린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그렇게 찾기 힘들냐, 하는 말을 했다. 학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거로 여겼다는 말인데, 이는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당시 학생들은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였다. 이렇게 해서 구조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렀다.

그 이후의 구조 활동도 웃기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티브이에서는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는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실제적 사실이다.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3백 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있는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고 있다. 유리창문을 통해서 구조해달라는 승객들의 모습도 비쳤다. 그 상황에서 해양경찰은 모조건 유리창을 깨고 승객들을 구조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야만 했다. 선체가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이후도 마찬가지다. 그 시간에 구조 전문 잠수부대가 그곳에 와 있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에어포켓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했었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삼백 명이 갇혀 있는 고층빌딩에 불에 휩싸였다고 하자. 소방대원들은 생명을 담보하고 불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구조대원들이다. 이번에 해경이 한 일이라고는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승객들을 건져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대다수는 부근의 민간 어선들이 했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청와대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인지. 그들도 나름으로 대책을 세우긴 했겠지만 결과물이 전혀 없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선원들을 비롯해서 해양 업무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출선해서 저야 하는 게 아닐는지.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사태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진작 사표를 냈다. 우여곡절 끝에 사표가 반려되고 다시 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시추에이션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특히 17세 아들과 딸을 졸지에 잃은 부모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일정 기간 대통령 업무를 총리에게 위임하고 자숙하면서 지내야 옳을 것이다. 대통령이 없어도, 또는 잠시 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일은 없다. 그게 아니라면 내각 총사퇴가 답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개조, 적폐일소를 외쳤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속되 표현으로 국민을 졸로 본다는 거다.

지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소위 ‘특별법’ 국회통과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고, 여당과 야당도 합의했다. 처음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 오늘 참사 100일 되는 날까지 소식이 없다.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서 관건은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될 조사위원들에게 현재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그 알량한 법, 예수님 당시에 도(율)법이 사람을 죽였다. 야당은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검찰을 통해서 행사하자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니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실제적인 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 여야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유족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한다.

세월호 피로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분들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세월호 건으로 인해서 동력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 가족이 죽어도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유가족은 단순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참사를 당해서 죽었다는 슬픔만으로 이런 특별법 운운하는 게 아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끔찍한 사건을 개인의 불행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개혁의 단초로 삼아보려고 노력한다. 그 단초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의 실제적 진실을 찾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 조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현재의 국회 수준으로는 다시 정쟁으로 떨어질게 뻔하다. 청와대까지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건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유가족들이 검찰도, 국회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의 이런 생각이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무자 몇몇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낸다면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

고,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유병언 체포에 ‘올인’한 것만 봐도 그게 드러난다. 유병언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이상한 일이다. 유병언이 마녀가 되어버렸다. 그 마녀만 잡으면 세상에 악이 없어지고, 백성들의 분이 풀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는지. 요즘 이미 40일 전에 발견되었으나 이제야 유병언으로 확인된 유병언 변사체에 관한 유언비어가, 이것처럼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의 소재도 없는데,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 유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 그런 일에 대한 나의 열정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역시 내게 직접 닥친 일이 아니니 말만 많은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일을 하면 된다. 나는 지난 7월1일 대구경북 지역 장기수 어른들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서에 서명했다. 그 외에 여러 모임에서 연락이 오지만 대구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핑계로 잘 참석하지 못한다. 나는 남을 판단하려고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평생 떨쳐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 꿈에도 잊지 못할 4월16일 이후 100일을 버텨 온 이들과 마음으로나마 연대한다는 심정으로 꼼짝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014년 7월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가 청구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모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긴급 뉴스의 한 대목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해체된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고,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된다. 통진당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가지각색이다. 헌재의 결정이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훼손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민국 법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한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건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은 그 논란에 대해서 알 것이며, 지금도 전문가들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나는 그들보다 정확한 걸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의 견해만 간단히 밝히겠다.

헌법재판소는 예수 당시의 유대 산헤드린과 비슷하다. 산헤드린은 최고위 성직자들과 율법 학자들 70여명으로 구성된 당대 최고 법정이었다. 산헤드린 의원들은 오늘의 대법관이나 헌재 법관처럼 유대사회의 법적 정통성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은 공부도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다. 그들은 평생을 걸쳐서 유대사회와 유대교 전통을 수호한 사람들이었다.

산헤드린과 기독교와는 인연이 깊다. 우선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재판했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적용시켰다. 유대사회에서 신성모독죄는 죽음에 해당된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형을 실행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회소요죄로 로마법에 고발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안다.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실행한 로마 총독보다는 그렇게 사태를 끌고 간 산헤드린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

사도행전 앞 대목에도 산헤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산헤드린에 의해서 온갖 핍박을 받았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을 거스른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대교 체제가 흔들리는 걸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산헤드린 의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태도다. 그는 산헤드린 동료들이 베드로는 비롯한 사도들을 처치하려고 하자 다음과 같이 중재에 나선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저 사람들의 소행이 참된 게 아니라면 가만 두어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될지 모르니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적당하게 징벌을 가하고 모두 풀어주는 게 좋다는 것이다. 산헤드린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따른다(행 5장).

나는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여덟 분의 현재 재판관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세하게 모른다. 그분들이 쓴 책이나 글을 읽은 기억이 없고, 어디서 판사와 검사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 재판관의 자리에 올랐다면 대한민국 법에 정통한 분들일 거라고 추정할 뿐이다.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만한 분들일 것이다. 그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게 옳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의 진정성은 믿고 싶다. 그런데 왜 나는 그들의 결정에 동의가 안 되는 걸까?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하다. 현재의 이번 행태에서 법의 과잉이 눈에 보인다. 법은 그것 자체가 선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준거도 물론 아니다. 법은 사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안전장치다. 법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세상이 목표다. 법은 수단일 뿐이다. 법이 과잉되면 그 사회는 병든 거다. 종교법이 과잉되면 그 종교도 병든 거다.

다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자. 그때 법은 율법이었다. 율법은 모세의 권위에 기대서 유대사회를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키는 규범이었다. 아무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다. 율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이들은 서기관이고, 그 율법을 삶으로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다. 당시 시대적 특징은 율법의 과잉이었다. 율

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사람에게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다. 실수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일종의 확신범이었다. 예수님은 이 문제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법 만능주의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통진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국회의원 비례 대표 선정 과정이 서툴기도 했고, 비민주적이기도 했다. 통진당에 속한 국회의원 중에는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급기야 이석기 전의원의 ‘아르오’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진보 운동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날이 갈수록 민중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통진당에서 벌어진 잘못들은 실정법으로 다루면 된다. 옥에 들어갈 사람은 들여보내고, 벌금을 물 사람은 벌금을 물리면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없고, 더 적게 지지를 받으면 저절로 해산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통진당 해산 청구를 하고 헌재가 법의 이름으로 해산시키고 만 것이다. 법 적용의 과잉이다.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법 만능주의, 법 편의주의가 아니겠는가.

유럽에서는 13-16세기에 마녀재판이 횡행했다. 북아메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마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구석이 적지 않다.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한다. 도둑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미망인이다. 이 여자가 마녀라는 사실을 몇 사람이 증언하기만 하면 공개적으로 재판을 열 수 있었다. 마녀는 군중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 재판장의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사탄과 간통했지?’다. 비몽사몽간에, 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여자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정신적으로는 간통하기 마련이다. 이제 마녀가 묶여 있는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다. 거기 모인 군중들을 환호한다. 지역 군주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군

중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인류 역사에 크고 작은 이런 일은 반복된다.

현재 재판관들의 법 지식은 절정 고수임에 틀림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법을 늘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법 실증주의, 법 기능주의에 빠져서 법의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기독교 영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4년 10월21일에 현재는 또 하나의 특이한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다. 당시에 8:1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근거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것이다. 그 관습헌법은 조선의 경국대전에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수도 이전은 물거품이 되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사회 소요죄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의 산헤드린 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자부심, 또는 사명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녀 재판관들도 자신들이 사회 정의를 세웠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대세이자 시대정신이자 정의였다.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다. 대한민국 현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역사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2014년 12월 22일)



## 노무현 6주기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가 오늘이다. 그가 뿌린 씨앗은 결실이 있었을까? 길게 보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런 결실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뒷걸음질 쳤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지금의 야당도 마찬가지다. 비주류 측은 실체도 없는 친노 패권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자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던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을 탄핵하던 상황, 임기가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던 노무현에 대한 당시 정권의 검찰 조사가 들어갈 때 보수 매스컴은 물론이고 진보 신문마저 매도하던 상황, 이런 일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미몽과 야만과 권모술수의 정치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오늘 그의 6주기를 맞는 심정이 착잡하다. (2015.5.23.)

얼마 전에 영화 <암살>을 가족과 함께 봤다. 딸이 나오면서 “아빠, 어땠어요?” 하고 묻는다. “음, 그냥 그랬다. 근데 감독이 혹시 <도적들>을 만든 그 사람 아니니?” 딸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다. 내가 이유를 대충 설명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더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긴 하지만 뭔가 어색하더라. 도적들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흥내를 많이 냈고, 암살에서는 내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만한 장면들이 반복되는 거 같았어.” 딸과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겉으로는 기꺼이 영화관에 갔지만 영화가 지루했고, 어느 때는 졸리기까지 했다.

영화의 메시지는 마음에 들었다. 친일과 반일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왜곡의 역사에서 백미는 1948년 8월 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된다. 친일이 친미로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식민사 대주의 정신은 여전하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이다.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광복의 기쁨이 분단의 슬픔이 되다니. 해방둥이들이 70살이 되었다. 당시 어느 누가 분단 70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와 축하 행사에 바쁜 하루였다. 뭘 축하하는가? 노래가 나오는가? 통국해도 시원치 않을 이 민족 분단의 상황에서 말이다. “남북문제만 잘 해결하면 다른 건 깽판 쳐도 된다.”라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든 비극의 원천이듯이 민족분단의 장애를 70년 동안 앓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비극의 원천이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문학적 국방비는 더

말해 무엇하랴.

남북통일, 가능한가?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기독교는 남북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아니 거기에 관심이라도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지쳤다. 그렇다고 내가 유난스레 통일 운동가로 활동했다는 말은 아니고,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던 작은 목소리마저 내놓기가 귀찮아졌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광복 70년, 분단 70년, 가슴이 답답하고 시리다. (2015.8.15.)

## 재벌 삼성 이야기

<시사인> 제488호(2017년 1월21일자)호에 재벌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재벌이라거나 삼성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주는 느낌은 뭔가 불편하고 찝찝한 것이었다. 그 느낌의 정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진보적인 논객들의 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5%(?)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100%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그 정점에 이견희 이재용 부자가 자리한다. 그 외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의 하나가 삼성이다.

<시사인>의 글들을 통해서 ‘이미 권력이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도 이상호 기자가 삼성의 X파일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진보 인사들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당위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당위는 무책임하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견희 이재용 체제를 무조건 끌어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사인>에서 설득력 있게 읽은 내용 한 가지만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그 꼭지글 제목은 이종태 기자가 쓴 ‘삼성의 재벌 시스템 명과 암 그리고 역설’이다.

삼성의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등은 세계 전자 업계에서 선두다.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익금이 천문학적이다. 그런 경쟁력을 얻게 된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재벌 총수의 권력이다. 이견희는 1990년대부터 멀리 내다보고 전자 제품 개발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한다. 만약 이견희가 고용된 CEO였다면 주주 눈치를 보느라 그런 선도적 경영을 펼칠 수 없었다. 주주들은 10-20년을 내다보는 경영보다는 수년 안에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을 원하기 때문이다. 삼성을 개인 소유로 여기는 이견희의 욕망이든 어쨌든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삼성이 세계 첨단의 기업으로 발전

하게 된 데에는, 그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늘어난 데에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적인 경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분석이 나름 설득력 있게 들렸다. 소위 해외의 먹튀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에 깊숙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일도 다반사라는 걸 감안한다면 재벌 식 경영을 무조건 매도할 수 없다. 노무현의 위 발언은 이런 사태를 전제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다. 마지막 문단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세’에 맞춰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변화해갈 수 있다. 국내외 수많은 개혁적 경제학자들과 금융투자 업체들이 갈망하던 흐름이다. 그러나 투자보다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삼성이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삼성은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 영역에 진출해서 글로벌 1위로 치고 올라가던 발전 패턴을 지속할 수 있을까.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은 지금도 선진국이라기보다 ‘추적자’ 지위에 머물고 있다.”(48쪽). (2017.1.25.)

##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크기로 볼 때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다음에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마지막으로 정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 안철수와 김성식을 빼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은 몽땅 전라도를 지역구로 한다. 이렇게 한쪽에서 짝쓰이하고 다른 데서는 지역구 의원을 별로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총선의 과정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요즘 국민의당 지도부 의원들의 행태를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월3일 국회 최고위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세력으로의 정권교체는 최악의 정권교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실패한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될까? 주승용 원내대표 작년 12월인가, 금년 1월 언젠가 정권교체를 못 하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대표는 1월24일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순방하며 전국의 김대중 지지세력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며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 여기에 안철수도 못지않게 문재인을 비난한다.

왜 그럴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보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더 심하게 문재인을 매도하는 이유는 뭘까? 문재인은 국민의당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일 정도로 문재인을 깔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이 대표를 할 때 그들이 탈당했으니, 그리고 현재 문재인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으니 그 심정을 알만하지만 내가 보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들은 문재인 패권을 늘 공격한다. 문재인에게는 패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하겠다. 내가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다 알 것이

다. 한마디만 하면, 그가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그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사납게 으르렁거리지 말고, 그리고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아무리 살벌한 정치 세계에서 살고 있더라도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국민 의당,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진다. (2017.2.3.)

오늘은 19대 대선 21일 전이다. 누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걸 앞으로 21일 후에 확인하면 될 일이니 미리 큰 기대를 하거나 걱정할 일도 아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 생각을 여기에 표명하겠다. 내 생각과 다른 분들에게서는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반대 글 다는 걸 환영한다.

왕상 1장 이하에는 다윗이 늙어 죽기 얼마 전 궁궐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가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다윗의 큰 아들 압살롬은 이미 오래전에 반역을 도모했다가 제거됐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음모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왕위 계승자는 당연히 아도니야다. 그는 분위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간파했는지 세력을 모아서 왕위를 계승 받은 것으로 했다. 역모라면 역모고, 친위 쿠데타라면 친위 쿠데타다.

이때 그 유명한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친모 밋세바를 찾아간다. 아도니야의 왕위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솔로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테니,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나단의 계획대로 다윗은 밋세바의 간청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다. 그 뒤 이야기는 본문을 읽어보면 된다. 다윗 왕조도 다른 나라 왕조와 마찬가지로 권모술수가 난무했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선지자들의 역할도 컸다. 목사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는 필요악이다. 특히 최고 권력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더 그렇다. 최선은 아예 없으니 차선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누가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시민들을 실제로 생각하고, 누가 자기 명예심에 빠져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나는 노무현이 자기를 말할 때 아무개의 ‘친구’라고 말한 분이 누군지 안다. 이런 구분이 쉽지 않긴 하다. 겉으로 다 좋은 말만 골라 가면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교 비평과 같다. 모든 설교자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회중들은, 특히 믿음이 좋은 회중들은, 더 정확하게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회중들은 설교행위에서 뭐가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분간할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정치인이나 목사나 포퓰리스트는 그런 대중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출현한다. 정치 행위에서나 설교행위에서나 “아는 것만큼 보일 것이다.”

19대 대선 -20

대통령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조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지도자다. 역할이 특별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사사였다. 세습이 당연한 시절이라 늙은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해서 후계자로 삼았다. 두 아들은 지도자 능력이 없었다. 평범한 수준도 되지 못했다. 무능력하고 파렴치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믿고 따를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잠깐 옆으로 나가는 말.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 서원 기도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위대한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장한 사무엘도 역시 자식 농사만큼은 뜻대로 할 수 없었나 보다. 이럴 때는 기도도 소용없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지도자가 지녀야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사사로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혈연관계로 인해서 사무엘의 영혼이 무뎠나 보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기도했다. 삼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불신앙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다. 세금을 내야하고, 군대에 가야하고, 궁궐에서 일할 딸들을 보내야 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왕조가 시작된다. 상비군을 갖춘

주변의 여러 나라에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결과다.

정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지켜낼 수도 있다. 가장 합당한 정치 제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왕정에도 장단점이 있고, 공화정도 그렇고, 지금 방식의 민주정치도 장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명제가 절대 진리는 아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인 1표가 최선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은 더 나은 방식이 없어서 1인1표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오해는 말자.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무의미하다거나 1인1표제를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제도가 중요하기는 하나 결국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뿐이었다.

내가 보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제가 최선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분단체제이면서 지역감정이 적지 않게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권력이 없다면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 한다.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통령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힘이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후보가 난립해서 쉽지 않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겠다.

## 19대 대선 -19

김어준과 김용욱

김어준 씨는 ‘나꼼수’ 팟캐스트를 방송할 때부터 내가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다. 언론인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걸출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일반적으로는 판지일보 ‘총수’로 불린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분의 스타일은 나와 거리가 먼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아주 가깝다.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넓고 깊고 날카롭다. 마음에 든다. 요즘 그의 방송 ‘파파이즈’와 ‘뉴

스공장'을 즐겨보고 듣는다.

오늘 뉴스공장의 인터뷰이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었다. 오래전 티브이 교육방송에서 도올의 동양학 강의를 즐겨 시청했다. 그의 책도 몇 권 읽어서 그의 생각을 대충은 안다. 전공은 중국철학이지만 아는 것도 많고 관심 분야도 넓다. 아마 <여자인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도 있을 것이다. 오늘 25분 정도 김어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촛불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을 들고 나왔다.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로마서>의 바울 사상을 다룬 책이다. 김어준 씨가 대선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리가 없다. 다섯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짚막하게나마 촌평을 부탁했다. 그 촌평이 내 생각과 일치했다. 내가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는 명료하게 개념화했다.

- 1) 문재인- 사심 없음, 투명함, 든든함
- 2) 홍준표- 막가파 식이지만 입지는 얇음
- 3) 안철수- 불투명, 가슴의 울림이 없음
- 4) 유승민- 지지해줘야 할 건전한 보수
- 5) 심상정- 지켜줘야 할 보물 같은 진보

내가 기억으로만 정리한 것이라 워딩으로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자신이 없다. 대충 맞을 것이다. 의외였다. 모든 후보를 좋게 평가했는데, 유독 안철수만 야박하게 평가했다. 최근에 안철수의 웅변식으로 변한 목소리를 잠깐 흉내 내면서 (나의 속된 표현으로) ‘밥맛이야’ 하는 듯했다. 안철수가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국가 운영을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철수와 국민의 당이 크게 불편해할 만하다. 이런 촌평이 나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과 안철수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온다. 문재인은 투명, 안철수는 불투명이다. 이걸 내 버전으로 바꾸면 문재인은 영혼이 맑고, 안철수는 영혼이 흐리다.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다. 똑똑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도덕적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요소다. 영혼이 순전한 사람이 있고, 순전한

지 못한 사람이 있다. 지나간 대통령들을 비교하자면 노무현에게서는 전자의 느낌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후자의 느낌이 강했다.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니 이해를 바란다. 영혼이 투명한 사람은 영혼이 투명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끌리는 법이다.

19대 대선 -18

황지우와 안도현

대개의 사람은 설교 한 편, 시 한 줄, 소설의 한 대목에서 삶의 격정이나 깊이를 종종 경험한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시인 두 사람이 내 기억에 선명하다. 한 사람은 황지우다. 한예종 총장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잘렸다. 그의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에서 뭔가 삶의 아득함을 경험했다. 글이나 말을 통해서 그의 시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표제가 된 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를 다시 읽겠다.

초경을 막 시작한 딸아이, 이젠 내가 껴안아 줄 수도 없고  
생이 끔찍해졌다

딸의 일기를 이젠 훑쳐볼 수도 없게 되었다  
눈빛만 형형한 아프리카 기민들 사진  
“사랑의 빵을 나누시다”라는 포스터 밑에 전 가족의 성금란을  
표시해놓은 아이의 방을 나와 나는  
바깥을 거닌다, 바깥;  
누군가 늘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버릇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다  
옷걸이에서 떨어지는 옷처럼  
그 자리에서 그만 허물어져버리고 싶은 생;  
똥똥한 가족 부대에 담긴 내가 어색해서 견딜 수 없다  
글쎄, 슬픔처럼 상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늙어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등 뒤로 시끄러운 잡담을 담담하게 들어주면서  
먼 눈으로 술잔의 수위만을 아깝게 바라볼 것이다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폐인을 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 이리라

이 시만 들고 한 시간 강의할 수 있다. 마지막 연을 보라.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폐인을 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 이리라.’ 이것만 가능하다면 그는 ‘아름다운 폐인’에게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한 시인은 안도현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줄져 『목사공부』에서 나는 안도현의 책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한겨레출판)에 나오는 몇몇 글을 인용했다. 아래는 그의 책 머리글의 한 토막이다.

시에 미혹되어 살아온 지 30년이다. 여전히 시는 알 수 없는 물음표이고, 도저히 알지 못할 허공의 깊이이다. 그래서 나는 시를 무엇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므로 다만 ‘시적인 것’을 탐색하는 것으로 소임의 일부를 다하고자 한다. ‘시적인 것’의 탐색이야말로 시로 들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라 믿는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모든 시적 담론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시의 성채를 위해 ‘시적인 것’을 반죽하거나 구부러뜨릴 수도 있다. 이 책은 내 누추한 시 창작 강의노트 속의 ‘시적인 것’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안도현은 ‘연탄재’라는 시어로 유명하다. 그 단어가 나오는 시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이다. 길이는 아주 짧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황지우와 안도현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더불어포럼’ 회원이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보라는 말을 한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개는 옳은 말이다. 생존해 있는 한국의 현대 시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두 시인이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삶의 향기를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다.

19대 대선 -17  
조중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문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다. 발행 부수가 제일 많고, 따라서 광고 수입도 제일 많을 것이고, 여론 형성에서도 선두 주자들이다. 기독교와 비교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등과 같다. (대구샘터교회는 구독자가 별로 없는 지방의 대안 신문에 불과하다.) 수년 전부터 각각의 신문사가 종편 티브이 방송국도 소유하게 되었다. 활자를 넘어서 소리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생산한 보도는 네이버와 다움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다시 확산된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이번에는 안철수를 광폭 지지한다. 그 방식도 여러 가지다. 여론 조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기획하고, 편향된 패널들을 불러다가 좌담을 붙이고, 현실성 없는 단일화를 반복해서 방송하며, 실수는 감춰주고 좋은 것은 부각시킨다. 반면에 문재인에 관

한 것은 거꾸로 취급한다. ‘민언련’ 이 이들이 보낸 방송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했다. 각 후보에게 우호적인 것은 플러스로, 불리한 것은 마이너스로 계산한 것이다. 계산해보니 안철수는 대략 플러스 60, 문재인은 대략 마이너스 20으로 보도되었다. 일반적인 보도다. 한국의 여론 지형은 문재인으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무리 볼 을 걸어차도 자기에겐 굴러온다.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하는 언론사는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이다. 놀랍게도 중앙일보가 대주주인 종편 JTBC 뉴스 보도도 이에 속한다. 특히 손석희 선생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왕도를 걷는 사람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위에 열거한 언론사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도 기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다. 비교적 오마이뉴스가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모든 언론사 방송을 직접 검토해서 말한 게 아니니 참작해서 읽어주기 바란다.

조중동에도 사외 인사들의 칼럼이 실린다. 대개는 그 신문사 방향에 일치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작년 총선 즈음한 3월11일 중앙일보에 실린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칼럼(중앙시평) ‘안철수 정치의 기로’가 인상 깊었다. 한 마디로 독선과 지역주의에 떨어진 준비 안 된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나는 동의한다. 일 년여가 지난 칼럼이니 박 교수가 지금도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지 내 생각을 잘 정리해준 것이기에 일단 링크해                      놓겠다.                      일독을                      바란다.

<http://news.join.com/article/19706176>

## 19대 대선 -16

### 주적 논쟁

대선 과정에서 ‘주적’ 논란이 빚어졌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일전의 두 번째 토론회에서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문재인은 주적이라는

말은 국방부 장관이나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유승민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졌다. 유승민으로서는 나름으로 합당한 공격이긴 하다. 경제에서는 진보적이면서도 안보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가 가세했다. 자기는 문재인과 달리 북한을 주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평화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지적하기는 했다. 두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지만 핵심은 주적이라는 말로 문재인을 공격한다는 사실이다. 종북 빨갱이라는 말로 평생 공격받은 김대중 정치 철학에 기반한 국민의당 후보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유승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주적과 적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유승민과 안철수는 사실관계가 틀린 걸 근거로 공격한 것이다. 대통령 될 사람들이 틀린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령 사실관계가 옳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품격이 모자란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하려면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정권을 콘트롤 해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하는 식이면 좋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실사구시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주적’이라니, 이게 마녀사냥 식의 공격 아니고 무엇인가? 저런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타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답해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

19대 대선(-14)

안철수 후보

나는 왜 안철수 후보를 싫어할까?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유승민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한다. 목사라는 사람이 나름으로 많



은 지지를 받고 있는 특정 후보를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싫은 건 어쩔 수 없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의 설교와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 눈에는 ‘아니올시다’ 하는 거와 같다.

5년 전에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안철수가 이제는 주로 블루칼라와 노인들과 자영업자들, 티케이와 보수 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지난날 이명박과 박근혜 지지층과 안철수의 지지층이 상당할 정도로 겹친다. 이에 반해서 문재인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화이트칼라, 젊은이, 전문직, 진보, 전라도(이제는 경남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민주개혁 층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안철수가 화려하게 등장하던 5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웃긴다고 생각했다. 뭔가 그럴듯한 말은 골라서 하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들렸다. 내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 설교자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일례로 국회의원 2백 명 감축이다. 오이시디 수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적다. 정치학자들은 4백 명, 아니면 5백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한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면 정부를 견제하기 어렵고,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이 더 강화된다.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안철수가 주장한다. 한 마디로 코미디다.

내가 잘 모르는 정치학에 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에 불과한 안철수에게 그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맛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갈급해 있다는 증거다. 그는 입만 열었다 하면 국민, 국민 한다. 모든 포퓰리스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 역사를 호도한다. 이제 그 실체를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보았다. 그를 실제로 지지하는 사람은 10% 아래일 것이다. 넉넉히 봐서 20% 미만이다. 나머지는 반문재인 세력이 거기에 잠시 휩쓸린 것뿐이다. 별거벗은 임금의 실체를 짐짓 못 본 척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임금

님, 별거벗었다.”라는 어린아이의 외침 한 마디로 대중들의 눈은 한 순간에 밝아진다.

## 19대 대선 -13

### 문재인 후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전한다.

1) 일전에 테니스장에서 잠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어떤 동호회 원에게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홍준표지요. 보수 대표자니까 그를 찍어야지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하고 묻자, 그는 다시 대답했다. ‘그렇지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문재인을 찍을 수 없으니, 홍준표를 찍어야지요. 보수의 대표 아닙니까.’

2) 대구샘터교회 교우 한분과의 대화다. 몇몇 이야기를 하는 중에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 그가 하는 말이다. ‘목사님, 내 주변에서 하는 말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만 다르시네요.’ 그는 대구에서 오피니인 리더 계급에 속한다. 소위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에 사는 분이다. ‘문재인이면 왜 큰일 나는데요?’ 하고 반문하자, 이렇게 대답한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충 이런 뜻이다. 문재인이 종북 좌빨이라는 것이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서 왕따 신세다. 나는 그에게서 동병상련을 느낀다. 나도 정통 기독교에서 왕따 비슷한 신세다.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은 대구 경북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패권 세력이 아니라 대구 경북이 패권이 아니겠는가.

나는 왜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그걸 일일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다. 압축적으로 한마디 하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믿을만하다는 말은 종합적인 의미다. 그가

경우에 따라서 말에서 실수도 있고, 판단 오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여기에는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포함된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어느 후보보다 따뜻하고 자상하고 진지하다. 이걸 수치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느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비슷한 리듬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고민정 아나운서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고민정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헌신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정은 지금 문재인 선대위 대변인이다. 그녀의 남편은 시인이다. 그가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라는 글을 썼다. 가슴이 뭉클하다.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감동을 느끼는 건 흔하지 않다. 링크한 아랫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bosomi710/220927600720>

## 19대 대선(-12)

### 북한 문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가적인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다. 8.15 해방 이후부터 따지면 벌써 분단 70년이 지났다. 정말 웃기를 상황 아닌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체스 게임에 의해 분단된 이후 일찌감치 남북 전쟁을 겪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쪽의 책임이 크냐, 문제의 발단이 어디냐 하는 질문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의 분단체제에 대한 입장이 국민 모두 서로 다르다. 1) 가능한 한 빨리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걸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2) 지금과 같은 분단체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이 없으니 서두르지 말자. 3) 북한 체제는 불량하니까 상대하지도 말고 통일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4)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서로 생각이 다를 것이다. 나는 1)번 입장이다. 다음 대통령이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 줬으면 한다.

이런 나의 입장은 낭만적인 통일지상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분단체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남북 모두의 앞길을 막고 있다. 국방비의 30% 정도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어도 많은 길이 보일 것이다. 가정 살림살이도 이와 비슷하다. 집을 구입하는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듯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지면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 5년 임기 안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20년, 30년 장기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좋다. 당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그런 유의 공단을 휴전선 인근에 10개쯤 세우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려면 일단 정권이 힘이 있어야 한다. 촛불의 힘과 같은 혁명적인 기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과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후보는 누구겠는가.

## 19대 대선(-11)

### 동성애 문제

일전 JTBC에서 진행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군대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다가 급기야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질문했다. 동성애 찬반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었다. 문재인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대답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진보 인사들에게 문재인은 크게 비판받았다. 이들이 지난 27일에 문재인은 성소수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사과 발언을 했다.

문재인이 토론회에서 말실수한 건지 보수 기독교계를 의식해서 그렇게 발언한 건지 나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아니면 홍준표의 작전

에 말려든 것일 수도 있다. 행동이나 말에서 예측 불가인 홍준표는 군대 동성애 문제와 일반 성소수자 문제를 뒤섞어서 말했다.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촌촌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지 나중에라도 사과 발언을 했으니 다행이다.

만약 내가 젊은 시절에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 면접을 받는 자리에서 ‘목사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만약 인정한다고 말하면 청빙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성애는 그야말로 성적 지향성 문제라서 그걸 이성애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청빙에서 떨어질 것이다. 당회에서 장로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면 아예 그런 교회에 갈 생각을 접었을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가장 과격하고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은 보수적인 대형교회 목사와 신자들이다. 이 자리에서 그들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그들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의 이번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로서는 최선의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연민을 늘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안철수, 그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내가 이렇게 과격하게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최선이다.

19대 대선(-10)

대선 결과 예측 53%

오늘 (10년쯤)후배 목사와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다. 몇몇 대화를 하다가 대선에까지 이어졌다. 나는 ‘정’이고 그는 ‘이’다. 그는 나에게 높임말을 쓰고 나는 중간쯤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다 생략

했다.

정: 요즘 대선 구경 잘 하나?

이: 구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흐름만 본다.

정: 아무래도 문재인이 될 것 같다.

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지 않겠는가. 53%는 될 거 같다.

정: 과반이 된다는 거냐?

이: 그렇다.

정: 나도 그걸 희망하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40%로 나오는데, 실제 대선 당일 투표율을 70%로 잡으면 문의 득표율은 과반을 훨씬 넘는다. 40%는 100%를 전제하는 계산 방식이다.

정: 정말 그렇군. 문 지지자들은 대부분 투표할 테니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군. 신기하네.

이: 내가 그런 통계에 전공 아닌가.

정: 안철수는 왜 그런데?

이: 글썄. 생각보다 내공이 너무 없다. 지난 총선 전에 구닥다리 정치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정: 그 사람들이 그대로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았을 텐데 말이야.

이: 안철수가 백신으로 반문재인 바이러스를 다 잡은 거지.

정: 하하.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군.

이: 그렇지.

정: 대선 끝나면 정치 생명 끝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안철수도 보따리 쌀 게 분명해. 주제 파악도 못 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기웃거리다니, 코미디 같아. 벤처 기업가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야.

이: 벤처 기업가로도 크게 부족한 사람이지.

정: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가.

이: 이제 87년 체제가 이번으로 정리되고, 뭔가 새로운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정: 그렇지. 또 연락하자.

이: 그러자.

## 19대 대선 (-8)

### 노동절

오늘은 전 세계가 ‘메이데이’로 지키는 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명명한다. 근로자의 날이라! 어감이 어색하다. 노동과 근로는 보기에 따라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근로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다. 어떤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고 있다 하자. 그 사람이 ‘근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보통은 ‘일하고 있다.’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노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근로는 육체노동만이 아니라 정신노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중간한 언어라서 일터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노동절이라는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말을 접어두고 근로자의 날을 사용한다는 건 위선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육체노동자의 숫자는 줄고 정신노동자의 숫자는 늘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로봇의 활용도가 대폭 늘어난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옳은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노동 없이 정신만 건강해질 수 없으면, 정신노동 없이 육체만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원 수도승들은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는 말을 삶의 토대로 삼는다.

이번 대선 후보자 중에서 노동절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는 정의당의 심상정이다. 정의당의 구체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른다. 더민주당과의 차별성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정의당 로고를 보니 정의당이라는 글자 옆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 달려 있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 노동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의당이 집권하면 노동과 노동자가 소외당하지 않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겠는가. 그걸 나도 바란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밀고 나갈 추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정의당에 취약하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란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에게도 노동 개념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 19대 대선 -7

### 사드 대란

사드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금년 중반 이후에나 설치될 것처럼 하더니 벌써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떤 협정이 맺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는 1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떠벌리고 있고, 측근들은 군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사드 설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댈지도 모르겠다. 사드 대란이라 부를만하다.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영토 방어에 거의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천방지축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더 험악해질 게 뻔한 사드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 우스꽝스럽다.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우리나라 당국자가 오히려 빨리 설치해서 빼도 박도 못 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들은 그걸 애국적 행위라고 말하겠지만. 애국인지 매국인지 각자 판단에 맡긴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사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적극적인 반대부터 적극 찬성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당 심상정, 더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당 유승민, 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살짝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반대다.

## 19대 대선(-6)



TK

나는 1986년부터 소위 TK(대구 경북) 지역에서 목회자로 살았다. 30년이 넘었다. 나이 삼십 대 중반에 시작해서 육십 대 중반에 이르렀다. 이런 정도면 경상도 사람이 다 된 거 아닌가.

대구(경북)의 특징이 몇 개 된다. 기독교 세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불교가 강하다. 곳곳에 유명 사찰이 많다. 기독교 여러 교파 중에서 장로교가 주류인데, 그중에서도 예장이 주류 중의 주류다. 예장 합동과 통합이 주류이고, 다음이 고신이다. 기장,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은 힘을 못 쓴다. 순복음교회는 전국적으로 급속 성장한 탓에 대구에도 큰 교회가 몇몇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합동과 통합 일색이다. 내가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성결교회를 이단 비슷하게 취급했다. 대구는 기독교에서도 다양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걸 보수라고 해야 할는지.

대구샘터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 중에서 앞서 출석하던 교회의 보수성을 불편하게 생각한 분들이 적지 않다. 내가 보기에 보수성이라기보다는 편향성 내지는 독선이다. 신앙적인 보수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보수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목사들과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많다.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때도 옛날에는 많았다. 빨갱이 취급을 한다. 지금도 당회 모임 같은 데서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할 것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최근 티케이 지역 대선 지지율에서 홍준표의 지지가 급상승 중이다. 안철수에게 갔던 표가 홍준표에게 물리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이다. 실제 투표에서 문재인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을 종북 좌빨로 여긴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이런 지역적 특색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만약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잘해야 한다. 아마 잘 할 것이다.

## 19대 대선 -5

### 대선과 일상

요즘 매일묵상의 주제는 19대 대선이다. 내 입장을 편하게 전하는 중이다. 어떤 대목에서는 감정이 거칠게 표현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 결과가 반드시 내 기대대로 되어야만 행복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다. 누가 당선되든지 내 일상은 전혀 지장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대선보다 내 일상이 나에게는 소중한다는 뜻이다.

오늘도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떴다. 지난 몇 달간 발목이 시원치 않아서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 눈을 뜨면서 발목 상태가 어떤지 힘을 줘서 테스트 한다. 요즘은 다행히 통증이 없다. 침대에 걸터앉아 발목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선다. 중력을 느낀다. 커튼을 열고 원당 마을을 내려다본다. 여전히 마을이 그곳에 있다. 놀랍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나의 이런 일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지 않은가.

내 일상은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기에 나는 대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들의 일상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노동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세상을,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세상을, 남북이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예수의 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을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후보가 있으니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19대 대선 -4

### 노무현 묘역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전해 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물론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국민통합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이제는 현충원에 안장해서 모두가 전직 대통령을 다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말했다.

본인은 선의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뜬금없는 발상이고 발언이다. 현실감이 턱없이 떨어진다. 노무현이 퇴임 후 봉하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그리고 묘역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전혀 없이 미래 지향적 통합이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쁘장한 말을 골라서 한 것이다. “정말 반대만 하고 서로 싸우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문재인을 물고 늘어진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갑철수인지 안철수인지 확인해 달라. 내가 이명박 아바타 아닌 걸 확인해 달라.’고 조른다. 문재인이 북한을 주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홍준표와 똑같은 스텐스에서 비판한다. 미래로 가자면서 김종인을 끌어들이는 등, 정치공학을 일삼는다. 그의 주변에 모인 정치인들은 가장 구태의연한 모사꾼들이 주를 이룬다. 말은 미래라고 하면서 몸은 과거 지향이다. 말은 새정치라고 하면서 몸은 구태다.

어떤 이들에게는 안철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하게 들린다. 실제로는 성서텍스트의 세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예쁘장한 종교언어만 나열하는 설교자와 비슷하게 보인다. 내용은 형편없이 부실하고 포장만 화려한 설교다. 실제로는 화려하지도 못하고 화려해 보이고 싶은 포즈를 취할 뿐인 설교다. 어색하다는 말이다. 그런 설교에 현혹되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의 실체를 뚫어보는 ‘눈 밝은’ 기독교인들도 다수 있다. 앞으로 그런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안철수에 대한 내 생각은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4, 5년 전부터 분명했다. 당시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 쓴 글에서 두 꼭지를 골라서 다시 올린다.

안철수 교수

‘안철수’는 이제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었소. 참 신기한 일이오. 한국사회가 역동적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가볍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소. 그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50% 이상의 지지를 받더니, 박원순 씨에게 시장 후보를 양보한 뒤로 순식간에 박근혜를 넘어서는 대중적인 지지도를 보이고 있소.

내가 보기에 이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오. 이 현상은 기존의 정치권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증거일 뿐이오. 좀더 뼈뺏하게 보면, 안철수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대중의 로망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의 상당한 이들이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당시에 대중은 신화를 이룰지 모른다는 로망으로 이명박을 지지했소.

안철수 현상은 겉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 대한 경종 같지만 속내를 보면 진보영역에 대한 경고에 가깝소. 안철수 교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이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요. 그분에 대한 쏠림 현상은 몰상식한 보수에 대한 역겨움이기도 하지만 진보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오. 안철수 현상이 강해질수록 진보의 영역은 줄어들드오.

안철수 대권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을 도왔듯이 그냥 현재의 자리에서 역사발전에 공헌하는 게 좋소. 그게 본인의 가치를 더 높이는 선택일 거요. 굳이 나서서 정치하겠다면 한나라당을 택하는 게 좋소. 물론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보수로 자리매김을 다시 하는 걸 전제

로 하오. 지금 민주당의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오.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실제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되오.

위의 글을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마시오. 나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니 정확하게 판세를 읽을 능력이 없소. 단순히 느낌일 뿐이오.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 교수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오. 한국과 같은 정치 세계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소. 어쨌든지 안철수 교수 덕분에 철옹성 같았던 박근혜 대세론에 금이 갔다는 것은 잘된 일이오. 몇 달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 정치는 정말 재미있지 않소? 지금 재미를 말할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지만. (2011.11.3.)

오늘 저는 안철수 교수의 대선출마 선언을 오마이뉴스 중계로 보았습니다. 정치평론가가 아니기에 객관적인 분석은 제가 할 수 없고, 그냥 평범한 지식인으로, 목사라는 것도 접어놓고, 느낀 것을 두서없이 적습니다.

한 마디로 실망이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모범 답안을 들은 심정입니다. 현재 정당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잘못 된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단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자고 하던데요. 교과서적인 주장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여와 야가 싸웁니다. 때로는 네거티브도 합니다. 저질스러울 때고 있어요. 그게 현실 정치입니다. 그거 없이 고상한 정치를 하자는 말은 정치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안랩 처럼 한 기업을 운영할 때는 가능하지만 오만가지 군상이 모이는 현실 정치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안철수는 그걸 요구하고 있네요. 청중들은 그런 비현실적인 요구에 열광하고 있구요. 비현실이 일단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겠지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교수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듯보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많은 국민을 만나서 들은 결과 자신이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각이라는 것도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답니다. 설문으로 본다면 그가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더 무게를 두었겠지요.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가 출마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교과서적이라는 근거 중의 하나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내일이라고 함께 모여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자는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좀 나이브하지 않나요?

제가 모두 좋아하는 안철수 교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가 직접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대변인 등의 입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말을 들었지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요? 그가 아마추어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좋은 뜻으로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미숙하다는 뜻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학자로서, 기업가로서는 가능하겠지만 비열한 현실 정치에서는 그의 시도가 실패할 겁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그가 나름으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지 않고 이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대선에 실패해도 계속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걸 미루어보면 아마 끝까지 대선에 나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일화의 조건으로 당 개혁과 쇄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전제했습니다. 그런 개혁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단일화도 불가능하겠지요.

어쩌면 안철수에 의해서 정권교체는 요원해질지 모르겠군요.  
따지고 보면 정권교체가 절대선은 아니겠지요. 사족으로 두가  
지만 짚습니다. 1) 안철수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  
답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2) 기자회견 내내 너무 긴장해 있더  
군요. 제가 지켜본 기자회견의 결론은 '실망'입니다.  
(2012.9.19.)

### 19대 대선 -3 북한 포비아

일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당신 북한  
좋아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문재인이 북한을 좋아할 리가 없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0.01%나 될까.  
공개적으로 당신 북한 좋아하냐고 묻는 행태는 좋게 보면 선거 전  
략이지만 나쁘게 보면 품격 떨어지는 마녀사냥이다.

최근 어떤 이들과의 대화에서 문재인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  
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설명에는 논리가 없었다. 6.25 때의 경험을 절대화  
하고 있었다. 약간만 방심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힌다는 두려움  
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일종의 북한 포비아(phobia, 공포증)  
다.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다.

일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로 반공을 기독교 신  
앙과 일치시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노이로제 현상으로 나  
타나고 있는 북한 포비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좋던 싫던  
북한과의 교류가 최선이다. 교류는 북한 체제에서 볼 때 오히려 두  
려운 일이다. 우리의 경제 능력이 그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교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의 한계가 노출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의 현  
실을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  
는 게 정상이다.

미국 주간지 <TIME>은 아시아판에 문재인을 표지 인물로 실었다. 북한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협상가라는 제목이 달렸다. 그 기사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이들 모두를 고려해보면 문재인이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5월 9일 선거에서 문재인을 주요 경쟁자인 과학기술을 통해 역대 부자가 된 안철수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목적에서 보다 군사적인 접근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자국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포함된다. 4월 29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와 비교하여 21% 앞서고 있는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보다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차기 행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9대 대선 -1

### 민주개혁 세력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 하나는 진보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다. 진보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보수는 전통을 지킨다. 둘 다 필요하다. 다만 바른 방향의 변화이어야 하고, 좋은 전통이어야 한다. 변화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전통도 무조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도 제각각 여러 색깔로 나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한다. 진보적인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적인 진보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진보는 대체로 민주개혁 세력으로 불리고, 보수는 대체로 근대화 세력으로 불린다. 민주개혁 세력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놀라워할 정도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뤄냈고, 근대화 세력의 노력으로 경제 중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구분도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민주개혁 세력 역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며, 근대화 세력도 정



치 발전에 나름으로 공헌했다.

문제는 수구 보수 세력이다. 이들은 60-70년대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본다. 극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증오한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북한 체제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비판을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다. ‘너희들이 욕이오를 겪어 봤어?’라는 말로 밀어붙인다.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구 보수 세력은 무너져야 한다.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안의 세력도 민주개혁 세력과 근대화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민주개혁 세력은 말 그대로 교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해보려는 이들이며, 근대화 세력은 교회 성장을 근본 목표로 삼는 이들이다.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이 교회 성장에 매몰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민주개혁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균등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회는 훨씬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이다. 교회의 민주개혁 세력은 명함을 내밀기 힘들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구 경북 목회자 협의회’에 속한 목사들은 대다수가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인격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민주개혁적인 태도를 보이면 교회가(주로 당회원들 중심의 교권자들) 외면한다. 그런 교회에는 신자들도 모이지 않는다.

부끄럽지만 교회의 변화는 세상보다 느리다. 세상이 민주개혁 중심으로 일단 변화되어야만 교회도 조금씩 따라간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고 세상을 바꾸면 기독교계에서 민주개혁 세력에 속한 목사들과 교인들도 힘을 얻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침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다. 내가 보기에 큰 틀에서 이번 대선은, 비유적으로 교회의 민주개혁 세력과 성장주의 세력과의 대결이나 마찬가지다. 투표, 잘하시라! (2017. 5.8)

## 노무현 8주기

오늘이 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다. 봉하에서는 오후 2시에 추도식이 열렸다. 최근 방문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오전부터 종일 참배와 추도식 참가 목적으로 다녀갔다. 나는 봉하에 딱 한 번 오래전에 다녀왔다. 마음 같아서는 서너 번이라도 갔을 텐데,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되었다. 올해에는 어쨌든지 한번 다녀올 생각이다. 시원한 가을에 소풍 삼아서.

올해에는 노무현과 함께 청와대에서 오래 생활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탓에 노무현 8주기가 더 주목받는다. 노무현은 자신이 문재인의 친구라는 사실을 자랑스레 여겼다. 아마 대통령 선거 즈음에 한 말로 기억한다. “사람들이 나보고 대통령 꿈이 되냐고 묻는데, 그렇다. 대통령 꿈이 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 주변 친구를 보라고 했다. 나는 문재인의 친구이니 대통령 꿈이 된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뜻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성격적으로 크게 다르다. 한쪽이 불이라면 다른 한쪽은 물이다. 노무현은 생각과 말이 함께 나가는 사람이지만, 문재인은 말이 생각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쓰면서 비록 노무현이 나이가 많지만, 친구처럼, 형제처럼, 동지처럼 지냈다고 한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서 같은 길을 걸었다. 노무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으니,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 해야 할지 아직 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 노무현은 구시대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새 시대의 첫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조심을 보인다는 걸 전제하면 노무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다. 이

구호 중심에는 사람과 세상이 있다. 사람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세상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개인으로서의 사람만으로는 세상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과 세상이 결합되어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노무현은 꿈꾸다가 아무 성과 없이, 아니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떠났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악에 의한 실패였다. 그 세상의 악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가 63세 나이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영이 바위에 몸을 던진 날부터,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고독과 절망이 전율처럼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늙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큰 슬픔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슬픔은 8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지 않았고, 눈물도 마르지 않았다. 작은 계기가 생기면 지금도 다들 운다. 왜? 우리가 아주 소극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자라는 무의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뒤에 제자들이 느낀 감정과 비슷할지 모른다. 절대 절망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노무현의 운명을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활이 경험되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레퀴엠이다. (2017.5.23.)

## 한명숙

오늘 새벽 5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수감생활을 만기로 마치고 출소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시작된 그분의 재판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는 검찰 조서에서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1심에서는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두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검찰 조서 작성 과정에서 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결정했으면 다 옳은가? 대법원 법관들은 그 시대의 최고 지성인들이고 법 전문가들이기에 그들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들의 판결에 늘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한다. 법과 지성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도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법은 기독교식으로 말해 율법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롭게 굴러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이다. 형식은 형식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다. 형식이 필요하지만 형식의 절대화하는 진리가 왜곡되는 첩경이다. 이게 인간 사회의 딜레마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과도하면 사회가 파괴된다. 오늘날 대법원의 행위 역시 부단히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계처럼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의 대법원은 더 그렇다. 현재 양 아무개 대법원장이 곧 물러가고 김명수 춘천 법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다. 아주 잘 됐다. 사법부의 환골탈퇴가 현실화되기 바란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검찰과 대법원이 결정적인 단서로 본 것은 한 총리의 여동생의 전세금 지불에 정

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 부정한 한 아무개 기업가가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한 총리가 수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건으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한 총리가 (또는 동생이) 평소 알고 있던 한 아무개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다.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돈거래를 실정법만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언젠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의 행위를 평가할 때는 그가 살아온 과정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거론될 때 내가 여전히 그를 지지한 이유는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그렇다. 검찰의 기소는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게 분명하니 논외로 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게는 한명숙의 양심이 대법원의 법 행위보다 더 정의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법은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법을 너무 믿지 마시라. (2017.8.23.)

## 적폐

요즘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나돈다. 대선 기간부터 그랬다. 아니 대통령 탄핵 때부터다. 적폐(積弊)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뭔가 불편하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의미로만 본다면 별 것 아니지만 어감상으로는 너무 강해 보인다. 박멸해야 할 해충을 대하거나, 또는 단죄해야 할 반동분자를 대하는 느낌이 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아마 이런 걸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직접 해당되는 분들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난 일은 웬만하면 덮어두고 앞으로 나라를 바르게 가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는 게 좋다고 말이다. 이들의 생각에는 당신만 옳다는 말이나 하는 반발심이 담겨 있다. 이런 반발심은 적폐라는 단어가 풍기는 과격성에 놓여 있다. 벌써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적폐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나온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적폐’ 말고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을지.

적폐 청산은 어떤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제도 개혁이며, 다른 하나는 적폐에 대한 단죄다. 제도 개혁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에 대한 단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정적인 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 목사가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내가 보기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단죄는 필요하다. 사람은 영악하고 간사하기에 단죄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죄받는다 고 해서 누구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긴 하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는 것은 역사발전에서 큰 잘못이다. 프랑스는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독일에 부여한 이들을 과도할 정도로 단죄했다. 독일도 나치 활동했던 사람은 90

제가 넘은 사람일지라도 최근까지 재판에 회부했다. 단죄는 역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학습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단죄는 단죄이  
고 용서는 용서다. (2017.8.29.)

## 북핵 문제

### (1)

지난 13일(수) 서울을 다녀오면서 KTX에 비치된 조선일보에서 두 편의 글을 읽었다. 하나는 뇌과학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KAIST 김대식 교수의 글이었다. 자연과학자의 글이니 조선일보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유익할 거라는 생각으로 읽었다.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남북문제였다. 그는 북한을 절대악으로 전제하고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전술핵과 ‘아시아태평양 나토’라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화를 내듯이 글을 썼다. 그에게 북한은 완전히 남이고 미국과 일본은 친구다. “그런 뒤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우리는 자유와 부의 길을 가면 되고, 그들은 가난과 독재의 길을 가면 된다.” 자연과학도의 글로는 진도를 너무 나갔다. 독약과 같은 글이다. 이런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기 전공인 뇌과학이나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 세상을 바르게 볼 줄 모르는 자연과학자의 과학기술은 세상을 파괴한다.

같은 면에 실린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 사회부장 선우정의 칼럼이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분탕질한 것처럼 북한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극한의 상황을 전제하고 전쟁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 반전을 구걸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가 사는 길이고, 후자는 죽는 길이다. 마지막 문장이다. “미국 도움으로 겨우 생존한다 해도 북한의 호전적 유회에 농락당하는 동북아의 팔레스타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전형적인 선동이다.

조선일보를 읽을 때마다 나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 든다. 그런 목사들은 서슴없이 이슬람 포비아, 동성애 포비아를 전파시킨다. 그런 설교에 무방비로 오래 노출된 기독교인들은 조선일보 논조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부결에 이들이 힘을 보탰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들도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남북문제, 북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들게 되어 있다. 한국교회 개혁이 어려운 상황과 비슷한 형국이다. (2017. 9.19)

(2)

요즘 북핵 문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심지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 전에는 자한당 국회의원 일부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려고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가서 갔다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문재인 정부도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뒤에 사드 임시 배치를 끝냈다.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모든 게 북핵과 연관된 문제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실용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핵무기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걸 멀리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고 싶어 한다.

핵무기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영국과 프랑스가 공식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이고, 이스라엘도 스스로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보유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는 많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물론 미국이다.

핵 개발에 나라의 미래를 거는 북한이 골칫거리인 것은 분명하나 기존의 핵보유국가들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자신들의 핵무기를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컨대 2050년까지 핵무기 없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 좋다. 과거에 핵무기 감축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만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내로남불’을 내세우는 거와 같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부

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신들은 핵무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지만 북한은 없다. (2017. 9.20)

(3)

북한은 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가? 남북문제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에 관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긴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는 설교자로서 소신을 갖고 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생각이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나올 때도 많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지상 목표다.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의 눈으로 는 그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들만 난폭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격지심인지 쇠뇌당한 것인지는 접어두고 그들이 느끼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전제하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한다.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국은 휴전 상태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국은 떠나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미국은 왜 북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것인가? 핵 폐기가 먼저인가, 평화협정이 먼저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도 미군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도 주한 미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한의 입장이 여기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결 구도는 어느 쪽에게도 좋은 게 없으니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누가 이런 일에 앞장 설 수 있을

까? 미국은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서라도 남한에 남으려고 한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형국이라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힘이 근본적으로 없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벼랑끝 전술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다. 대한민국만이 문제 해결의 의지와 힘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게 문재인인의 ‘운전자 역할론’이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지만, 좀더 지켜보자. (2017. 9.21)

(4)

남한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된다. 힘과 힘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좋게 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국법적인 토대가 없다. 핵 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감행할 수는 없다. 당장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핵무기(전술핵도 마찬가지다)는 우리의 안전을 실제로 보장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핵무기는 일반 무기가 아니다. 당장 살상 범위도 크려니와 방사능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면 더 이상에 걸쳐서 삶을 파괴한다. 서울에 요즘 개발되는 고성능의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하자. 서울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개성과 평양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들도 피해를 본다. 모두가 죽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손에 들어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무장은 테러리스트들의 행동과 비슷하다. 테러리스트는 배에 폭탄을 두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폭한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도 죽을 각오로 그런 끔찍한 일을 일킨다.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의 모

든 것은 파멸에 이른다. 그걸 그들도 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나 죽고 너 죽자’는 심정으로 사용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북한은 ‘나 죽고 배고파 죽겠으니 좀 살려줘’ 하는 심정으로 배에 띠 폭탄을 두른 테러리스트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중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다. 배고파 굶어죽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면 된다. 배가 부르면 자해 자폭할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 서로 신뢰가 쌓이면 배에 두른 폭탄 띠를 천천히 풀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 아닌가. 이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까? 낭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으니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2017.9.22)

##### (5)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말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그대로 앓고 있는 나라가 우리다. 여전히 분단된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남북의 국방비를 복지로 돌릴 수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데도 뭔가의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의 냉전 체제가 실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기만 해도 답은 대충 나온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미국의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이런 냉전 체제가 더 지속되기를 내심 바란다.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이미 단종 된 미국 전투 헬기를 수입 운용하느라 1천5백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한다. 헛돈을 쓴 것이다. 미국 덕분에 우리가 북한에 먹히지 않으니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다. 그런 이들은 아마 군사산업을 통해서 떡고물을 얻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할 정도로 생각이 짧은 이들이다. 지난 정권만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번에 20조에 달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관계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당장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염두엔 둔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전략적으로 투명하게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 분단 체제 아래서 교회의 역할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까지 뛰어넘어 예언자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는 오히려 퇴행적인 집단이 되고 말았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의 모습이다. 그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질투, 교만, 분노가 영혼에 가득한 인물이다. 이에 저항하는 일부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교회는 힘이 없다. 하나님 이 직접 나서는 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끝) (2017.9.23.)

## 문재인과 김정은

평생에 걸쳐서 뉴스를 보면서 박수 친 장면이 세 번이다. 1)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출구조사 발표 2)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출구조사 발표 3) 2018년 4월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의 만남. 1)번에서는 박수만 친 게 아니라 환호성을 치면서 집사람과 함께 춤을 추듯이 두 손을 흔들었던 것 같다. 2)번에서는 대략 예상하고 있었기에 집사람과 함께 흥겹게 박수만 쳤다. 오늘 3)번에서는 혼자서 작은 박수를 보냈다. 작은 박수지만 마음으로는 더 큰 박수를 보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북한에 걸쳐져 있던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뉴스를 접한 분들은 오늘 12시간에 걸친 만남의 분위기와 내용이 어땠는지를 알 것이다. 학점으로 매기면 A플러스다. 다 잘 될 것이다. 거의 100% 확신한다. 확신하는 근거를 다 말할 필요도 없다. 한 가지만 말한다면 문재인과 김정은의 신뢰 관계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는 뛰어넘을 것이다. 사람은 우선 느낌으로 서로를 알 수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느낌으로 상대를 믿을만하다고 확신할 것이다.

가장 큰 장애는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김정은이 먼저 핵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고 체제 보장도 없다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본다면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지만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과 김정은이 풀어나갈 것이다. 김정은은 아직 젊기도 하고 북한의 국력이 약해서 어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문재인에게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있다. 트럼프를 달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정 말을 듣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각오를 하면서 어필하면 된다. 문재인이 한반도 안에서 무력 전쟁은 무조건 반대한다면 트럼프로서도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자신들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에서 남한

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오늘 두 정상  
이 40여분 동안 배석자 없이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벤트  
도 있었다고 한다. 천성적으로 진정성이 특출한 사람이라서 문재인  
이 김정은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일단 남북의 평화 공  
존과 번영이라는 길은 뚫렸다. 디테일은 오래 시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프로세스가 흔들림없이 계속되려  
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정권이 앞으로 당분간 정권을 잡아야 할 것  
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같은 이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그  
때는 모든 게 허사다. 그런 이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반도의 역사  
가 퇴행을 견지 않도록 지금 정권이 앞으로 4년 동안 토대를 탄탄  
히 다져야 한다.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메스컴이 인정하고 있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을 대한민국 제1 야당과 대표만 폄하하고 매도하고 있다  
는 사실이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연민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차라리 잘 됐다. 그들이 정권을 잡을 기회가 그만큼 더 멀어  
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도우시는가 보다.  
문재인과 김정은, 오늘 수고가 많으셨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주기  
바란다. 기분 좋은 하루였다. (2018.4.27.)

### 남북 3차 정상회담-평양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3차 회담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끝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백두산 천지까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함께 했다. 이제 한라산에 가는 일만 남았다. 백록담까지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물이 마를 때가 많고 정상에서 거기까지 케이블카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몸무게를 좀 줄이는 게 좋을 텐데...

남북 군사 긴장이 크게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실현되 거나 같다. 양쪽이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종전선언 아닌가. 형식적인 종전선언은 트럼프에게 공을 돌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에 관해서 한국당과 미래당은 북한에 끌려다닌 것이라고 폄하한다. 비핵화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북 친선교류와 군사 대결구도 완화, 경제협력 등이 비핵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인지, 알면서도 트집을 잡는 것인지,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되어야만 자신들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못해 연민이 느껴진다.

조선일보는 이번 회담을 가장 노골적으로 지적질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일보는 정론직필의 신문이라고 하기가 민망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 선동하는 데 일등신문이다. 여전히 때려잡자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수준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남북 철도나 도로 사업, 유해 발굴 사업도 곧 시작될 모양이다. 더구나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도 약속했다. 변수만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 문화 예술 체육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듯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때도 올 것이다. 이번에 굴지의 기업 총수들이 함께 간



것은 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일간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이야기지만, 시민들에게 폴더 인사를 하고,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말을 건넸다. 19일 밤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과 북녘 동포들을 향해서 고난의 시절에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라를 발전시킨 저력을 크게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을 트집잡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지 않을 걸 보면 남북화해 평화통일을 향하는 시대적 요청이 무르익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방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평화통일을 향한 남한과 북한의 열정이 화염처럼 뜨거우니 미국의 입장에서든 가능한 남북한의 노력에 협조하는 게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느끼지 않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말이 있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수고가 크셨다. 남북 평화 통일의 골격을 세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분 좋은 밤! (2018.9.20.)

## 조국 이야기

지난 한 달간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과 그의 가족 이야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야단법석, 말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들리기로는 몇십만 건의 뉴스가 반복 재생산되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청문회가 열렸다. 며칠 전에 있었던 조국의 기자 간담회 때 질문하던 기자들이나 이번 청문회에서 질문하던 야당 국회의원이나 수준이 비슷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지루하게 반복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청문회 대상자를 당혹스럽게 할만한 논리나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청문회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가장 큰 이슈는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건이었다. 조국 부인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이 어제 심야에 기소했으니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동양대학교 최 총장은 조국 부인인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뜻으로 언론에 말했다. 표창장 건으로 총장이 대학교 총장실이 아니라 검찰청(?)에 불려가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코미디다. 대학교에서 발부하는 (봉사)표창장에 대해서 총장이 다 아는 것처럼 말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학 중에 시골에 내려와 영어 지도해 준 대학생에게 주는 그런 표창장은 전결 처리로 발부된다는 사실을 다 안다. 일련번호도 당연히 다를 수 있다. 딸이 봉사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인 정 교수가 담당 사무직원을 통해서 봉사 표창장을 손에 넣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 물론 사람의 속을 내가 아는 게 아니기에 정 교수가 딸의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했을 수도 있다. 검찰이 잘 밝혀보기 바란다.

어제 청문회를 보느라고, 물론 부분적으로만 봤지만 설교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

로 임명한다. 그 이유를 미주알고주알(?)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 일단 느낌으로 그에게 신뢰가 갔다. 지난 삶의 과정도 우리가 대충 안다. 가족에 관계된 일들에 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했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대부분이 클리어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내의 기소 건은 문제가 안 된다. 누가 말했다는 조국의 언행불일치(?)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언행불일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민주당 금 아무개 의원이 조국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좀 웃기는 시추에이션이다. 우리는 지금 수도원 원장을 뽑는 게 아니다.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무부의 수장을 뽑는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지만 보인된다. 도덕성도 결정적인 흠결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청문회를 보면서 조국 씨가 도덕적인 면이나 언행일치 면에서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윤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쿨하게 생각하면 된다. 조국이 누누이 말했듯이 총장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이 할 일이 있다. 자기들 일에 충실하면 된다. 검찰이 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권력을 이용해서 크게 부정한 일을 행한 범죄자를 수사하는 듯한 태도로 압수수색을 벌였는지, 반복적으로 벌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고 판단한 것일까? 기자들은 조국 딸의 자소서까지 탈탈 터는 방식으로 취재하고 확인 과정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했다. 대중들의 관음증을 자극한 건가? 앞으로 청문회 대상이 되려는 사람은 자녀의 자소서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미친 세상 아닌가?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장관 하지 말라는 건가?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 그것을 감수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비우고 대통령직을 시작했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목사보다 소명 의식이 더 투철하다.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이며, 나가지 못해도 누구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청문회를 보고 든 생각 두 가지만 짧게 말한다.

1) 조국은 왜 그리 당당한가?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자서 피곤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뻔뻔한 게 아니라 당당했다. 그리고 겸손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2) 어느 신문은 지난 기자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조국이 ‘모른다’라는 말로 일관했다고 비판한다. 모른다는 발언의 숫자까지 나열했다. 빼박한 눈에는 모든 게 빼박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10시간 이상 진행되기에 아는 건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비롯한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조국 씨, 힘내세요. (2019.9.7.)

## 김진홍 목사

인터넷 기독교 신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1월4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전광훈 목사 주도)에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교회)와 김동길 교수(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지지 발언을 했다. 김진홍 목사의 발언에 대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김진홍 목사는 “나는 북한 문제 간단하게 생각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서 선제공격으로 북한 없애 버려야 한다.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 정치는 간단하게 해야지 복잡하게 하면 말려든다. (중략) 북한을 선제 타격해 김정은 일가를 아예 뿌리 뽑아 버려야 한다. 포클레인으로 들어내 버려야 한다”고 했다.

눈을 의심했다.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북한을 무력 공격하여 김정은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 발언은 평생 “새 벽을 깨우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현실감이 턱없이 떨어진다. 한미일 군사 공격을 감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나 두 가지만은 분명하다. 1)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 수백만 명도 함께 죽을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 인구 밀집 지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 2) 중국군이 개입할 것이다.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다. 김정은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중국에 군사적 도움을 청할 것이며, 중국도 북한이 고스란히 미국 주도로 전복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 직간접적으로 참전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남한 경제는 5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북한을 향한 군사적 옵션은 상상할 수 없다.

인간 역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다. 김진홍 목사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대중 집회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에 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이 김진홍 목사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대목만 보충하겠다.

그것은 혐오다. 한국교회는 일정한 대상을 혐오한다. 혐오의 대상은 그들이 볼 때 악이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니 진멸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이런 혐오 심리가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여 기독교 외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난다. 한국교회는 늘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듯하다. 목사들의 설교에서도 화가 느껴진다. 당신은 이런저런 게 잘못이야, 하는 투다. 영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증거다. 거꾸로 한국교회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하다. 왕자병, 공주 병이다. 한편으로는 자기 학대라는 심리 기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만족이라는 심리 기제가 작동하기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딘가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나타난다. 그런 방식으로 조용하게 살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다른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할 정도로 나대니, 옆에서 보기에 부끄럽다. 이럴 때는 기독교 체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김진홍牧사는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이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그렇다치고, 자기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북한 공격 운운해야 한다. “북한 동포 해방”(?) 웃기는 이야기다. 미국(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주민이 해방되지 못했다. 스릴러 영화처럼 이란 국방장관을 암살한, 또는 테러한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는커녕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낼 것이다. 승리한 전쟁보다는 실패한(손해보는)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라나타! (2020.1.8.)

## 21대 총선

(D-7)

내가 총선과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게 신학대학교 학부 학생 시절이었다. 지금 들으면 이름도 생소한 ‘유신헌법’이 대한민국을 겨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고,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 모인 대의원들이 모여 간접 방식으로 뽑았다. 투표할 맛이 나겠는가. 1970년 대 10년 어간에 투표한 기억이 별로 없다. 80년대에 접어들어서 꾸준히 투표했다.

21대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후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아내와 나는 사전 투표로 결정했다.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도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여러모로 편리하다.

내가 사는 곳은 막대기를 세워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는 지역이다. 이런 데서는 투표할 기분이 별로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비례 투표는 사표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처음 마음먹었던 비례 투표의 대상을 바꿨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만큼 말이다. 노 대통령보다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로는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은 것 같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나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정치 철학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국회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남북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며, 검찰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일종의 복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자리를 잡게 하는 일이다.

재미 삼아, 내가 기대하는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번호로 매긴 당 이름은 각자 상상에 맡긴다. 1당 160석/ 2당 110석/ 3당 10석/ 4당 7석/ 5당 4석/ 6당 2석/ 기타 7석/ 합계 300석

(D-6)

이번 총선은 지역 의원 253석, 비례 의원 47석을 놓고 서로 겨룬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비례 전문당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길을 가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이 그들이다. 비례성을 높이하고자 개정된 선거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그것의 시시비비를 따질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 현실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일만 남았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가 미묘하다.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의 입장이 재미있다. ‘다스뵈이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중이다.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도 여럿이니 웬만하면 중립을 지킬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 열린민주당을 디스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의외였다. 그의 주장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좀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린민주당 사람들은 김어준을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걸 다 알지만 김어준은 자신의 독특한 논리와 열정으로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그는 사안을 보는 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날카롭기도 하고,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인간애적인 열정도 상당한 사람이다.) 나도 설득당하는 중이니 전파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반면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그야말로 중립이다. 자세하게는 나도 모르지만 알릴레오 방송에서 받은 느낌이 그렇다. 나는 처음에 유시민의 입장이 팬클럽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김어준에게로 조금 더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많이 당선되어 거기에 비례대표 후보를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1당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 적당한 선에서 분할될 것이다. 여기서 김어준이 옳은지 유시민이 옳은지 따질 건 없다. 두 사람 모두 여론 형성에서 문 정권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니 말이다. 정말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박



수를 보낸다. 그나저나 진중권 선생은 왜 그렇게 됐지? 정말 궁금하네.

(D-5)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이 잘 컨트롤 되고 있었다. 대구의 신천지로 인해서 상황이 견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던 2월 하순쯤에, 이번 총선은 여당이 참패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상황을 상상해보면 된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아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았다. 지옥과 천당을 몇 주간 사이에 오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보인 문재인을 하늘이 도왔다고 말해도 된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왜 막지 않았느냐, 마스크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느냐 등등, 온갖 비난을 쏟던 야당과 소위 조중동 주류신문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외국 국가수반이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대표적인 외신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 당국자와 의료진을 극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해괴한 논리로 이를 부정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이 있다.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의료진이 잘한 거라고, 정부는 오히려 잘못이 컸다고 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수준 낮은 정당과 언론에 속지 않을 때가 되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정치에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그나저나 김종인 선생은 도대체 뭘 추구하고, 뭘 말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D-4)

문 정권은 얼마 있지 않으면 집권 4년 차로 들어선다. 이런 시기의 총선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확 좋아지지 않는 한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번 총선은 그런 구도가 먹히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지지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가 나지만 대체로 50% 중반, 반대가 40% 초반, 찬반 차이가 10% 이상 난다. 역대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고공 지지율이다. 그렇다면 야권도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올 게 아니라 견제할 힘을 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낫다. 하소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정권의 정책 중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면 된다. 나는 지금껏 미래통합당이 문 정권의 정책을 인정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코로나19에 관해서도 무조건 비난한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한 거고, 잘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비난한다면 알팍한 거고, 정치철학이 없다면 어리석은 거다. 어쨌거나 황교안, 김종인, 유승민이 코로나 재난지원 문제를 두고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니 조금은 알겠다. 그들은 지금의 총선 승리보다는 이후 미래통합당 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에 관심이 더 크다. 거기다가 미통당 후보들의 막말 시리즈도 점입가경이다. 이래서야 야권이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나. 우스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이 크다.

(D-3)

오늘(4월12일)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총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문구는 북한 당국자들이 사용할만한 것들이다. 현 정권을 향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시키는 내용이었다. 수성구(을) 지역에서 미통당 후보와 초박빙으로 1위를 다투다는 홍\*표 후보의 현수막 내용도 거칠기 그지없었다. “문재인을 잡을 큰 인물 홍\*표” 점잖은 대구 시민들이, 특히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구민들이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좋아할까?

막말에서는 소위 태극기 부대를 이끌었던 전\*훈 목사가 한 수 위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광야예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된 집회에서 그는 문 대통령에게 쌍욕을 해댔다. 미통당 대표 황교안은 전 목사와 의기투합했다. 그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문재인을

좌파 빨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이 총선에서 많은 득표를 얻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고 악에 받쳐 외친다.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원로 중의 한 분인 홍\*길 목사도 지난 2월에 비슷한 주장을 펼쳐서 제자 목사들에게마저 비판받았다. 보수 기독교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광분하여 비판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을 몇 번이나 만난 문재인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성품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흑백 이원론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황석영의 소설 <손님>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 어록 중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다음이다. “남북문제를 잘 풀어내면 다른 건 깽판을 쳐도 괜찮다.” 어투가 좀 거칠지만 나는 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상황은 똑 같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아젠다는 남북관계다. 마음먹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다음 대통령이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면 한다.

#### (D-2)

정파나 사익에 기울어지지 않고, 또 종교 편향이 없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법원과 검찰과 언론이다. 그 집단들이 신뢰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독재 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오늘날 법원은 평균 이상의 신뢰를 받는다. 학문적으로 연구된 것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나의 개인적인 느낌에 기대서 말한다. 검찰은 평균 이하로 보이고, 언론은 밑바닥으로 보인다. 검찰과 언론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언론의 문제는 상업적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보루로 여긴다.

교만한 생각이다. 개인으로서의 검찰이 선량해도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언론은 공공의 힘을 사적인 이익으로 이용하기에 공의와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기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정직해도 이런 상업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두 집단이 결탁하는 일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독재 시절에는 정권과 언론이 결탁하더니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과 언론이 결탁하여 사회 정의를 밀동치부터 흔든다. 모든 검찰과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향이 그렇다는 말이다. 지난 조국 사태와 얼마 전에 불거진 채널A 사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게 가능할 것인가? 형식적인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다. 여기 검찰과 언론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있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정당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

(D-1)

이제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 투표율이 26%를 상회한다니 본 투표까지 마치면 총선 투표율로는 이번이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보와 각 정당 대표자들은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과 선거 결과가 발표될 내일까지 피를 말릴 것이다. 후보들의 변을 들어보니 여야 없이 모두 죽기 각오하고, 때로는 상대를 혈투하면서 득표에 열을 올린다. 총선이나 대선이 온 국민의 축제처럼 진행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서로 양보도 하고, 낙선된 사람이 당선된 사람을 위로하고, 거꾸로 당선된 사람이 낙선된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래서 모두 즐거워하는 선거로 말이다.

너무 이상적인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마음만 조금 바꾸고, 제도만 조금 바꾸면 가능하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느 집단이나 다른 이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려운 짐을 지기에 그에게 특혜만 돌아가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서로 장로가 되려고 경쟁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이 예배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사생결단식으로 자기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섰다는 말은 반만, 또는 3분의 1만 진실이다.

선거는 필요악이다. 현재 인간 세상을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특히 지금과 같이 살벌하게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대중 선동 기술이 획책 되는 선거방식은 완전한 제도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임시로 채택한 것뿐이다. 선거가 모두의 축제로 승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최선의 정치적 선택은, 또는 차악으로서의 정치적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현실적으로 실현해내려고 노력할 정당에 한 표를 주는 것이다. 성경 버전으로, 가난한 사람도 복 있는 세상을 꿈꾸는 정치를 위하여! <끝> (2020.4.14.)